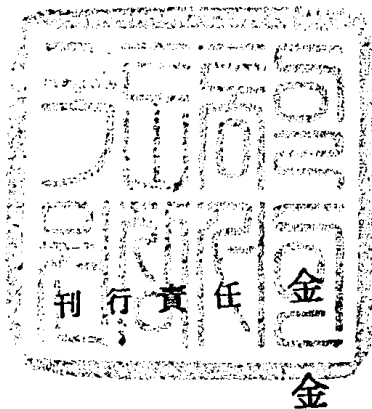


- I. 本論叢은 當院에서 主管한 第6次 統一問題國際學術會議 發表用으로 委囑한 國內 學者의 特殊課題 3編을 收錄 한것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玆하는 것임.

南北韓 機能的 接近



德 信 (政策企劃室補佐官)
 容 在 (政策企劃室補佐官)

國 土 統 一 院

目 次

I. 機能的 接近과 分斷國 統一問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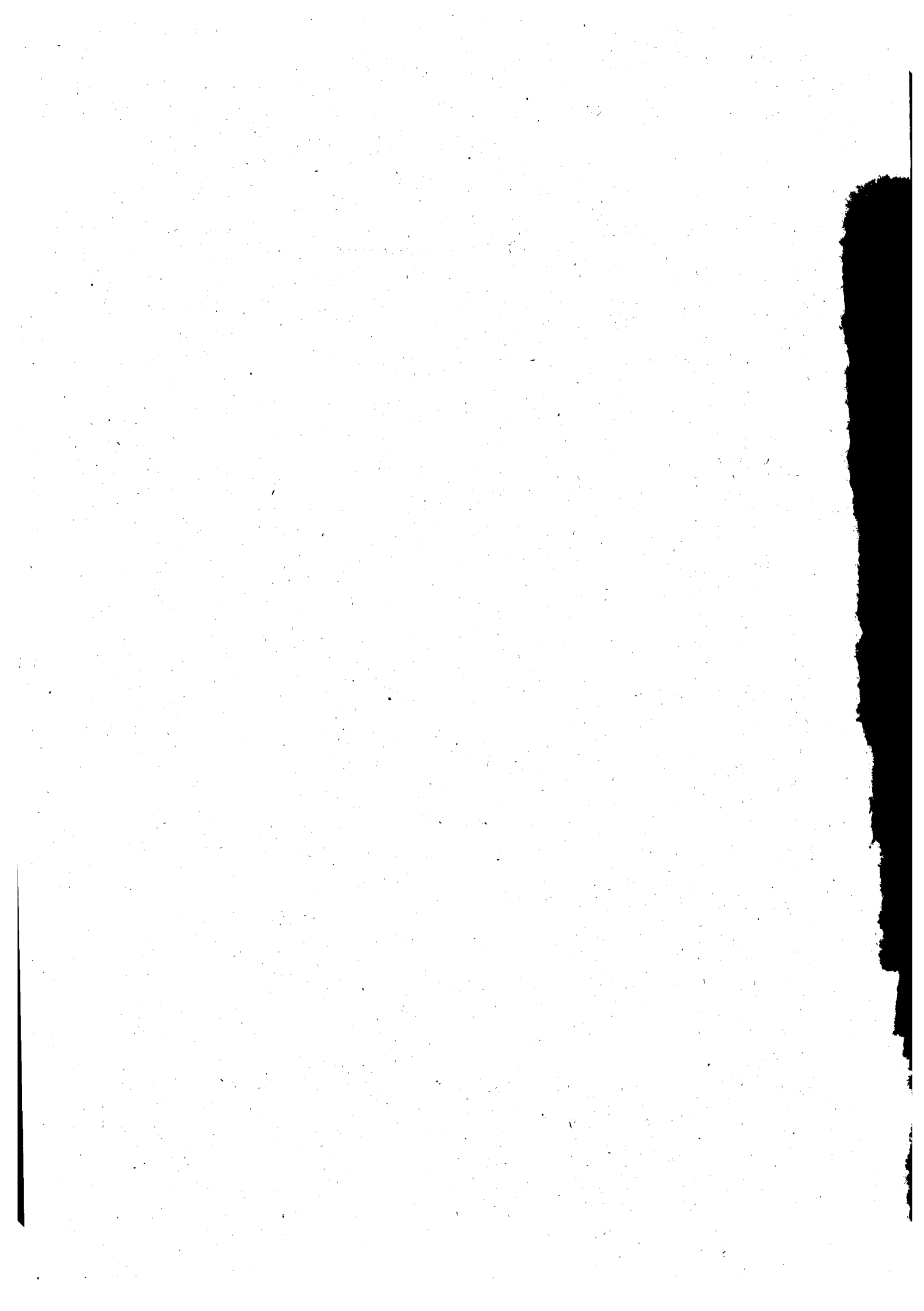
尹 正 錫 (中央大)

II. 南北韓 經濟交流와 問題點..... 69

金 世 源 (서울大)

III. 南北韓 社会体制의 变化와 再統合..... 149

高 永 復 (서울大)



機能的 接近斗 分斷國 統一問題

研究執筆責任： 尹 正 錫

(略歷) 서울大 法大卒

美国미시간大政治学博士

現 中央大政外科教授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0



目 次

要 約.....	7
英文要約.....	14
I. 序 論.....	15
II. 韓國에서의 『統合』研究.....	17
III. 『統合』 概念上的 問題点.....	20
IV. 統合理論의 理論的 前提.....	24
V. 政治的 統合의 理論的 說明	35
VI. 機能主義統合理論의 概觀	42
VII. 機能的 接近理論의 批判	57
VIII. 統合理論에서 본 南北의 再統合.....	64

하는 狀態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統一 그 自体의 目標은 社会的 葛藤 (social conflict) 을 前提로 하고 있어 南北韓의 同質化보다는 對立鬭爭을 內包한 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統一概念上的 差異를 適切하게 指摘하여 陸士의 朴庸玉教授는 '韓國의 統一概念은 民族概念上的 『水平的 統一』, 即 南北韓의 統一을 意味하지만, 北韓은 民族概念上的 統一과 階級概念上的 「垂直的 統一」, 即 支配階層과 被支配階層의 統一을 同時에 意味한다' 라고 하였다.

統一에 이르는 過程이나, 統一自体에 對한 概念規定에 있어서 南北韓은 相異한 立場과 假定을 갖고 있다. 特히 北韓이 主張하는 「合作」과 「團結」이라는 必學的 過程은 그 概念이 「平和」, 「和合」等과 같이 葛藤의 排除를 前提로 하지 못한 概念으로서 統一後 적어도 二個의 社会存制가 葛藤과 鬭爭을 해야하는 非平和的 統合을 指向하는 概念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嚴格히 말해서 南韓이 希求하는 兩体制間의 異質性을 점차적으로 克服하여 同質化된 統合을 指向하는 立場에서 볼 때, 統一이 아니라 二個의 個體 (南韓과 北韓) 를 한데 묶어 놓고, 그 묶음속에서 鬭爭한다는 차라리 統合排除 現象을 前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統合理論은 一般的으로 国内的 統合과 國際社会的 統合으로 兩分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統合現象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그 取

扱範圍가 넓어 簡單하게 統合理論을 展開하기 어렵다. 또한 統合 個体の 重点的 活動內容이 經濟的인 것인지, 政治的인 것인지, 또는 異質體制間的 統合인지에 따라서 政治統合에 關한 理論定立이 쉽다 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統合이란 現象을 概念化하는데에 많이 쓰이는 理論的 背景을 보면 統合現象을 社会体系理論 (social system theory) 에 서 說明하려는 傾向이 많이 보이고 있다. 統合 (integration) 이란 用語가 內包하고 있는 異質的 意味에도 不拘하고 統合現象의 機能的 意味로 보면 다음과 같은 共通性을 보여주고 있다. 即 社会体系를 說明할 때 우선 体系上的 位階概念을 前提로 하고 있 듯이 統合現象의 概念化도 이 같은 体系上的 位階를 前提로 한다.

社会体系는 여러가지 下位体系 (sub-system) 로써 構成되며 各体系는 하나의 獨立된 個別的 單位 (unit) 로써 成立할 수 있다.

이 個別的 單位는 相互依存的 (interdependent)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또한 相互浸透的 (interpenetrative) 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合現象은 이 같은 個別單位인 部分으로써 全体를 形成하는 過程을 말하는 것이다.

社会体系內에서의 個別的 單位가 一慣性있는 体系 (coherent system) 를 形成하는 過程을 가리켜 『統合』이라고 一般的으로 定義한다.

따라서 統合이란 概念自体가 個別的 構成單位들이 相互依存的이고 相互浸透的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各個別單位는 全体的인 体系特

性 (system properties) 을 共通的으로 保有하고 있다는 三個 大前提 밑에서 成立된 것이다.

機能主義理論이 提唱하고 있는 統合理論의 根本的 立場은 社会体系의 個別的 單位が 同質的인 境遇 各單位의 統合으로 推進해가는 過程에서 經濟分野가 가장 쉽게 統合을 成就하고 一定段階의 統合이 經濟分野에서 이루어지면 自動的으로 政治統合으로 擴散 (spill-over) 된다는 理論的 假定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統合으로 옮겨가는 体系가 開放社会로서 그 均衡 (homeostasis) 을 維持하기 爲해 一個單位의 下位体系 統合이 自動的으로 인접 單位体系의 統合을 誘導하고 있다는 것이다.

機能主義에 關한 Mitrany의 理論은 世界平和를 成就하기 위한 여러 觀點에서 보나 政治的 統合을 이루는 諸問題에서 보나 學者들의 關心을 끌게 되었다.

Mitrany는 交通, 衛生 또는 郵便等과 같이 機能的 活動이 國際社会에서 國家間에 切實하게 必要하게 되면 世界平和가 發展하게 될 것이며 獨立된 國際機構들이 같은 機能을 担當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같은 機能的 國際機構는 構成員으로서 반드시 모든 國家를 包括的으로 수용할 必要는 없고, 모든 國家는 이같은 機能的 國際機構에 加入 또는 脫退를 任意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原則으로서 機能的 國際機構의 活動範圍은 그 機構가 寄與하고자 하는 分野에서 가장 広範圍한 機能을 維持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Mitrany의 機能主義理論은 基本的으로 政治的 統合을 目標로 하고 있는 思想이 아니며 차라리 世界平和를 指向하고 있는 理論일 뿐이다. 政治統合은 結局 世界平和를 追求하기 爲한 機能的 體制 (functional system)의 副産物로서 域内の 政治統合과 같은 結果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即 機能的 制度가 共同社会意識을 造成케 하고 이 共同社会意識이 世界平和를 造成케 하여, 機能主義 理論은 窮極的으로 世界政府의 發展에 寄與한다고 概觀할 수 있다.

政治的 統合에 關하여 理論的으로 展開한 것은 新機能主義學者들이다. 特히 Ernst B. Haas 教授는 단적으로 Mitrany 教授가 人間社会에 있어서 權力的 要素를 充分히 考慮치 못했다고 指摘하였다.

새로운 經驗을 根拠로 한 新機能主義 統合理論은 特히 地域的 統合理論에서 엿볼 수 있다. 新機能主義가 基本的으로 主張하는 것을 보면 地域統合을 成就하는데는 統合에 對한 劃期的인 政治的 選擇보다는 漸進的인 經濟的 決定 (economic decisions)이 훨씬 有利하다는 것이며 經濟的 利害關係가 많아서 생겨지는 紛爭은 實際로 政策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自生的으로 個個 構成員의 意思와 關係없이 새롭게 中心的이고 超國家的인 機構가 생긴다는 것이다.

Haas 教授는 統合過程에서 主要行爲者인 利益集團이 國境을 超越하여 成長한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고 있다. 即, 集團의 壓力은 國家로 부터 共同體의 水準에로 移轉되고 政策에 影響을 미칠 수 있도록 國境을 넘어서 組織된 集團으로서

統合을 刺戟하는 效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統合의 衝動」)
이같은 複合的 社会理論은 發展된 産業民主社会에서 主要구름(專門
가와 政治家)의 決定的인 期待와 行態가 새로운 狀態의 中心的
「심볼」이나 制度에 注意를 기울이게 될 때 커다란 政治的 共同
체로 發展되어진다는 것이다. 長期的으로 보아 經濟的 利害關係에
따라서 政治的 忠誠心은 漸次的으로 새로운 超國家機構에로 集中하
게 된다는 것이다.

Mitrany의 傳統的 機能主義理論과 Haas의 新機能主義理論은
주로 政治統合에 이르는 方法論上的 差異點에 따라 区分된다고 볼
수 있다. 新機能主義者들은 政治的 關聯性이 없는 사소한 領域의
技術的 活動이나 協同에 依한 統合方式을 扞하지 않는다. 新機能
主義者들은 주로 政治性이 많고 또 政治的으로 複合的 領域의 課
業을 扞하여 이를 統合의 技術陣이 計劃할 수 있도록 한다. 비
록 이 新機能主義者들의 窮極的 目標가 聯邦制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目標를 當장 聯邦制度와 連結시키도록 하지는 않는다.

傳統的 機能主義는 이에 反하여 經濟와 技術 및 其他分野의 去
來에서 얻은 惠沢을 他分野로 移植시킴으로써 언제나 經濟와 技術
上的 必要와 그 可能性에 따라 그 方向을 決定하고 있으나 新機
能主義는 톱니바퀴처럼 部分的 統合의 擴張理論을 통해서 연속적인
統合에 이를 수 있는 制度를 意圖的으로 構想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間的 政治的 結束은 國家間的 經濟的 統合에 依하여 自動的으
로 이루어진다는 理論的 假定을 아직도 固守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政治統合은 經濟統合의 連續體로 取扱되고 있으며 經濟分野의 統合效果가 넘쳐 흘러 퍼진다고 하는 浸透擴散(spill-over)의 概念과 政治行爲者의 漸進的 政治化의 概念을 中心으로 하여 機能主義理論이 成立되어 있다.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National Unification of
Divided Countries-A Cas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Jung-Suk Youn

Prof., Jung Ang University

1.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utility of the functional approaches to the national unification problem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functionalist theories of regional integration have gained their theoretical attention among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in the early 1970 in Korea. In order to establish a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has officially announced gradual approach to the national integr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unctionalist theory should help promote a mutual conta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2. The North-South contact initiated in 1972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step toward a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both Koreas. Political integration may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1) an intra-nation process, in which divided social entities accomplish one political entity;

2) an inter-nation process, in which more than two nations cooperate to form a new political community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member nations; and 3) whether an intra-nation or an inter-nation process, the political integration takes place between two social and political entities which have different ideologies. Among the research results in the area of political integration, there has been no theoretical explanation for the integration processes between ideologically different two entities, such as North and South Korea.

3. Fundamentally there is an important conceptual misunderstand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as to the approach and end-product of their contacts. As for the North Korea, their tenet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is to go through two distinct social processes, the first, "Hapjak(合作)" process, literally means "joint venture", in which more than two socially different entities put an effort to achieve common goals, but it is an interim step for the causes accompanying by conflict as a dialectic progress of the society; and the second, "Dangyoul (團結)" process, literally means "uniting", in which more than two entities exist, but attempt to achieve common goals. In both conceptual schemes in the integration processes, the North Korean delegates at the North-South talk suggest that,

after agreeing to have a political unification, a struggle between the revolutionary people and the reactionary capitalist upper class is inevitably persisting within this new unified political entity.

4. As for the South Korea the national unification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integrating different social institutions and mores. The political integration means to the South an end-product of the gradually integrating society between two entities,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contact. For this reason, a gradual approach of the functionalist theory has been thought of a major theoretical tenet for the policy of national unification.

5. The main theme of functionalist approach to the political integration is that the function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efficiently within non-political sector of the society, and the integrating effect of the sector can be gradually spilled over to the political sectors. This strategic concept of gradual integration processes arose the interest of Korean scholars when the North and South had started their contacts in 1972.

6. However, an assumption of the automatic spill-over effects

of the integration does not help developing any strategies for the ultimate national unification. For the functionalists have developed their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ideologically homogeneous western belief system. After two decades of research and theory building about regional integration, they have entered a period of reflection in which attempts to take stock of how the theories are and to indicate possible future paths for research and theory are being made. As a continuing source of substantive research and theory the neo-functional school is almost invariably at the center of such discussion with neo-functionalists increasingly seeking to operationalize and quantify some of their hypotheses and variables.

7. As to the strategy of the initiation of integration, the neo-functionalists relied on the assumptions of "integration by stealth", and "the positive role of popular ignorance."

Thus, technocrat-politicians would be able to bypass the electoral or supporters and directly forge links to an ever stronger regional organization until the "logic of economic integration" would have proceeded so far that it would be too late for anyone to change the pattern. To a considerable extent integration by stealth characterized the early days of LAFTA and the CACM.

8. As to the protective cloak of "non-controversality", it quickly wears out, however, as more sensitive interests are touched and the political heat generated by the integration process grows. Indeed there are some political climates in the LDC, where economic issues are so highly politicized from the start that the cloak of non-controversality cannot be worn in the first place. The problem in this sort is one of premature "overpoliticization".

9. It is true that the neo-functionalist has been more concerned about integration within existing communities, where processes such as spillover do in fact seem to take place, than about the geographic expansion of integration or the construction of new communities.

10. In conclusion, the functionalist approaches to the national unification have an advantage to promote the possibilities of contacts, rather than an integration itself. As for the official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national unification, this paper proposes a broader scheme of regional integration including other East Asian nations than only both countries, the North and South Korea .

I. 序 論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가 定着되기를 希求하는 것은 韓國人 모두가 바라는 바이며 周邊에 있는 여러나라가 願하고 있는 바다. 大韓民國의 平和統一意志는 이러한 次元에서 戰略적으로 設定된 目標이나 기어코 祖國의 統一을 達成해야하는 것은 民族的 宿願인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分斷狀態가 오래 持續되는 가운데 南北韓社會는 各各 独自の인 變化過程을 거쳐 異質化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는 分斷의 固定이라는 認識이 國際政治적으로 常識化되어 있으며 政治體制, 經濟發展, 社會構造 및 精神的 側面에서 南北韓이 異質的 對立狀態에 있다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

韓半島의 平和定着이 南北韓間에 統一을 成就하는 길이라고 政策 目標을 設定하게 될 경우, 南北韓은 엄연히 異質社會라는 것을 前提로하고, 이 같은 異質社會의 統合 또는 統一이 어떤 方法으로 可能할 것인가를 開發해야 할 것이다. 結局 異質社會의 再統合이 理論적으로 어떻게 可能할 것인지를 說明하는 것이 이 論文의 內容이되고 있다.

第1章에서 序論을 다루고 이 論文의 方向을 提示하고 있으며, 第2章에서는 韓國에서 政治統合에 關한 研究가 어떤 契機에 생겼으며 그 研究成果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第3章에서 『統合』이란 用語의 概念規定과 이 統合概念을 둘러

싸고 일어나는 南北韓間의 見解差異와 이에 따른 問題點을 整理하고,

第 4 章에서는 統合理論의 理論的 前提를 紹介하고,

第 5 章은 政治的 統合의 理論을 說明하고,

第 6 章에서는 機能主義統合理論을 概括적으로 紹介한다.

第 7 章에서는 統合에 이르는 機能的 接近의 理論的 批判과 政策的 限界性을 指摘하고,

第 8 章에서는 南北對話를 中心으로한 問題點을 指摘하고 새로운 政策代案을 提示코자 한다.

Ⅱ. 韓國에서의 『統合』研究

韓國에서 政治統合 (political integration) 에 關한 研究는 70年代 初盤에 特別히 論議되었고, 1972年 南北對話가 具體적으로 推進되고 있을 무렵에 가장 活潑히 開發되었었다.¹⁾ 歐羅巴 經濟共同体 (EEC) 의 域內 統合過程을 理論적으로 說明하려는 國際政治 및 國際經濟學者들의 研究結果를 導入하여 비로소 南北韓의 統一問題에 統合理論 (integration theory) 을 適用說明하고 研究結果에 수반되는 戰略的 考慮를 疎하였던 것이다.

EEC의 統合에 關한 理論가운데 社會체제의 漸進的 統合이 理論적으로 可能하다고 보는 所謂 機能主義 또는 新機能主義理論 (neo-functional theories) 을 援용하여 南北接觸을 爲한 理論定立을 試圖하였던 것이다.

南北韓이 接觸하는 것과 南北韓이 統一으로 指向해가는 것은 根本적으로 다르다. 機能主義理論家들은 接觸이 많아지면 統合이 거의 自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基本假說을 내세우고 있는 反面에 聯邦主義理論家들은 政治的 統合은 自發的이건 強制的이건 間에 『合意』 (by agreement) 에 依하여 이루어진다는 前提를 내세우고 있다.

註 1) 禹在昇 "統合理論의 比較研究와 韓國統一의 接近方法", 國土統一院, 1972; "機能主義理論과 南北再結合", 國土統一院, 1972.

韓半島上的 國家統合問題는 보는 觀點과 政治的 立場에 따라서 그제 다른 두가지 政策上的 前提 (policy premises) 를 내세울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南北韓間的 政治的 統合을 두개의 다른 政治單位의 統合으로 보아 超國家間的 地域統合 (regional integration) 으로 볼 것인지 또는 둘째로 南北韓이 同質的인 政治單位라고 보고 하나의 統一된 國家를 形成하기 爲한 國家統合 (national integration) 으로 볼 것인지에 對한 明白한 理解가 必要하다.

특히 政治·經濟的으로 異質的 特性을 지니고 있는 南北韓間的 統合이 어떤 經驗的 理論 (empirical theories) 으로 說明할 수 있을 可能性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大韓民國은 國家의 安保的 次元에서 南北對話의 繼續을 通한 祖國의 統一을 國家目標로 삼고 있으며 韓半島上的 政治的 統一을 이루는 일에 主導權을 確保하면서 南北韓의 統合을 이루어야 한다는 政策目標와 前提를 내세우는데, 지금까지 發表되고 있는 統合理論의 寄與度가 얼마나 있을지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 과연 異質體制間的 國際的 地域統合이 可能할 것일까?

異質體制間的 國家的 統合을 이룩하는 경우에 한 쪽이 다른 쪽에 對한 明白한 說得力과 影響力이 있는 強制力을 通하여 國家統合이 成就된 境遇는 歷史上에 많았다. 民族國家의 成立過程이 그러하였고 武力에 依한 分斷國家의 統合이 그러하였다. 政策上, 일단 強制力의 發動에 依한 政治統合을 포기한 때에는 결국

選択된 統合政策의 实效性은 極히 稀薄한 것으로 判斷된다.

政治統合과 異質体制의 共存에 寄與할 수 있는 統合理論 가운데 現在까지 가장 有하고 實踐可能한 理論이 바로 機能主義學者들의 理論들이다. 지금까지도 機能主義理論은 前理論(.meta-theory)에 지나지 않는 學說에 不過하지만 政治單位間的 統合現狀研究에 있어서 가장 多樣한 方向에서 理論定立을 試圖하고 있기 때문에 紹介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機能主義學者가 提唱하는 統合理論이 決코 南北韓의 國家統合을 誘導하리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南北韓의 平和的 共存과 民族的 相互交流에는 크게 寄與할 것으로 判斷된다.

韓國에서의 政治的 統合研究은 南北韓이 相互 다른 立場에서 統一政策 및 政治的 統合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에 機能主義理論을 具體적으로 紹介하기 前에 南北이 提示하고 있는 政策內容의 概念規定上 問題點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Ⅲ. 『統合』概念上的의 問題点

南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平和와 統一』은 그 單語가 지니고 있는 概念上에 여러가지 差異를 생각할 수 있을 뿐더러, 南北間의 政治的 統合을 成就하려는 努力에 있어서 戰略上 여러가지 差異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南北韓이 統合에 이르는 過程에 있어서 韓國政府는 『先平和·後統一』을 主張하고 平和定着을 爲한 不戰條約의 締結과 統一社會體制를 確立하기 爲한 南北間의 交流와 協力을 實踐하여 相互間에 信賴를 造成하는 일이며 마침내 異質化된 祖國의 平和統一이 成就되어 南北韓 社會體制的 同質化를 撰索하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의 窮極的 目標은 南北의 同質化에 있고 이것이 成就되면 統一이 平和的으로 達成되기 때문에, 하나의 政治權力構造와 同質社會를 具現하여, 社會葛藤(social conflict)이 없는 質的 統一마저도 이룩하려는 것이다. 結局 漸進的으로 社會가 同質化되고 보면 政治的 統合이 可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政府의 統一方針에 反하여 北韓側에서 主張하는 統一理論에 따르면 『先統一·後平和』의 政策을 主張하고 있다. 1980년에 들어서서 南北總理間對話를 爲한 南北 實務代表接觸을 通하여 發表된 北韓의 主張을 살펴보면, 1980年 3月 18日의 四次接觸에서 『北과 南의 各 分野에 淸澈 合作하고 團結하여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킨다는 前提를 내세우고 있으며, 五次 接觸에서

「合作」과 「團結」은 統一의 必須的 過程이라고 主張하였다.²⁾

北韓側이 主張하는 「合作·團結」은 概念上으로 보아, 一時的이고 條件的인 過程으로서 對立鬭爭이 常存하는 狀態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統一 그 自体의 目標은 社会的 葛藤 (social conflict) 을 前提로 하고 있어 南北韓의 同質化보다는 對立鬭爭을 內包한 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統一概念上의 差異를 適切하게 指摘하여 陸士의 朴庸玉教授는 " 韓國의 統一概念은 民族概念上의 「水平的 統一」, 即 南北韓의 統一을 意味하지만, 北韓은 民族概念上의 統一과 階級概念上의 「垂直的 統一」, 即 支配階層과 被支配階層의 統一을 同時에 意味한다" 라고 하였다.³⁾ 北韓은 이러한 統一概念에 따라 諸政黨, 社會團體들이 모두 參與하는 「大民族會議」 또는 「人民代表者會議」를 主張하면서 南韓이 主張하는 責任있는 當局者間의 會議을 回避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西江大學校의 李相禹教授는 北韓의 統一論理를 要約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⁴⁾ 즉,

註2) 中央情報部, 「南北總理間對話」를 爲한 南北實務代表 接觸現況 및 展望 (1980.6)

3) 朴庸玉, " 「1.19 提案」以後의 南北對話: 對話를 통한 南北韓關係의 改善展望 및 對應戰略", 月刊論叢「政策研究」第7号 (1979.4) pp.5-23,

4) 李相禹, " 南北韓會談 展開戰略: 目標, 原則 및 展開方法" 月刊論叢「政策研究」, 第6号 (1979.3), pp.1-28.

첫째,北韓은 民族統一問題를 『民族解放運動』의 延長으로 主張하며 韓民族은 日帝로부터 半만 解放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둘째, 共產主義式 階級論理에 따라 北韓側에서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이 成就되어 人民이 完全解放되어 人民의 政府를 樹立하였으므로 垂直的 統一이 이미 完成되었다고 보는데 比하여 南韓의 人民은 美國의 支配를 받는 一部支配階級の 政權 밑에서 擄取당하고 있는 實情이어서 垂直的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韓民族은 하나로서 南北韓人民은 不可分の 一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統一課業에서 남은 作業은 南韓에서 『反動政權』만을 除去하는 일 뿐이라는 것이다.

네째로 『反動政權』은 北韓의 人民政府가 武力으로 除去하는 武力解放의 方法으로 든가, 아니면 南韓人民들이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通하여 除去하는 方法에 따라 一部 『反動政權』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을 成就하는 方法으로 美國을 南韓에서 追放시키기 爲하여 對美協商과 南北韓 人民間의 『統一』을 確認하기 爲한 『人民間의 協議』를 強力히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可能하다면 『政黨·社會團體와 當局間에 이루어지는 雙務的·多務的 接觸』을 試圖하면서 非當局 主導의 人民對 人民의 政治協商會議인 『大民族會議』, 當局·非當局 混成接觸으로서 民族統一準備委員會等を 發足시키고 當局對 當局의 接觸·協商은 弱화시키려는 政策表現을 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考察하여 보았으나 統一에 이르는 過程이나, 統一自
體에 對한 概念內容에 있어서 南北韓은 相異한 立場과 假定을 갖
고 있다. 特히 北韓이 主張하는 『合作』과 『團結』이라는 必須
的 過程은 그 概念이 『平和』『和合』等과 같이 葛藤의 排除를
前提로 하지 못한 概念으로서 統一後 적어도 두개의 社會自體가
葛藤과 鬪爭을 해야하는 非平和的 統合을 指向하는 概念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엄격히 말해서 南韓이 希求하는 兩體制間의
異質性을 漸次的으로 克服하여 同質化된 統合을 指向하는 立場에서
볼 때, 統一이 아니라 두개의 個體(南韓과 北韓)를 한데 묶어
놓고, 그 묶음속에서 鬪爭해야 한다는, 차라리 統合排除 現象을 前
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統合理論의 理論的 前提

統合理論은 一般的으로 国内的 統合과 國際社會의 統合으로 兩分하여 생각 할 수 있는데 統合現象을 基準으로 하여 볼 때 그 取扱範圍가 넓어 簡單하게 統合에 關한 理論을 展開하기 어렵다. 地域的 概念으로서의 国内・國際의 区分과 機能的 概念으로서의 政治的, 또는 經濟的, 文化的인 統合으로 一般的으로 구분하고 있다. 特히 統合을 目的으로하고 있는 統合個體의 社會構造上의 質的 側面에서 볼 때, 同質社會間의 統合인지 異質社會間의 統合인지하는 区分도 可能하다.

이 論文이 다루고 있는 分斷國의 統合問題를 놓고 볼 때, 北韓은 地域적으로 보아 韓半島의 統合을 国内的 統合現象으로 看做하고 있으며 韓半島의 統合을 나아가서 異質社會가 되게 하는 異質的 要因을 除去하면 統合은 成就하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根本적으로 異質社會間의 統合으로 보고 있지 않다. 理論上으로 보아서 南北間의 統合은 그 社會構造上 異質的인 個體로서 政治적으로 그 質이 다른 二個의 政治體制間의 統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論文의 立場이라고 밝히고 싶다.

統合 現象의 政治理論에 對한 學問的 發展은 最近들어서 많은 學者間에 活潑히 論議되고 있다. 特히 統合理論은 國際關係研究分野에서 가장 活潑한 研究焦點이 되어 왔으며 国内的 國家統合問題에 關聯하여서는 政治的 安定 (political stability) 에 關한

比較研究가 위주로 되고 있다.

統合理論가 国内政治的 安定과 關係를 갖게 되는 것은 理論的으로 다음과 같은 基本的 兪想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政治的 統合理論의 增加는 政治的 不安定性을 減退시킬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兩概念은 理論的으로 對稱的 關係에 있다.

国内의 政治的 統合理論은 社会体系 (social systems)의 모든 構成員을 한데 묶어 結束한 程度를 말하며, 一般的으로 價值体系 (value system), 制度 (institutions) 및 「코뮤니케이션」 (communication)과 같이 社会的 接觸, 協同과 意見一致의 頻度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反해서 政治的 不安定이란 社会体系内的 葛藤이 適切하게 統制되지 아니하고 社会体系的 急速하고 過激한 構造的 變化를 招來하게 되는 境遇의 狀態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政治的 不安定은 政治体系内的 政治行爲者間에 暴力的 對峙를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境遇에는 制度的 秩序에 依하여 統制되는 規範的이고 行態的인 「패턴」에 배치되는 行動을 말하기도 한다.

統合理論에서 말하고 있는 政治的 不安定을 說明하려는 試圖에서, 한 國家의 政治的 統合理論을 政治的 安定도와 關聯하여 分析하는 경우도 있으나, 一般体系理論을 빌려서 統合理論을 說明하려고 한다. 一般体系理論 (general systems theory)의 用語를 빌려서 統合理論을 定義한다면 "統合理論이란 体系内的 單位가 相互依存的이고 이

單位들이 別個로서는 결핍하고 있는 体系特性(system properties)을 共同으로 産出하는 体系單位(system units) 사이의 關係"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定義는 体系(system) 또는 統合(integration)이란 用語를 같은 概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社会体系 또는 一般体系에 関한 理論的 前提条件들을 理解하여야 統合理論의 보다 分명한 理解가 可能하리라고 본다.

一般的으로 統合이란 現象을 概念化하는데 많이 쓰이는 理論的 背景을 보면 많은 學者들이 統合現象을 社会体系理論(social system theory)을 基礎로 하고 있다. 統合(integration)이란 用語가 内包하고 있는 異質的 社会의 統合에도 不拘하고 統合現象의 機能的 意味로 보면 다음과 같은 共通性を 보여주고 있다.

即 社会体系를 說明할 때 우선 体系上的 位階概念을 前提로 하고 있듯이 統合現象의 概念化도 이 같은 体系上的 位階를 前提로 한다.

社会体系는 여러가지 下位体系(subsystem)로써 構成되며 各体系는 하나의 獨立된 個別的 單位(unit)로서 成立할 수 있다. 이 個別的 單位는 相互依存的 關係(interdependent relationship)를 維持하고 있으며 또한 相互浸透的 關係(interpenetrative relationship)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統合現象은 이 같은 個別單位인 部分으로써 全体를 形成하는 過程을 말하는 것이다.

社会体系内에서의 個別的 單位가 一慣性있는 体系(coherent system)를 形成하는 過程을 가리켜 『統合』이라고 一般的으로

定義한다. 따라서 統合이란 概念自体가 個別的 構成單位들이 相互 依存的이고 相互浸透的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各個別 單位는 全体的인 体系特性 (system properties) 을 共通적으로 保有하고 있다는 三個 大前提 밑에서 成立된 것이다. 이 두 理論的 假定은 지금까지도 社会現象을 說明하는데 兩分된 두個의 偏見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社会科学徒로서 社会現象을 說明하는데 하나는 物理學的 体系理論을 基礎로 하는 境遇에 社会体系는 閉鎖된 体系 (closed system) 로서 概念上 全体系는 個別的 單位体系의 總和以上の 다른 体系特性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同質的 構成單位들 『모아 놓으면』 自動적으로 全体的 体系特性이 드러난다는 理論的 假定을 내세우게 된다.

한편 社会科学徒로서 社会現象을 說明하는데 生物學的 有機體 (organs) 理論을 基礎로 하는 境遇 社会全体는 開放된 体系 (open system) 로서 概念上 全体系 (total systems) 에는 個別的 單位体系의 總和外에도 그 下位單位体系를 서로 끌어모으고 있는 힘이 있어야 하며 体系特性外的 要因이 作用하여야 한다. 따라서 同質的 構成單位들 單純하게 「모아 놓아도」 自動적으로 全体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全体系를 構成하게 되는 体系特性外的 要因이 体系의 一慣性을 維持할 수 있도록 作用한다는 理論的 假定을 내세우게 된다.

이 같이 두個의 다른 立場에서 社会体系를 說明하려는 理論때문

에 統合理論은 다른 理論的 前提가 있다는 것을 밝힐 必要가 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첨부하여, 社会体系는 均衡을 항상 維持하고 있다는 前提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均衡의 維持自体에 對하여서도 지금까지 說明한 二個의 다른 立場에서는 統合理論을 展開할 때, 서로 다른 理論的 假定을 내세우고 있다. 均衡이란 概念規定 때문에 問題가 되긴하지만, 어떤 体系特性이 그 体系의 內的 安定을 維持하고 있는 狀態를 均衡狀態라고 定義하면서 物理學的 体系(physical systems)가 內的 安定을 維持하고 있는 境遇의 均衡(equilibrium)과 生物學的 体系(biological systems)가 內的 安定을 維持하는 境遇의 均衡(homeostasis)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社会体系가 統合을 이루어서 內的 安定으로 推進해가는 過程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도 相當한 理論的 相異點이 드러나고 있다.

概觀하여 社会科学徒에게 이 같은 偏見이 統合 統合理論을 整理하기 以前부터 內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統合理論에 對한 두가지 主流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統合理論을 具體적으로 檢討하기 前에 또 한가지 偏見을 紹介하고자 한다. 社会体系理論이 主張하는 体系上的 位階(systems order) 觀念은 統合現象을 觀察, 分析하고 說明하려는 單位가 社会体系上 어떤 位階水準(level)에 있는가에 따라서 統合現象의 分析이 다르다는 것이다. 一般적으로 社会科学徒는 이 같은 問題를 가르켜 社会現象의 分析水準(level of analysis) 問題라고

한다.

例컨대 統合現象을 分析·說明하는데 社会体系上的 位階를 国家的次元에서의 国内社会의 統合과 超国家的次元에서의 国家和 国家間인 國際社会의 統合으로 区分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体系上的位階는 勿論 分析의 対象이 되고 있는 单位 (unit of analysis)가 지니고 있는 体系特性이 異質的인 境遇를 考慮하게 되면 国家統合에 異質体系特性間的 統合 現象이 있을 것이고, 國際社会에서의 統合 또한 異質体系特性間的 統合現象으로 볼 수 있다.

現在까지는 特別히 異質体制間的 統合에 關한 理論이 体系的으로 定立된 바는 없다. 特히 異質体制間的 社会發展過程에서 하나의 同質的, 社会構造와 價値에 接近해간다는 convergency 理論 以外에는 어떻게 異質体制가 統合으로 變化하여 가는가를 說明한 具體的 理論은 없는 것 같다.

統合理論을 發展시키고 開發하는 理論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理論定立 過程에서의 偏見이 있음을 끝으로 指摘한다. 統合對象을 主로 国家的 政治的 統合과 經濟的 統合으로 定하고 이어서 經驗的으로 얻어진 理論을 超国家的 地域統合에 適用하려는 學者가 있는가 하면 이에 反하여 国家間的 經濟的 統合現象이 한 나라의 政治的 統合을 誘導한다는 前提 밑에서 運用하는 學者도 있다.

統合理論의 定立이 国家单位나 国家間的 地域单位로 부터 導出되었을지라도 現實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分断国家的 政治的 再統

합을 어떻게 誘導할 것이며 現在 分斷에서 統合으로 變해버린 여러 國家의 現實을 어떻게 說明할 것이냐가 우리의 課題이며 이 研究에 있어서도 政策上의 問題로서 그 重要性을 指摘하려고 한다.

V. 政治的 統合의 理論的 說明

統合理論의 前提的 背景과 學的 偏見에도 不拘하고 政治統合에 關한 分析은 다음과 같은 4個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다. 即, 橫的 統合, 縱的 統合, 그리고 內的인 것으로 價値의 統合과 機能上의 中央集權化의 4個 側面으로 分析·說明할 수 있다.

政治的 統合을 하나의 結果的 現象으로 볼 때에는 「統合」 그 自体를 말할 수 있어 分斷國으로서의 統一을 意味하게 된다. 그러나 統合을 하나의 社會變遷 過程으로 볼 경우에는 「統合」 그 自体는 繼續하여 發展해 가는 現象으로서, 分斷國의 再統一에 이를 때까지의 全過程을 意味하게 된다. 따라서 二個의 異質的 個體가 同質化를 向해 社會變化를 이루고 있는 過程 (process) 이건, 分斷國의 再統一을 成就한 마지막 結果 (end-product) 이건 間에 이 論文은 過程과 結果를 綜合적으로 觀察하는 見解에서 政治的 統合을 說明하려고 한다.

1. 橫的 統合 (Horizontal integration)

同一한 社會階層에 屬하는 政治社會의 構成員이 서로 類似한 役割을 中心으로 相互間에 円滑한 意思疎通과 交渉이 增進되고 있는 狀態를 橫的 統合이라고 한다. 意思疎通 (communication) 과 政治統合 (political integration) 間의 關係는 二個體間의 相互 交渉 (interactions) 限界와 相互協力 (co-operations) 關係가

比例하는 關係에 있다는 假定을 基礎로 하고 成立된다. 勿論 이와 反對되는 假說도 成立될 수 있다. 即 相互交渉 또는 接觸의 增加가 葛藤과 敵對關係의 增加를 意味하기도 하며 特別히 相互接觸하는 當事者間에 共通된 價值體系 (value system) 를 갖고 있지 않으면 葛藤關係가 더욱 심하다는 假說도 成立된다고 본다.

그러나 Karl Deutsch 教授는 「코뮤니케이션」理論에 따라 政治統合研究가 共通的으로 相互接觸하거나 去來되는 內容을 基準으로 하여 統合現象을 測定할 수 있다고 한다. 即, 旅行者의 往來量, 「메세지」의 흐름, 貿易量等에 關한 指標를 統合現象과 그 過程을 測定하는데 規則적으로 使用하고 있다. 國家間的 關係를 떠나서 國家內的 現象으로서 政治統合을 測定하려고 할 때 以上과 같은 測定基準은 資料獲得上 難題가 많다. 따라서 國家間的 去來內容을 測定하는 代身에 一國內의 「코뮤니케이션」施設의 發展과 그 發展可能性을 基準으로 하여 政治統合上的 橫的 統合을 測定하기도 한다. 이같이 政治的 統合을 推進하고 助長하는 手段을 data 로 使用함으로써 橫的 統合의 程度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2. 縱的 統合 (vertical integration)

相異한 階層間的 政治體系構成員이 얼마만큼이나 서로 關係를 맺고 있는가의 程度를 把握하여 縱的 統合을 說明하고 있다. 社會階層의 上下關係에 있어서 共通된 價值體系의 維持를 가르켜 縱的 統合關係가 있는 것으로 判斷한다.

政治統合의 文獻에 따르면 政治統合의 縱的 側面은 大衆과 指導者間的 「갭」(gap)이라고 한다. 政治指導者가 그들의 決定事項나 要請 事項을 即刻으로 大衆에게 伝하지 못하거나 大衆으로부터의 要求 또는 feedback에 對한 適切한 反應을 보이지 못할 때, 政治指導者의 權威와 政治體系의 統合性은 약해지기 쉽다고 본다. 大衆과 指導者間的 不充分한 「코뮤니케이션」 原因은 주로 價値觀 때문이고 이 兩階層間的 同一視(identification)에 關한 不一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政治統合은 指導者階層에 널리 스며있는 主要價値觀이 大衆에게로 서서히 傳해져서 政策決定制度의 周邊에 있는 大衆에게 새로운 價値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Edward Shils 教授는 主張하고 있다. 이 같은 價値體系의 移轉現象을 測定하기 爲하여 大衆안에 있는 階層이 어느 程度나 「엘리트」의 構成員으로 登用되어 있는지, 또는 大衆階層과 「엘리트」階層間的 移動(mobility), 即 「엘리트」地位의 特性等에 接近할 수 있는가를 判斷하는 것이다.

3. 價値統合(value integration)

여기에서 말하는 價値統合이란 社會內的 價値適合(value congruence)을 意味한다. 社會가 一般的으로 同一한 價値體系를 갖고 있는 集團을 中心으로 해서 價値觀이 어느 程度 合致되어 있는가에 따라 個個人的 相互接觸이 생기고, 이 構成員을 中心으로 하나의 階層을 構成하게 한다는 것이다. 共通된 價値觀의 範疇를

분명하게 規定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点에서 価値体系의 共通性を 社会内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政治的 共同社会와 그 構成員에 对한 共通된 価値觀이 重要하며, 둘째로 權威構造와 權力行使의 正當性에 関한 共通된 価値觀이 가장 重要하고 基本的인 點이라는 點이다.

한 民族国家 (nation-state)에서의 価値統合은 그 国家内에서 社会文化的 複合性 (socio-cultural pluralism)의 特定限界에 依하여 妨害받는 境遇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複合社会性은 国家内的 言語構成과 宗教的 分布를 基礎로하여 把握될 수 있다.

4. 中央集權化 (centralization)

政治統合에 있어서 中央集權化란 한 政治体系内的 個人이 中央機構의 決定에 服從하고 中央機構는 그 決定을 執行하고 그 決定에 따르도록 強制力을 動員할 能力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政治体系의 統合은 첫째로 中央集權的 政治制度의 發展이 漸增的으로 社会内的 価値分配를 正當化하게 되는 程度와 둘째로, 中央集權制度의 決定에 따를 것을 強要할 수 있는 中央政治制度의 強制的 能力伸張으로 생각 할 수 있다.

政治의 制度化와 權力的 伸張이 모두 政治的 統合을 規定짓는 分岐點을 이룬다. 政治体系内的 構成員가운데 最少限의 統合은 不當한 힘에 依하여 推進됨을 알고 있지만 長期的으로 보아 이같은 權力的 作用이 政治体系를 維持할 만큼 統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政治權力的 中央集權化를 党과 議회의 同質性 如否나 政府의

支出 및 租稅를 통한 經濟的 活動의 增加如否를 考慮하여 測定할 수 있다. 政府가 갖고 있는 強制力의 潛在을 軍事 및 安保體制의 成長과 政府가 國民과 組織에 미치는 強制力의 行使를 통하여 測定할 수 있다.

以上の 政治統合의 4個側面을 綜合的으로 考察할 때, 一般的으로 統合에 必須的이라고 보이는 變數의 調和類型이 多樣하기 때문에 어떤 特定한 「패턴」을 窺見하기는 어렵지만 統合을 成功的으로 이끌 수 있는 統合움직임의 政治的 調和類型은 三段階로 나뉘어 그 連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첫째 段階는 知識層에 依한 「엘리트」의 「리더쉽」問題이다. 이 段階는 앞서 指摘된 바와 같이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價值觀이 다른 階層의 小數集團들과 結合함으로써 胎動되며, 둘째로 이 段階는 利益集團의 움직임과 아울러 相互間的 報償的 政治妥協이 이루어지는 政治家들의 活動段階로서 橫的 統合을 말하고 끝으로 政治的 統一이나 統合을 이끄는 大衆運動과 大規模 「엘리트」 政治의 움직임으로써 縱的 統合을 말한다 할 수 있다.

實際로 統合運動이 이와같은 段階를 거쳐 일어난다 할지라도 統合움직임의 過程에는 統合에로의 前進과 後退의 樣相이 뒤섞여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統合에 對한 國民들의 呼應도 相當한 起伏을 그릴것으로 豫想된다.

分斷國家의 政治的 再統合을 以上の 理論的 說明을 통하여 再考하여 볼 때 우리의 現實을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첫째로 韓國의 統一方案은 橫的 統合을 통한 統一된 中央政府의 構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둘째로 中央政府의 構成以前에 相互接觸을 통한 漸次的인 價值統合을 追求하는 類型을 揀하였고, 셋째로 北韓側의 統合方案은 大衆이 本質적으로 같은 民族이므로 大衆에 依한 縱的 統合은 南韓에서만 成就되지 못하였다고 前提하고, 넷째, 北韓側은 따라서 縱的 統合을 爲하여는 먼저 中央集權的인 政府를 構成하고 價值統合에로 推進하는 類型을 揀하고 있다.

이같이 南北韓의 再統合過程을 分析하여 볼 때 根本적으로 다른 方向에서 政治統合을 摸索하고 있기 때문에 所謂 말하는 「幅넓은 對話와 雙務的, 多務的 接觸과 協商戰略」은 그 內面에 있어서 우리 韓國이 接近해가는 統一方案과 正反對로 부터 接近하려는 態度라고 判斷된다.

北韓이 主張하는 「合作」은 大衆을 基盤으로 하는 다른 階層間의 縱的 統合을 意味하고, 「團結」은 中央集權化를 통한 支配를 意味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南韓에서 提示한 漸次的인 接近方法인 價值統合을 처음 부터 排除하려는 態度라고 判斷된다.

異質化된 南北의 두 政治体制가 먼저 價值統合을 爲한 相互接觸과 相互協力을 必要로 하는 橫的 統合의 理論的 前提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縱的 統合의 先行條件은 결코 容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橫的 統合을 爲한 理論 가운데 二個의 다른 個體가 統
합에로 가는 길을 보다 合理的으로 說明하려는 것이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이라고 본다. 機能主義理論을 紹介하면서 다시 한번 分斷
國의 統一接近方案을 說明하려고 한다.

Ⅵ. 機能主義統合理論의 概觀

機能主義理論이 提唱하고 있는 統合理論의 根本的 立場은 社会 体系의 個別的 單位が 同質的인 경우 各單位體制가 統合으로 推進해 가는 過程에서 經濟分野가 가장 쉬우며, 統合이 經濟分野에서 이루어지면 自動적으로 政治統合으로 擴散(spill-over) 된다는 理論的 假定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統合으로 옮겨가는 体系가 開放社会로서 그 均衡(homeostasis)을 維持하기 爲하여 一個單位的 統合이 自動적으로 인접 單位体系의 統合을 誘導하고 있다는 것이다.

機能主義에 依한 統合理論은 David Mitrany 著 「A Working Peace System」이 1940年代 初版된 以來 別로 學界의 關心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1950年代 西歐의 여러가지 發展像을 整理하여 地域統合에 關한 政治過程을 理論化하고 分析하기 始作한 Ernst Haas 教授의 「The Uniting of Europe」라는 著書가 出版되자 統合理論에 對한 새로운 認識을 周知하게 되었다. 1960年代 中盤에 Hans Morgenthau 教授가 絶版되었던 Mitrany 著書에 讚辭를 올리는 前文을 실고 再版함으로써 機能主義理論의 再評價와 Haas 教授의 分析的 新機能主義에로의 發展이 나타내게 되었다.

機能主義에 對한 Mitrany의 理論은 世界平和를 成就하기 위한 諸觀點에서 보나 政治的 統合을 이루는 諸問題點에서 보나 學者들의 關心을 끌게 되었다. 機能主義(functionalism)에 對한

Mitrany의 理論에 基礎를 두고 2個의 重要한 研究結果가 政治 統合分野에서 이루어 졌었다. 그 뒤에 많은 學者들이 Mitrany의 原著를 求할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Haas 教授와 Swell 教授의 著書에 紹介된 Mitrany의 機能主義理論에 基礎하여 研究한 일까지도 있었다.

Mitrany는 交通, 衛生 또는 郵便等과 같은 機能的 活動이 國際 社會에 있어서 國家間에 절실하게 必要하게 되면 世界平和가 發展하게 될 것이며 獨立된 國際機構들이 이 같은 機能을 擔當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機能的 國際機構의 構成員은 반드시 모든 國家는 包括적으로 가지고 있을 必要는 없다고 보고 있었다. 모든 國家는 이 같은 機能的 國際機構에 加入 또는 脫退를 隨意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原則으로서 機能的 國際機構의 活動範圍은 그 機構가 寄與하고자 하는 分野에서 가장 廣範한 機能發揮를 維持하도록 해야 한다.

例를 들면 國際機構의 機能이 凡世界的이고 地域적으로 分割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機能上的 活動範圍은 適當 凡世界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Mitrany는 다음의 두가지 前提 밑에서 機能的 地域機構의 構想에 對한 原則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로 機能的 地域機構는 적절한 機能分割에도 不拘하고 不得已 機能上的 重復때문에 생기는 機構外的 一般機能이 不可避하게 된다고 한다.

둘째로 이 같은 地域機構가 世界를 地域的 權力構造로 分割하는

結果를 招來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itrany 는 機能的 統合理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從前的 政治理論으로서의 聯邦主義理論, 地域統合理論等 權力中心理論과 機能主義理論을 區別하고 있다. Mitrany 理論을 傳統的인 統合理論과 分離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地域統合理論에서만 分明하다. 그러나 이나마도 多少 說明이 必要하다고 본다.

機能主義理論인 Mitrany 의 論理를 Lasswell 教授의 理論과 같은 現實主義(realism)에 立脚한 權力中心理論과 같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의 聯邦主義理論도 Carl J. Friedrich 와 같은 學者의 聯邦主義理論과 比較하여 볼 때 相當한 差異點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itrany 自身이 主張하듯 機能主義理論은 現實主義나 聯邦理論과 다른 점이 많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基本的으로 이 學者들이 갖고 있는 特性을 억지로 否認하는 感이 든다.

全般的으로 Mitrany 의 理論은 國際平和를 維持하려는 理想主義理論이라는 評도 있는데 特히 暴力보다도 對內的 合意(consent)를 믿고 있으며 聯邦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正當化하거나 必要로 하는 地域的 利害關係의 正當性を 否認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機能的 國際機構가 權力, 主權 및 權威를 갖게 된다고 主張함으로써 現實主義와 聯邦主義學者間에 根本적으로 一致하는 點이 있다고 본다. 한층 더, 이 機能的 組織機構가 政府의 主要 課題를 委託받게 된다는 前提를 내세움으로써 Mitrany 와 다른

學者間에 共通性이 發見되기도 한다. 特히 中央集權化에 따른 機能主義的 國際機構에 權力과 主權이 移轉될 수 있다고 본다.

聯邦主義者들은 國家의 主權要素를 單一한 聯邦體制에 拋棄移轉할 것을 傳統的으로 提示하고 있으며, 이 聯邦體制는 一般的으로 그 活動範圍가 地域的 (regional)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Mitran이 는 主權의 要素를 複數의 國際的 機能機構에 拋棄移轉하며, 國際機構의 活動範圍는 凡世界的인 것이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地域的 自治權을 留保하고 있는 것을 前提로 한 聯邦主義理論에 反하여 結果적으로 國家主權의 모든 要素는 國際機構組織에 移轉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 Mitran의 立場이면서 政治統合에 있어서 中央集權化와 같은 것이라고 判斷된다. 機能主義理論에 의 한 政治的 統合은 相對적으로 重要한 것 (relative importance) 이 무엇이며 時間上의 優先順位 (priority in time) 를 어떻게 定할 것인가에 따라 主權要素를 拋棄移轉해야 한다고 判斷된다.

따라서 Mitran의 機能主義理論은 聯邦體制-中央集權化 現象-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戰略的 決定問題를 重要視한데 比하여 一括적으로 主權을 拋棄移轉한다는 傳統的인 聯邦主義理論과 다르다는 것이다. 機能主義理論은 처음부터 地域的이건 凡世界的이건 間에 政治的 統合에 있어서 中央集權化 現象을 戰略的 次元에서 經濟分野가 政治分野보다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經濟分野의 統合은 結局에 가서 政治分野의 統合을 誘導하게 된다는 것이다.

Mitrany 의 機能主義의 接近은 基本的으로 政治的 統合을 目標로 하고 있는 理論이 아니며 차라리 世界平和를 指向하고 있는 理論일 뿐이다. 政治統合은 結局 世界平和를 追求하기 위한 機能的 體制(functional system)의 副産物로서 域内の 政治統合과 같은 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 뿐이다. 即 機能的 制度가 共同社會意識을 造成케 하고 이 共同社會意識은 世界平和를 이루게 하며 機能主義理論은 窮極的으로 世界政府의 發展에 寄與한다고 概觀할 수 있다.

그러나 政治的 統合에 關하여 理論的으로 展開한 것을 新機能主義(neo-functionalism)라고 하며 Ernst B. Haas 教授로부터 始作된다. Haas 教授는 單적으로 Mitrany 教授는 人間社會에 있어서 權力的 要素를 充分히 考慮치 못했다고 指摘하면서

첫째, 機能主義理論은 福祉(welfare)로부터 權力(power)이라는 概念을 分離시켰고,

둘째 機能主義는 政府의 여러 機能을 分離하여 重要치 않은 것으로 處理하는等 特히 軍事-防衛의 課題(權力的 現狀)를 經濟富強(福祉的 現狀)의 課題와 分離시켰으며,

셋째, 機能主義理論은 政治的인 것과 技術的인 것 또는 政治家의 課業과 專門家の 課業을 鮮명하게 区分하였으며

넷째로 機能主義理論은 以上과 같은 区分이 政治行爲者로 向하는 忠誠心사이 에 惹起되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Haas 教授의 네 가지 批判은 西歐社會가 1950-1960年代를 거쳐 새로운 地域共同體로 發展하고 하나의 統一된 西歐社會의 現實이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 할 때에 적절한 論點이 되었었다. 새로운 經驗을 根拠로 한 新機能主義 統合理論은 特히 地域的 統合理論에서 엿볼 수 있다.

新機能主義가 基本的으로 主張하는 것을 보면 地域統合을 成就하는데는 統合에 對한 劃期的인 政治的 選擇보다는 漸進的인 經濟的 決定(economic decisions)이 훨씬 有利하다는 것이며 經濟的 利害關係가 많아서 생겨지는 紛爭은 實際로 政策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自生的으로 個個 構成員의 意思와 關係없이 새롭게 中心的이고 超國家的인 中央集權化가 생긴다는 것이다.

新機能主義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前提 밑에서 理論을 構成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로는 經濟上의 自己利益이 政治的 公約보다 重要할 것이라는 假定과 둘째로 意圖하지 않았던 結果와 漸次的인 政策決定은 統合을 目的으로 한 全體的 計劃에 따라야 보다 效果的인 것이라는 假定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Haas 教授의 「The Uniting of Europe」을 비롯하여 新機能主義 理論은 새로운 次元에서 展開되었었다. 西歐羅巴의 經驗을 分析하여 歐洲統合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歐羅巴의 經濟圈內에서 볼 때, 制限되긴 했어도 特定產業部分에서 貿易量의 增加와 共同問題의 解決을 追求하였기 때문에 超國家的 官僚制度가 發展케 되어 여러가지 地域問題를 다루어 왔고 繼續的

으로 擴大되어가는 經濟活動의 數的 增加가 超國家的, 管轄權의 成長에 따라 推進되었었다. 새로이 登場하는 權力中心部에 影響력을 미치기 위하여 새로운 地域水準의 利益구름이 形成되기도 했었다. 長期的으로 보면 이같이 擴大해 가는 管轄權의 中心部와 經濟的 利權에도 不拘하고 생겨지는 政治的 忠誠心を 漸次的으로 超國家的, 主体에 中央集權化하는 것을 말한다.

地域統合에 關한 Haas 教授의 理論을 다음과 같이 紹介한다. Haas 教授는 統合過程에서 主要行爲者인 利益集團이 國境을 超越하여 成長한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고 있다. 即 集團의 壓力은 國家로부터 共同體의 水準으로 移轉되고 政策에 影響을 미칠 수 있도록 國境을 넘어서 組織된 集團으로서 統合을 刺戟하는 效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統合의 衝動」(integrative impulse)라고 한다. 이같은 複合社會論理는 發展된 産業民主社會에서 主要구름(專門家와 政治家)의 決定的인 期待와 行態가 새로운 狀態의 中央集權的 「심볼」(symbol)이나 制度에 注意를 기울리게 될 때 커다란 政治的 共同體로 發展되어 간다는 것이다. 長期的으로 보아 經濟的 利害關係에 따라서 政治的 忠誠心은 漸次的으로 새로운 超國家的 中央機構에로 集中하게 된다는 것이다.

Haas 教授는 앞으로 多少의 理論修正을 하여야겠지만 「機能主義의 擴散論理」(the expansive logic of functionalism)는 아직까지 옳다고 主張한다. 이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統合의

決定이 高位層間의 政治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根本的으로 相異한 「비전」(vision)을 갖는 大衆을 說得시킬만한 政治家가 없는 경우라도, 機能主義理論은 더욱 더 說得力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Haas 教授는 따라서 '우리가 한 地域이라도 統合하기를 願한다면 漸進主義와 間接接近 및 機能主義에 呼訴하는 길 밖에 다른 代案이 없다.' 라고 力說한다.⁵⁾

Haas 教授에 依한 新機能主義 統合理論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첫째로, 權力은 福祉問題와 分離되지 않으며 機能的으로 보아 國際的 「프로그램」이 組織上 複合的 業務와 区分된다 하더라도 후생문제와 함께 모두 統合을 極大化하도록 定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行為者가 그 利害關係를 새로운 接近方法으로 成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接近方法이 보다 広範圍한 組織체에 對한 公約(commitment)을 內容으로 하고 있을 때, 統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利益追求라는 觀點에서 볼 때, 行為者들이 特定한 事情에서, 習得한 統合的 教訓을 다른 分野에서도 一般化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셋째로 國際的 統合은 課業의 政治的 效果를 잘 알고 있는

5) Haas,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 (June, 1967), p.321.

專門家나 同質的이건 間에 社会的 統合을 代表할 수 있는 專門家에 依하여 提案된 福祉政策을 遂行하는 경우보다 迅速하게 成就된다.

넷째로, 個人的 政治的 忠誠心은 政府機關이 劃期的인 機能遂行에 수반되는 滿足度의 結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機能을 決定的으로 많이 遂行하는 國際機構에 忠誠心の 漸次的 移轉이 可能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統合過程에서 볼 때, 傳統的이고 「카리스마」的인 指導者와 같이 世襲的인 地位를 갖는 國家에서는 政治的 統合의 可能性이 稀薄하다는 것이다.

Mitrany 의 傳統的 機能主義理論과 Haas 의 新機能主義理論은 主로 政治統合에 이르는 方法論上의 差異點에 따라 区分된다고 볼 수 있다. 新機能主義者들은 政治的 關聯性이 없는 사소한 領域의 技術的 活動이나 協同에 의의한 統合方式을 択하지 않는다. 新機能主義者들은 主로 政治性이 많고 또 政治적으로 複合的 領域의 課業을 択하여 이를 統合의 技術陣이 計劃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新機能主義者들의 窮極的 目標가 聯邦的 中央集權化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目標를 當장 聯邦制度와 連結시키도록 하지는 않는다.

傳統的 機能主義는 이에 反하여 經濟와 技術 및 其他 分野의 去來에서 얻은 惠沢을 他分野로 移轉시킴으로써 언제나 經濟와 技術上의 必要와 그 可能性에 따라 方向을 決定하고 있으나 新機能主義는 툼니바퀴처럼 部分的 統合의 擴散理論을 通해서 連續的

인 統合에 이를 수 있는 制度를 意圖적으로 構想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間의 政治的 結束은 國家間의 經濟的 統合에 의하여 自動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理論的 假定을 아직도 固守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政治統合은 經濟統合의 連續체로 取扱하고 있으며 經濟分野의 統合效果가 넘쳐흘러 퍼진다고 하는 浸透擴散(spillover)의 概念과 政治行爲者의 漸進的 政治化的 概念을 中心으로 하여 機能主義理論이 成立되어 있다.

政治的 統合現象의 比較研究的 次元에서 증진의 基本的 統合概念 「모델」을 地域統合의 一般論的 「모델」로 發展시켜 보려는 努力을 60年代末부터 試圖하였다. Ernst Haas 教授와 Philippe Schmitter 教授는 여러 地域의 文化的 特性을 排除할 統合過程의 一般論을 研究하였다.⁶⁾

Haas-Schmitter 「모델」은 歐羅巴의 環境에서나 後進國地域에서의 地域統合過程을 說明하려 들고 있다. 이 「모델」은 3가지 類型의 變數를 定하고 經濟統合體의 變遷過程에 따른 重要한 變數를 政治統合體를 形成할 수 있는 變數로 誘導하려 하고 있다. 即 4個의 背景條件과 2個의 變數로서 經濟統合 當時의 條件,

6) 'Economics and Differential Patterns of Political Integration: Projections about Unity in Latin America', in International Political Community: An Anthology (New York: Doubleday Co., Inc., 1966), pp.259-299.

그리고 統合過程 自体에 関한 3個의 變數를 들고 있다. 그리고는 各變數를 上·中·下로 区分하여 어떤 地域的 統合現象에도 適用하려 들고 있다.

이 「모델」은 各 變數가 높으면 높을수록 經濟統合이 自動적으로 政治統合을 誘導할 수 있으리라는 假說을 設定하고 있다. 따라서 浸透擴散(spill-over)이 變數의 Score가 높으면 높을수록 自動적으로 일어난다고 假定하고 있기 때문에 寄與하고 있는 統合上的 行爲者들이 集合的인 經濟利益을 保護할 수 있도록 自生的으로 機能的 適合過程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論理이다.⁷⁾ 勿論 이 假說과 反對되는 結論에 도달할 수도 있으나, 다시 말해서, 變數의 Score가 낮으면 낮을수록 經濟統合이 政治統合을 自動적으로 誘導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各變數가 이 같이 統合作用에 集合적으로 作用할 것이라는 假定뿐만 아니라 그 地域의 集合自体와도 相對的인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統合에 수반되는 体系의 變遷過程은 時間上으로 各 變數마다 다른 程度의 變化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도 내세우고 있긴 하다. 이러한 조작성의 가정(operational assumptions)은 事實上 新機能主義 統合理論이 내세운 여러 假說을 計量化하려는 努力에서 發想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Haas-Schmitler 「모델」의 諸變數는 다음과 같다.

7) 前掲書, p. 274.

一 背景条件 (Background Conditions)

1. 个体 单位의 크기 (Size of units)
2. 个体間의 去來程度 (Rate of transaction)
3. 个体의 社会的 複合性 (Pluralism)
4. 指導者의 相補性 (Elite complementarity)

一 經濟統合時의 条件 (Conditions at the time of economic union)

5. 政府的 次元에서의 目的 (Governmental purposes)
6. 統合體의 權限 (Powers of Union)

一 過程上의 条件 (Process conditions)

7. 政策決定 스타일 (Decision-Making style)
8. 个体間의 去來程度 (Rate of transaction)
9. 여러 政府의 適應性 (Adaptability of governments)

以上과 같은 變數關係를 가지고 經濟統合體로부터 政治的 統合體로 發展한다는 Haas-Schmitter 「모델」은 뒤에 Mario Barrera 教授에 의하여 한 걸음 더 開發되었다.⁸⁾ 特히 Barrera 와

8) Mario Barrera and Ernst Haas, "The Operationalization of some Variables Related to Regional Integration: A Research no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3. No.1(Winter, 1969), pp.150-160.

Hass 教授들은 經濟統合體의 政治化에 이르는 成功如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地域外에 對한 從屬性 (dependence on the external world)을 감안한 2個의 變數를 9個의 變數外에 考察하고 있다. 即 背景條件 가운데 從屬에 對한 認知 (perception of dependence)와 客觀的인 外部의 壓力 (objective external pressure)을 經濟的 統合過程과 政治的 統合過程에서 考慮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두 12個의 變數를 가지고 새로운 Haas-Schmitter-Barrera 「모델」을 構想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經濟統合에서 政治統合으로 가는 自動的 擴散 效果에 關한 假說도 이 「모델」에서 成立된다는 것이다. 即 從屬에 對한 높은 認知는 後進性으로부터 脫皮하기 위하여 團合에로의 意志를 더욱 더 強調하게 될 것이라는 論理이다. 또한 外部의 壓力이 強하면 強할 수록 域內的 여러 國家들이 共通的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自動的으로 政治化가 促進된다는 假說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新機能主義 理論에서 보아온 政治統合過程은 經濟統合이 어떻게 政治統合으로 옮겨 갈 것인가에 對한 理論的 說明이었다. 勿論, 方法論上的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모델」에 따른 變數의 開發과 操作을 必要로 하였으나 變數間的 內的 相關關係라든지에 關한 構造上的 問題는 밝힐 수가 없었다. 即 統合過程上的 諸段階마다 始初와 그 다음 段階에 對한 分析이 不足한 反面에 各段階間的 연계성 (linkages)에 關하여 明白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Joseph S. Nye 教授가指摘하고 있으며 특히 變數間的 相關關係와 各段階別 關聯性(nexus)에 關하여 明示하지 못했다는 點도 指摘되고 있다.⁹⁾ 그래서 統合可能性이 諸條件에 따라 어떻게 關係되어 있는가를 보다 包括적으로 研究를 하고서는 Nye 教授는 統合過程 自体와 統合性的 條件들을 들어 다음과 같이 變數를 再調整하여 具體적으로 提示하였다. 即

가. 統合過程(process mechanisms)

1. 課業의 機能的 연계성(functional linkage of tasks)
2. 去來의 增加(rising transactions)
3. 意識的인 연계성과 聯合體構成(deliberate linkages and coalition formation)
4. 指導者의 社會化(elite socialization)
5. 地域集團의 形成(regional group formation)
6. 理念的·一體的 呼訴(ideological-identive appeal)
7. 外部行爲者의 參與(involveement of external actors)

나. 統合可能性(integrative potential)

1. 構造的 條件(structural conditions)

9) 'A Political Model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Peace in Part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1).
第3章.

가) 個體間의 兩立性이나 經濟的 平等性 (symetry or economic equality of units)

나) 指導者의 價值相補性 (elite value complementarity)

다) 複合性的 存在 - 近代的 利益集團 (existence of pluralism-modern associational groups)

라) 會員國의 適應 및 反應能力 (capacity of member states to adapt and respond)

2. 認知條件 (perceptual conditions)

가) 認知된 利得分配의 衡平性 (perceived equity of distribution of benefits)

나) 認知된 外的 說得力 (perceived external cogency)

다) 낮은 (또는 輸出可能한) 可視經費 (low or exportable visible costs)

以上の 變數 가운데에서도 變數間의 相關關係에 関한 理論的 說明은 아직까지도 充分치 못하나 統合過程, 自体能力과 統合條件의 적절한 均衡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가 問題되고 있다.

VII. 機能的 接近理論의 批判

6章에서 紹介하고 說明한 機能主義 統合理論에 對한 批判과 問題點을 考察하기로 한다. 特히 地域統合의 一般論에 對한 新機能主義的 接近에 對하여는 理論的이고 方法論的인 反論을 提起한다.

첫째로, 理論上으로도 方法論上으로도 보아 가장 重要한 批判은 地域統合에 關한 比較分析의 一般論에서 作業假定(working assumptions)에 對한 것이다. 卽 Haas-Schmitter-Barrera 「모델」에서 多様な 地域機構는 構造的 同質性(structural isomorphism)은 勿論, 類似한 「패턴」과 過程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統合過程을 測定하는데 있어서 어떤 變數를 操作하는 경우, 「모델」은 한 條件에서 問題되고 있는 變數가 다른 條件에 比하여 重要한 加減에 對한 區分을 하지 못하고 다만 測定值에 比重을 달리했을 뿐이다. 이같은 研究作業을 한 것을 보면 Barrera 와 Haas 教授가 個個 變數가 어떤 地域的 機構에도 不拘하고 同一하게 相對的인 統合可能性이 있다고 보았고 統合에 따른 體制 變遷過程은 個別的으로 變數에 對한 相對的 重要性이 變치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以上과 같은 假定에 對하여 實際的이고 理論上的 反對論을 提起할 수 있다. 實際적으로 이같은 反對論이 있는데 主로 統合을 成就하기 위하여 必要한 變數가 서로 다른 「패턴」을 先進國과 後進國의 地域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特히 歐洲共同体

와 같은 同一한 地域機構에 있어서도 分野에 따라서 顯著하게 다른 差異點을 變數間에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統合過程의 始作에 關한 戰略에 있어서 新機能主義者들은 「모르는 사이에 統合하는 方式」과 「大衆의 無知가 가진 積極的 役割」 등의 假定들에 依存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래서 專門家-政治人들이 有權者나 支持者의 눈을 피하여 統合現象의 相當한 水準까지 社會體制를 이끌고 나아가 뒤에 아무도 이같이 이루어 놓은 變化를 妨害하지 못하게 하려는 戰略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統合하는 方式」은 實際로 LAFTA 나 CACM 의 統合機構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歐洲共同体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슈만」이나 「아데나워」首相, 또는 「드·카스타리」같은 人物이 表面에서 活躍한 것은 事實이었으나 그 前에 ECSC 를 形成할 때는 多少 슬그머니 統合으로 이끌고 간 일은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例를 든다면 「論爭의 排除」를 企하여 統合을 開始한다는 新機能主義學者의 理論이 不當하다는 것이다. 統合過程 때문에 생겨지는 政治的 過熱이나 「센씨티부」한 利害關係가 생기는 경우에는 「論爭의 排除」에 따른 統合過程은 쉽사리 오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實際로 後進國地域에서는 經濟的 問題가 너무나 政治化되어 있기 때문에 統合의 始作부터 大衆에 對한 政治的 環境이 다르다는 것이다. 特히 東南亞나 東北亞에 있어서 經濟的 統合이나 地域的 經濟協力에 關한 問題가 提起되면 즉각,

地域的 勢力國家가 支配하련다는 問題로 變化하여 보다 政治的인 「잇슈」(issues)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現象은 權力있는 政治指導者가 政治的 安定을 保障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政治化되어 있는 經濟問題를 中心으로 統合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問題는 이러한 地域에 있어서 성숙치 못한 「過多 政治化」(overpoliticization) 現象 때문에 「漸次的인 政治化」(gradual politicization)로서의 統合過程을 기대했던 新機能主義의 統合에 關한 比較研究는 無意味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新機能主義理論에 따른 統合의 開始段階에 關한 說明은 多少 그 說得力을 잃고 있다고 指摘할 수 있다.

두번째의 批判을 들어 보면 Haas-Schmitter-Barrera 「모델」은 靜的 性質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靜的 特性이라 함은 「모델」은 現存하는 地域共同體內에서의 統合現象을 說明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해서 新機能主義理論은 分明히 現存하는 共同體內에서의 統合過程分析에 力點을 두고 있을 뿐, 새로운 共同體를 構成하기 위한 統合現象의 地域的 擴張이나 浸透 擴散過程을 說明하지 못한다는 點이다. 前者의 경우는 이미 增加 趨勢에 있는 統合現象이나 既成의 發展傾向을 意味하는 forward-linkage growth 라고 할 수 있고 後者の 경우는 體系變革 (system transformation)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構成員의 영입이라든가 現存하는 共同體의 活動이 顯著히 增加하거나 事業에 따른 急激한 變化등을 말한다.

分析的으로 보아 우리는 forward-linkage growth 와 system transformation 을 区分할 수 있다. 따라서 多少나마 統合過程과 統合現象을 보다 分明하게 說明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新機能主義가 主張하는 統合過程에 反하는 理論과 實証을 내세우고 있는 Lindberg 나 Scheingold 같은 學者도 있다.¹⁰⁾ 이들은 Haas 教授와는 달리, 歐洲共同市場을 낳게 한 成功的인 變革은 機能的 擴散 (functional spill-over) 이 아니고 歐洲의 石炭鋼鐵共同體의 基本構造가 達成한 基本的으로 다른 統合過程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主張한다. 여하간 新機能主義理論에 있어서 「統合의 擴散論理」라든가 「經濟的 福祉에 關한 實際的인 利害政治의 限界性」等으로 統合現象을 說明할지라도 超國家的인 中央集權化 現象은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新機能主義理論은 確實하게 分析되지는 않았으나 繼續的인 過程의 하나라는 概念에서 統合을 說明하고, 經濟統合이 超國家的 中央集權化를 誘導하는 段階的 区分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新機能主義理論도 經濟的 統合과 政治的 統合사이의 段階와 順序問題를 解決짓지 못하고 있어 單純히 統合의 水準, 또는 統合程度만을 測定할 뿐 多樣的 水準에서의 統合程度를 分析·測定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重要視되고 있는 經濟的 相互依存에

10) Europe's Would-Be Polity: Patterns of change in the European Communi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0).

關한 政治的 效果라든가 共同体意識의 行態의 相互依存性과의 關係等에 關해서는 전혀 言及이 없는 것이 Haas 教授 理論에 對한 批判이 될 것으로 본다.

Haas-Schmitter-Barrera 「모델」에 對한 또 한가지 靜的 特性을 指摘한다면 이는 後進地域에 있어서의 統合現象의 說明에 不適合하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統合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國際環境에 있어서 外的 要因(exogenous factors)을 分離·測定하려고 하지 못한 點이다. 卽 이 「모델」은 體系와 下位體系의 相互作用에 關한 問題를 「엘리트」의 相補性¹⁾이나 「從屬의 認知²⁾」 등의 基礎的 分析 以外에 變數間의 相互關係를 取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時間적으로 變하고 있는 「엘리트」의 國際社會環境에 對한 認知(perception)를 地域統合過程에서 研究하지 못했다는 點이 아쉽다. 卽 國際環境이 分明히 統合하려는 努力에 影響을 주고 있음에도 이런 點이 제대로 取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勿論 Nye 教授가 Haas-Schmitter-Barrera 「모델」에서 다루었던 變數를 보다 細分하여 外的 要因에 對한 分析을 하긴 했으나 變數相互間의 影響에 對하여는 아직도 明瞭한 說明이 없다. 이와 같이 理論的 弱點과 混亂이 생기게 되는 것은 概念上에 있어서 新機能主義者들이 經濟統合 政治統合 또는 社會統合에 關하여 分明히 別個의 社會體系 變化임에도 不拘하고 그 變化過程을 同一한 用語에 依하여 記述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보다

效果的이고 실속있는 接近方法이 있다면 統合概念을 여러 段階로 分離하여 各構成部分에 대한 具體적인 測定方案을 發展시키고 이 變數間의 相關關係는 經驗的 推定과 確定을 期하도록 하는 것이 問題解決의 길이라고 본다. 新機能主義理論이 經濟統合과 政治統合이 같은 線上의 繼續성을 갖고 있다고 한 때문에 統合의 여러가지 部分的 作用關係를 當然히 同一하게 생각하여 經濟統合의 指標가 政治統合의 指標로 使用되고 있다.

例컨대 統合의 類型을 導出하려는 것 보다는 去來量, 統合에 對한 指導者와 大衆間의 行態, 또는 超國家機構의 管轄能力等 統合程度를 測定하는 경우가 많다는 點이다.

以上の 理論的 批判에도 不拘하고 機能主義理論으로부터 무엇인가 分斷國의 再統一을 위하여 實際적인 對案을 導出하려는 努力이 70年代 以後 많이 보였다. 機能的 接近으로서의 統一을 생각할 때 機能主義統合理論이 提示하는 點은 보다 많은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로 新機能主義理論에 이르러서는 經濟統合이 成就되면서 어떻게 政治統合으로 變革될 것인가를 研究하고 있으나, 分斷國의 再統一問題와 關聯지어 볼때는 이제부터 經濟統合을 始作하자는 立場에 있기 때문에 機能的 接近에서는 아직 新機能主義「모델」을 適用하기는 어렵다.

둘째로 機能的 接近論이 提示하는 理論은 分斷國의 接近에 對한 좋은 例示가 되고 方針이 되는 것은 事實이다. 實際에 있어서

經濟統合이 可能하게 될 條件들을 點檢하고 分析하는데 좋은 基準이 된다고 본다.

셋째로, 따라서 가장 消極的으로 보아 機能主義理論에 根拠하여 南北對話나 統一에 關한 政策을 세울 때 마치 統合의 條件이 이루어진 것으로 判斷하기 좋도록 理論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相當한 注意가 必要하다고 본다. 우리의 現實로 보아서는 南北接觸이 繼續되어 그 效果가 먼저 經濟統合過程으로 擴散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接觸自体에 關한 問題가 解決되지 못하여 機能主義論 理의 積極的 利用이 어렵다는 것이다.

VIII. 統合理論에서 본 南北의 再統合

統合理論과 地域的 平和에 關한 理論的 假說을 實際的인 國際 社會에서 考察하려는 努力은 1960年代와 1970年代에 걸쳐 많은 學者들이 取하였다. 우리에게는 南北對話가 始作된 1970年代初에 明白한 理論的 考察없이 對話의 戰略的 背景으로 論議된 일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機能主義理論이 南北對話와 韓半島의 平和定着問題를 둘러싼 여러가지 點에서 土着化되지 못하고 있다.

南北韓의 政治體制는 第2次大戰 以後 強大國의 直接介入에 의하여 成立되었고, 漸次的으로 分化되어 가는 經濟·社會體制는 國家統合理論이 提示하듯이 自動的인 政治統合에 이를 수 없을 만큼 相互 異質的으로 되어 왔다. 1950年의 北傀南侵과 이를 處理한 休戰協定은 南北間의 政治權力構造를 相互 認定하지 않게 되어 協定當事國으로서의 南韓을 平和條約締結에서 排除하려는 北傀의 努力때문에 오래도록 韓半島問題의 民族的 解決이 어려웠으나 1970年代에 들어서 南北韓의 自主主體的 政策方向은 마침내 大韓民國의 主導的 影響에 따라 「南北對話」의 모색을 비롯한 「7·4 共同聲明」을 통한 相互主體의 確認에 이르렀다.

勿論 對話의 繼續이 不振한 狀態일지라도 韓半島 問題의 解決을 爲한 主導權을 掌握하려는 努力과 自主的으로 解決하려는 政治·

經濟的 「6.23 宣言」은 強大國의 干涉없이 南北間의 直接解決이 可能하였기 때문에 提唱되어 왔었다.

「6.23 宣言」을 前提로 하여 南北間의 平和的 共存과 經濟的 繁榮을 推進하려는 努力은 機能的 統合을 目標로 하는 政策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理論과 實際에 있어서 많은 政策的 考慮를 必要로 하고 있다.

첫째로 南北韓에 對한 共通的 經濟利益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機能的 統合은 이를 推進하려는 當事者間에 利益이 相互交換될 수 있고 經濟的으로 補完될 수 있는 國家間에 가장 잘 推進된다.

둘째로 지금까지 考察한 統合理論에서는 勿論, 經濟社會問題를 政治問題로부터 分離하여 獨自的으로 推進할 수 있다고 하나 異質體制間의 理念的·政治的 問題가 同質體制間의 統合과 같이 獨自的으로 取扱될 수 있을 것인 지에 對한 判斷이 重要하다.

共產圈에 있어서의 經濟統合은 主로 主權의 絶對的 折衷을 前提로 한 政治的 統合을 爲主로 하는 傾向이 있는 反面에 經濟的 統合問題는 「東西貿易」이라는 새로운 解決策을 찾아 解消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間의 直接的 經濟協力과 統合을 통한 平和定着의 摸索은 期待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다 広範圍한 經濟的 統合으로서의 地域統合方向은 摸索해 볼 必要가 있다. 例컨대 日本이 最近 提唱하고 있는 「環太平洋連帶構想」에 南北韓이 同時에 參與할 수 있게 함으로써 地域的

統合을 통한 南北間의 直接 統合方向을 摸索할 必要가 있다. 三角貿易이나 「3當局會議」와 같은 작은 規模의 平和努力 보다는 地域的으로 隣接해 있는 國家間의 多邊的 努力은 南北韓의 統合問題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判斷된다.

셋째로 強大國의 外交政策을 考慮하여야 하며 分斷國家의 直接 統合契機를 造成하지 않는 強大國의 方向에 의한 國際環境은 南北間의 統合을 통한 平和定着을 許容치 않게 된다는 것이다.

國內의 強力한 政治的 指導力은 國際環境에 多少 無理가 있어도 當專國間의 統合意志를 主張하고 推進할 수 있으나 「10.26」 事件 以後의 韓國實情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1970年代의 國際政治가 多極化體制로 들어서자 國際環境은 南北의 直接對話도 許容되었으나, 1980年代의 美·蘇間의 *Detente* 는 強大國에 從屬되는 國家間의 和解「무드」를 繼續 許容할 것으로 展望되지 않는다. 차라리 多邊的 國際機構나 地域的 協力 機構를 통한 平和維持를 追求함으로써 全世界의 戰略的 均衡을 持續케 하리라고 判斷된다.

끝으로 地域統合을 통한 平和維持問題는 이를 推進하는 人物의 指導力과 그들의 相互接觸이 가장 重要하기 때문에 南北間의 統一을 위한 指導勢力의 相互接觸을 多邊的 地域機構를 통하여 急速히

推進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統合理論에 따른 統合過程 以前에 적어도 政治指導者間의 接觸과 合意가 없이는 결코 統合이 不可能하리라고 본다. EEC의 境遇에 있어서도 統合을 推進하는 人物間의 頻繁한 接觸이 統合에 이르는 行態를 定向케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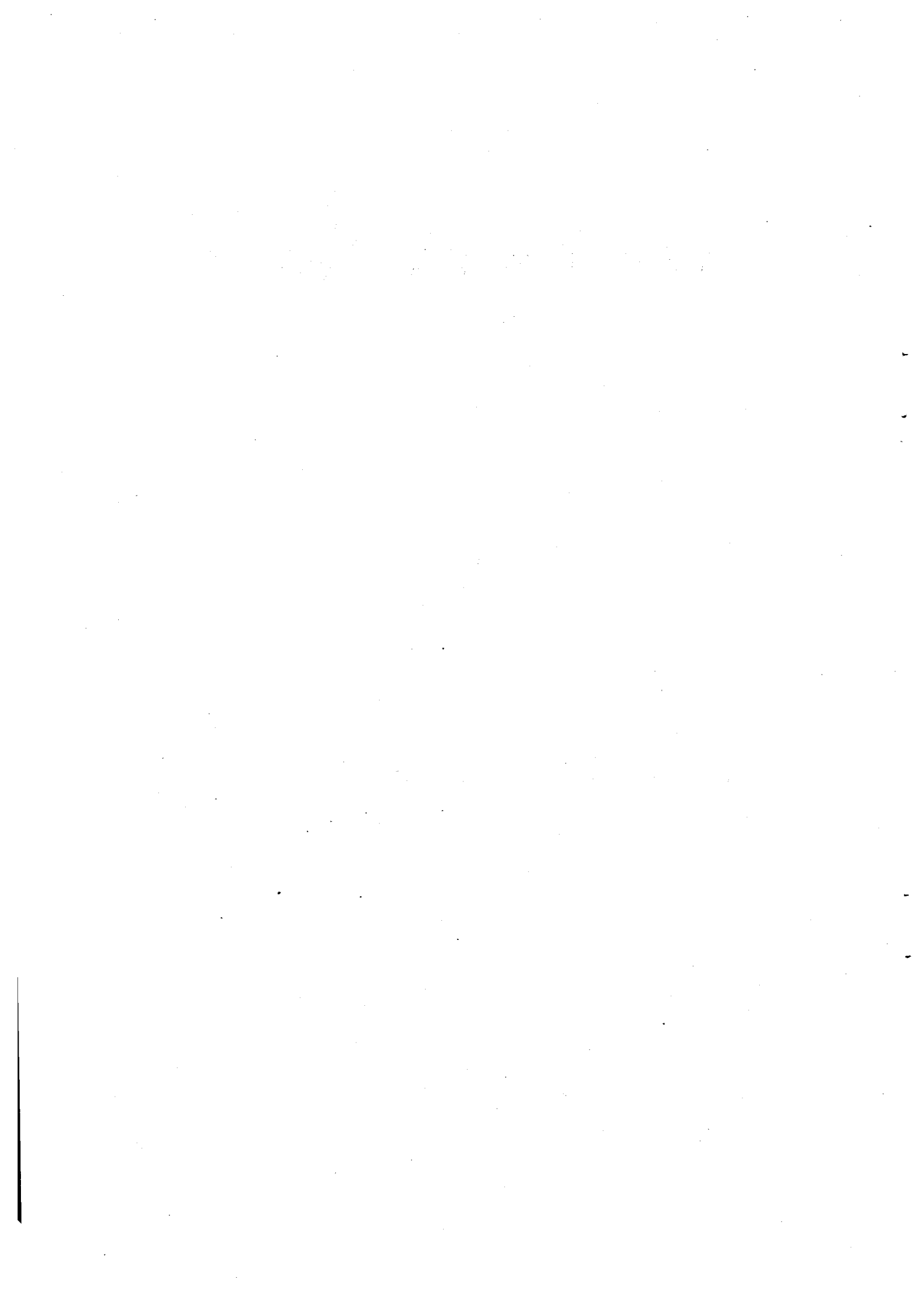
南北韓 經濟交流의 問題點

研究執筆責任： 金 世 源

(略歷) 서울大 法科大卒

벨기에브뤼셀大 國際經濟學博士

現 서울大 貿易學科教授



目 次

要 約	69
英文要約	78
I. 序	87
II. 經濟產業構造	89
III. 對外 經濟政策	102
IV. 貿易構造	108
V. 機能主義的 接近	121
VI. 制約 與 前提	132
VII. 經濟方法與 方向(模型)	140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問題의 解決은 결국 政治的 意志로 다시 歸結된다.

韓國側은 70年 朴大統領의 8.15 宣言을 契機로 漸進的, 機能的 그리고 段階的 南北韓 接近을 提案하였으며 그後 政治面에서는 勿論 經濟와 같은 非政治的 諸分野에 있어서도 協力方法을 現實을 勘案하여 具體的으로 提示해 왔다.

특히 78年 第2의 6.23 宣言과 같은 南北間 經濟去來의 推進에 關한 提案은 여러가지 意義를 갖는데 한마디로 政經分離의 代表的인 表現이라 할 수 있다.

南北韓間 經濟交流 自體의 窮極的인 目標가 政治的 統一에 있음은 부연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相反되는 兩體制의 接近을 위한 先決條件들이 하나도 解決되지 않은 狀態에서 統一이란 생각할 수 없을 때 經濟去來의 開始→非政治部門에서의 協力→協力の 強化 및 擴大→部門別 統合→政治的 對話의 發展→政治部門에서의 協力和 같은 公式를 扞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反하여 北韓은 始終一貫 「政治優位」라는 硬直的 그리고 閉鎖的 立場을 固守하여 왔다.

이와 같이 兩側의 主張이 平行線을 持統하는 限 體制의 接近을 意味하는 政治協商은 事實上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또 하등의 意義도 없다. 그러나 經濟的 接近 역시 政治的 合意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卽 經濟의 非政治化는 政治的 決定을 前提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經濟去來의 推進을 理念體制와 分離할 수 있는 政治的 制度의 保障이 必要하다.

機能主義的 接近 自體의 窮極的인 趣旨가 韓半島內 平和의 定着, 社会的 福祉의 增大, 나아가 平和的 統一에 있음은 再言의 餘지가 없다. 韓國의 基本的 政策基調가 이와 一致함은 勿論 北韓도 最少限 表面的으로 平和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을 主張하고 있으므로 原則적으로 南北韓은 合意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EC의 例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先進諸國間 適用, 發展되어 온 機能主義的 接近 模型은 南北韓이 如한 特殊한 條件으로 因하여 適合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다는 獨特한 (Sui-generis) 形態를 取하지 않을 수 없다.

南北韓間 段階別 經濟統合의 推進 模型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第1段階: 經濟交流의 開始 및 擴大 - 政策調整期

政治的 前提가 解決되고 豫備協商이 成功的으로 遂行되어 經濟去來가 開始될 수 있는 狀態에 이르면 第1段階 作業으로서 經濟協決 (Payments Agreement) 의 締結이 必要하다.

이 期間은 一種의 과도기간으로서 漸進的인 經濟去來의 擴大와 함께 經濟政策에 關한¹ 調整이 推進되므로써 機能主義的 接近에 依한 政治·軍事的 協力の 展望까지를 豫測케 하는 重要한 政治的 意義를 갖는다.

同 經濟協定은 經濟에 따르는 費用이 節減될 수 있다는 長點

以外에도 一定 信用限度(Swing credit)의 設置를 通하여 一方의 甚한 國際收支 不均衡으로 因한 負擔을 輕減시킬 수 있다는 利点이 있다.

2) 第2 段階 : 에너지·鐵鋼共同體

第1 段階에서 貿易去來가 원만히 發展하고 또 政治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第2 段階에서의 理想的인 經濟協力 形態는 그 自體가 韓半島內 平和의 定着에 寄與할 수 있는 屬性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觀点에서 南北韓 에너지·鐵鋼共同體의 樹立은 經濟的인 利益은 勿論 政治·軍事的으로도 큰 意義를 갖는다.

事實 第1 段階와 第2 段階 間에는 현격한 質的 差異가 있으며 境遇에 따라서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지도 모른다. 前者가 一般的으로 東西貿易의 性格을 띄는데 反하여 後者の 境遇 相異한 經濟體制間의 調整 내지는 接近 그리고 平和的 統一에 對한 의지를 前提로 하며 또 이러한 段階의 移轉이 없이 政治的 統合이란 事의 不可能하게 보인다.

3) 第3 段階 : 重化學工業部門에 關한 共同市場

第2 段階에서 第3 段階에로의 移行은 比較的 容易하게 보인다. 비록 部門別로는 크게 差異가 있으나 兩地域이 多같이 重化學工業化 段階에 있어 比較優位에 立脚한 水平分業의 여지가 크며 또 規模의 經濟와 같은 利益을 누릴 수도 있다.

이 段階에 이르면 兩地域間 經濟政策에 關한 協議 및調整이

本格化하게 되며 機械, 電子, 化学工業 또는 一次産品등 品目別로 점차 共同市場을 拡大시키고 域内流通의 運營에 따라 對外共同政策도 採択할 수 있다. 그 以外 共同基金의 設置를 통한 地域開發, 特定産業에 對한 支援 및 資源開發도 推進될 수 있으며 部門別로 技術協力도 可能할 것이다.

3) 第4 段階: 輕工業部門 및 農産物에 關한 共同市場

兩地域内 需給構造 및 産業의 競争力등을 考慮하여 輕工業部門과 産業部門에 關한 共同市場의 樹立은 最後段階로 미를 必要가 있다.

끝으로 經濟統合의 推進過程에서 이를 担当할 機關이 創設되어야 함은 再言의 餘지가 無는데 必要한 最少限의 機關으로서 關係會議, 管理委員會 및 諮問會議을 들 수 있다.

ECONOMIC INTER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im, Cae-One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has develop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n agreement can be reached on a more gradual and realistic approach to unification of Korea. Even though South and North Korea accepted the principle of [peace first, unification second,] there is little room for the development in political and military negotiation.

This paper, therefore, is aimed at establishing several stages and operational structure in promotion of economic exchange as a first step of functionalist approach to unification.

The first successful story of integration on the basis of functionalism was the establishment of ECSC in 1951 after Schuman Declaration in 1950.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ECSC was not only to control the production, circulation and trade of coal and steel products, among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preserve peace, but also to pursue economic benefits from the formation of common market and the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ies. Even though the establishment of ECSC was proposed by federalists, federalists resorted to functionalist

approach and limited their objectives to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frustration of EDC proposal and failure in political and military integration. It can be interpreted that since there were many obstacles to political and military integration, the economic community was established as a first step to complete integration, expanding in every possible field step by step. The joint communique issued after Messina conference which led to the birth of EEC, clarified that as a first step to European integration, integration was limited to economic field.

Limited initially to economic affairs, application of functionalist approach to Korea would bring about mutual economic benefits to South and North Korea. Attempts for gradual integration through expansion in economic transactions will eventually lead to peaceful unification. In the early stage of integration, however, no more than mutual benefits from economic exchange can be expected.

A theoretical analysis on economic integration was first attempted by J. Viner and further developed by many other scholars. Traditional theory with an emphasis on static and dynamic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is more suitable to advanced countries. It should be revised to some extent to apply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creation' effect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should put a heavy emphasis on the pursuit of tangible benefits based on the theory by Cooper, Massel, Johnson, Linder and Andic. Succes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would depend upon a mutual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secto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presumes the similarity in political systems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difficulties in cooperation and 'rapprochement' in system as a result of negotiation. Even though potential capabilities and desire for unification must be stronger in divided countries, application of functionalist approach to Korea tends to overlook the existence of hostility and difference in political system based on different ideology. The most serious problems to economic integration proved difference in political system and approach to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shown in cas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difference in system and related issues did not prove an absolute barrier to economic exchange.

In contrast to ROK'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North Korea stuck to Stalin-type so-called 'one-country socialism' in pursuit of self-sufficiency within a country. This kind of basic policies was reinforced after sudden interruption in aid from China and Soviet Union in the middle of 1960's. North Korea's un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with an emphasis on the heavy industries aimed at the promotion of war industry and pursuit of self-sufficient economic system. But deterioration in balance of payment, default of foreign debt and depression in North Korea were mainly attributable to closed-economy oriented basic economic policies which ignored change in world affairs and economic efficiency. North Korea should turn her eyes to economic benefits from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o solve the current economic problems. Thus shift in North Korea's basic policies is thought to be a precondition for the opening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other words, political decision on change in basic policies is a key to a solution to problems.

Since the 8.15 declaration in 1970 by president Park, ROK proposed a gradual and functionalist approach to unification of Korea. ROK used to give more concrete proposals in political

field as well as in non-political field such as economy,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Proposals on the promotion of economic exchange such as the second 6.23 declaration in 1978 proved very significant and especially called for sepa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It goes without saying, however,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economic exchange is to achieve unification of Korea. Since no preconditions for unification were met, it is more realistic to go through several stages as following: (a) opening of economic exchange, (b) cooperation in non-political field, (c) integration field by field, (d) progress in political communication, (e) cooperation in political field.

In contrast to ROK's attitude, North Korea adhered to her old inflexible position which seeks for overall political solution at once.

As long as one position is parallel to the other, it is impossible and meaningless to attempt overall political negotiation to seek for better relations. It does not mean, however, that economic exchange can be succeeded without political decision. In other words, non-politicization of economic exchange requires political decision and guarantee, apart from the difference in ideolog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mprovement in social welfare, pursuit of peace and eventual peaceful unification are the fundamental targets of functionalist approach. Since ROK advocated functionalist approach and North Korea also contended for peaceful unification on the surface, there is no disagreement on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itself.

Therefore, a model of functionalist approach applicable to the case of Korea should be developed. Following are four stages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integration suggested in a model of functionalist approach suitable to the case of Korea:

(A) The first stage: opening of economic exchange and expansion in trade- period of policy accomodation.

If political preconditions are satisfied and preliminary negotiations are successfully carried out, the time is ripe for economic transactions. Then as a first step, payments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The first stage is a kind of transitory period in which economic exchange is gradually expanded and accomodation on economic policies is made. Since prospects for political and military cooperation based on functionalist approach can be seen in this stage, this stage proves political significance. The payments agree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swing credit not only minimize the cost of transaction, but also relieves a burden of the party which suffered from deterioration in balance of payments.

(B) The second stage: formation of economic community for energy and stee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econd stage sh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in Korean peninsula. Economic exchange in the first stage h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st-west trade whil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econd stage reveals strong desire for change in economic system toward economic integr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The second stag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first stage in qualitative aspects. In some cases, it might take much time to develop into the second stage. In this respect, the formation of economic community for energy and steel not only results in mutual economic benefits, but also proves politically and militarily significant. Skipping the second stage, it seems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political integration.

(C) The third stage; formation of common market i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secto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sectors, there is a large room for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dvantage, benefiting from the economies of scale. Cooperation and accommodation in economic policies become serious upon this stage. Common market on items such as machineries, electronics and chemicals should be expanded and common economic policies vis-a-vis the outside world could be taken according to the result of circulation within commun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mutual funds, projects for resources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aid programs for specific industries an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could be carried out together.

(D) The fourth stage: formation of common market on light industry g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Formation of common market on light industry goods and agricultural products must be postponed until the last stage, taking into account the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and competitive pow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inally, a conference on ministerial level, management committee and consulting committee are minimum number of institutes to carry out the duty of economic integration.

I . 序

本 研究에서는 南北韓이 「先平和 後統一」이라는 大命題를 받아들이나 政治·軍事的 協商에 있어서는 하등이 進展이 可能치 않으므로 非政治交流의 擴大와 같은 間接的이나 보다 現實的이고 점진적인 接近方式에 合意할 수 있다는 것을 假定하였다. 따라서 本研究의 취지는 이와 같이 政治的 諸前提가 充足되었다는 假定下에 機能主義的 統合의 한 方法으로서 兩地域間 經濟去來의 推進 形態 및 過程을 定立하는데 있다.

第1章에서는 南北韓 經濟間 補完性, 競争性 및 相互 可能한 協力の 범위를 살피기 위하여 經濟·産業構造를 對比하였으며 第2章에서는 政策基調面에서의 調整, 接近의 必要를 고려하여 對外經濟政策을 相互 比較하였다.

體制의 相異로 因하여 北韓의 경우 輸出入 構造와 産業構造間 乖離가 있으나 貿易 그 自體가 國內 經濟의 需給의 한 側面을 反映한다는 點을 고려하여 第3章에서는 南北韓間 貿易構造를 分析하였다.

第4章에서는 南北韓間 점진적인 經濟統合 模型을 모색하기 위하여 機能主義的 接近의 事例와 이에 따르는 理論的인 諸 經濟的 效果를 要約하여 보았다.

그러나 南北韓間 經濟去來의 擴大 내지는 統合에 있어서 여러 政治·非政治的 制約이 따르며 이러한 制約이 解決되지 않는 限

經濟協力은 事實上 不可能하다. 第 5 章은 南北韓에 固有한 重要 制約과 政治的 前提를 綜合하고 있다.

끝으로 第 6 章에서는 結論部分으로서 以上の 分析, 研究를 綜合 하여 南北韓이 經濟去來를 推進할 경우 諸條件을 勘案한 經濟統合 模型을 提示하였다.

Ⅱ . 經 濟 產 業 構 造

1. 概 況

南北韓의 面積을 比較하면 1978年 現在 韓國이 98,954Km², 北韓이 122,370Km²로서 約 1:1.24의 比率을 보인다. 韓國은 平野地帶가 많고 氣候條件이 좋아 農業 및 交通등에 有利한 反面, 北韓은 地下 및 水資源이 相對的으로 豊富하여 보다 나은 鈹工業 立地條件을 갖고 있다.

人口面에서는 1978年 現在 韓國의 境遇 37,019千名으로서 北韓의 16,978千名에 比하여 約 2.2倍에 達하나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口增加率의 顯격한 差異를 勘案한다면 韓國內 14歲 以上の 比率이 높은 것을 말하여 준다. 한편 병역기간을 比較하면 公式的으로도 北韓의 境遇가 더 길어 經濟活動人口의 總人口에 對한 構成比에 있어서 韓國이 58%로서 北韓의 33%를 크게 上廻한다.

國民總生産面에서는 總量規模에 있어서 南北韓間 5倍 以上の 격차를 보이며 1人當 GNP에 있어서는 2倍 以上の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本稿에서는 資料의 性格上 수록하지 않았으나 北韓의 支出國民所得의 構成比를 보면 70年代 中盤 以後 民間消費의 경우 43-45%인데 反하여 軍事費는 23%를 上廻하여 韓國과 對照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間 1人當 民間消費의 絶對水準을 比較하면

<表 1>

重 要 經 濟 指 標 (1978 年)

	单位	韓 国 (A)	北 韓 (B)	B / A
人 口	천명	37,019	16,978	0.46
人口增加率	%	1.58	2.5	1.58
国 土 面 積	Km ²	98,954	122,370	1.24
G N P	억달러	473.5	91.9	0.19
1人当 G N P	달러	1,279.1	541	0.42
軍事費負擔率	%	5.4	22.4	4.15
投 資 率	%	31.7	35-40	1.18
成 長 率	%	11.6	4-5	0.39

<資料> 韓國：經濟企劃院

北韓：韓國 国土統一院

3 倍 以上의 差異를 보인다.

韓國에 比하여 GNP에 對한 投資의 構成比가 높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成長率에 있어서 半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要因에 起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 1>)

우선 計劃經濟에 內在하는 資源配分의 非效率性에 더하여 極히 硬直的인 自給經濟의 構築을 위한 閉鎖體制의 指向은 그만큼 國際 分業을 通하여 얻을 수 있는 經濟的 利益을 거의 도외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軍需産業 위주의 重工業 優先政策은 産業間 前後方 聯関効果를 가져오지 못하므로써 投資의 效率性을 낮추었다. 그밖에도 軍事目的의 勞動力 動員은 他産業部門에 對한 人力不足의 現象을 招來하고 있다.

이러한 諸要因은 결국 <表 2>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南北韓間 GNP規模의 격차를 한층 深化시켰으며 69年을 契機로 1人當 GNP마저 逆轉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表 2> GNP 比 較

	GNP (億달러)		1人當 GNP (달러)	
	韓 国	北 韓	韓 国	北 韓
1967	46.7	23.9	154.9	186
1968	58.7	25.7	190.4	194
1969	70.8	27.6	224.4	203
1970	84.7	29.7	262.6	213
1971	87.8	34.7	267.1	249
1972	100.3	40.8	299.4	279
1973	130.6	47.8	383.0	319
1974	150.4	55.8	433.5	363
1975	199.3	64.0	564.8	406
1976	269.7	77.2	752.0	478
1977	351.7	83.2	965.2	502
1978	473.5	91.9	1,279.1	541

<資料><表 1>과 同.

2. 農業部門

国土에 있어서는 北韓이 더 넓으나 77年 現在 耕地面積을 比較하면 全国土에 對한 構成比는 韓國 24.1%, 北韓 16.6%로서 相對的으로는 勿論 絶對적으로도 韓國이 有利한 立場에 있다. 또 韓國에 있어서는 畚의 比重이 51.2%로서 農事 中心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의 경우 30.7%로서 밭農事に 注力하고 있다.

또 氣候條件에 있어서도 韓國의 條件이 훨씬 좋아 農作物 生育期間이 北韓의 境遇보다 길어 2모작이 可能하며 土壤條件에 있어서 역시 나은 立場에 있다.

農業人口를 살펴보면 77年 現在 韓國은 1,230萬 9千名 農家人口를 갖고 있는데 이는 全人口의 33.8%에 해당하여 北韓內 農家人口는 632萬名으로서 同比는 40.8%이다. 興味있는 現象은 韓國이 점차 農業人口의 감소현상을 보이는데 反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씩 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韓國의 境遇 第3次 5個年計劃 期間中 一次産業部門에서 年平均 거의 6%의 成長率을 實現하므로써 主穀의 自給化를 達成하기에 이르렀으며 北韓 역시 6-70年代(7個年 및 6個年 計劃 期間) 同 部門에서 年平均 5.5% 内外의 擴大率을 維持한 것으로 보인다. 70年代 末 農業部門 生産의 GNP에 對한 構成比는 南北韓 共히 20% 内外로서 比較가 된다.

끝으로 當農의 現代化 및 重要 農作物 生産 現況은 <表3-4>

<表3> 官 農 的 現 代 化 (1978年)

	韓 国	北 韓
農家戶当 耕地面積	0.99 ha	1.7 ha
農業機械化	動力경운기 194,780台 트랙터 1,601台	트랙터 (15馬力 환산) 7 - 8萬台
化学肥料施肥量 (정보당성분합량)	387Kg	200kg
쌀 生産量 (10a当)	471 Kg	370kg

<資料> 韓國：農水産部

北韓：韓國 国土統一院

<表4> 農 産 物 生 産 量 (1977年)

	单位	韓 国	北 韓
곡물 總生産量	千M/T	8,005	8,500 (4,490)*
米穀 生産量	千M/T	6,005.6	2,533 (1,824)
곡물 一町步当 生産量	톤	3.6	4.7 (2.3)
米穀 一町步当 生産量	톤	4.4	4.1 (3.0)
옥수수	톤	113.1	2,257 (2,257)
옥수수 一町步当 生産量	톤	2.9	3.2 (3.2)
豆 穀	千톤	383.3	176 (176)
1町步当頭穀生産量	Kg	990	585 (585)
서 류	千톤	602.4	840 (177)
一町步当서류生産量	톤	4.7	8.4 (1.8)

<註>：() 内는 精穀基準임.

<資料> 韓國：韓銀，經濟統計年報，1978.

北韓：内外通信，No.58号，1979.2.8.

와 같은데 品目別로는 差異를 보이나 人口 및 立地條件 등을 勘案할 때 總體的으로 比較되는 水準이라 할 수 있다.

3. 鈹工業 部門

資源賦存面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地下資源은 <表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北韓에 편중, 매장되어 있다는 特徵을 들 수 있다.

매장량에 있어서 철광석은 90% 이상 유연탄은 98%가 北韓에

<表 5> 鈹物 매장량과 생산량(1977年)

	單位	매 장 량		생 산 량	
		한 국	북 한	한 국	북 한
石 炭	백만톤	1,500	11,740	17.23	50.0
鐵 鈹	千톤	121,368	1,300,000	653	7,350
重 石	千톤	12,750	19,123	5,019	5.13
金 鈹	千톤	1,180	2,340	631(Kg)	9.2(톤)
銀 鈹	千톤	6,948	15,016	0.063	0.14
銅 鈹	千톤	11,243	16,870	11.25	40
아 연 鈹	千톤	8,202	8,000	137.68	162
마그네사이트	千톤	-	6,500,000	-	3,200
규 토	千톤	17,460	7,500	-	-

<資料> 海外經濟研究所, 南北韓 經濟力の 現況과 展望比較,

1979.6. 에서 再引用.

편재되어 있는데 규모만 除外한다면 大部分 北韓이 有利한 立場에 있다.

開發戰略을 比較하면 韓國은 軍事的인 고려보다는 經濟的인 效率性を 優先으로 初期 資本, 技術 및 勞動과 같은 賦存資源 与 件을 勘案하여 比較優位가 높은 勞動集約的 輕공업부터 開發을 始作하여 輸出主導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고 70年代에 들어서면서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치중하여 總量面에서 相當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反面 北韓은 經濟的 效率性 보다는 軍備增強을 더욱 重視하여 当初부터 重工業爲主의 開發에 重点을 두어 왔다. 또한 北韓은 「各國은 綜合的인 産業基盤을 확보해야 한다」는 「스타린」式의 一國家 社會主義를 모방하여 共產圈內에서도 가장 閉鎖主義的인 經濟體制를 構築하기에 努力하여 왔다. 따라서 比較優位에 立脚한 國際經濟的 利得이 相對的으로 소멸되므로써 60年代까지만 하여도 앞서 있던 鉍工業의 生産能力이 大部分의 工業分野에서 現在 韓國에 比하여 열세를免치 못하고 있다.

1) 「에너지」工業

北韓은 自體 賦存資源에 可能한 限 最大限으로 依存한다는 原則下에 比較的 豊富하게 매장되어 있는 石炭의 開發에 注力하여 77年 生産量은 5千萬톤에 이르고 있다. 韓國은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 例로 同年生産量은 1,723萬톤 水準이다.

한편 精油産業에 있어서는 韓國이 北韓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韓國은 급속한 經濟成長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需要를 주로 石油에너지에 依存해왔다. 1978年 現在 年間 原油處理能力 및 生産이 580千 BPSD에 이르러 北韓의 境遇에 比할 때 거의 8.7倍에 달한다.

電力面을 比較하면 1977年 現在 韓國의 境遇 總 發電施設能力은 579萬 Kw 인데 其中 火力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反面 北韓은 512萬 Kw의 總 發電施設能力을 갖고 있는데 其中 火力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即 1977年 現在 總量面에서 比較되나, 韓國은 1986년까지 總 電力 生産能力의 30%에 該當하는 600萬 Kw의 原子力 發電所를 이룩하면 北韓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表10>參照)

2) 重化學工業

鐵鋼工業生産에 있어서 1978年 現在 韓國은 銑鉄 274萬 톤, 鋼鉄 474萬 톤, 反面 鉄鉍石이 豊富히 매장되어 있는 北韓은 銑鉄 322萬 톤, 鋼鉄 400萬 톤을 各各 生産하였다. (<表6>) 따라서 銑鉄面에서는 北韓이, 鋼鉄面에서는 韓國이 앞서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韓國은 포항제철공장의 繼續적인 擴張과 第2綜合 台製鉄의 新設을 契機로 北韓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機械工業 分野를 살피면, 먼저 工作機械에 있어서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이 多小 앞서고 있으나 其他 耕耘機,

<表 6> 金屬工業 生產

(單位：千噸)

	韓 國		北 韓	
	1974	1978	1974	1978
銑 鐵	987	2,740	2,300	3,220
製鋼能力	2,253	4,735	2,500	4,000
銅	12(電氣銅)	52(電氣銅)	28	30

<資料> <表 1>斗 同。

<表 7> 機 械 生 產 能 力 (1978 年)

韓	國	北	韓
各種工作機械	2.8 萬台	各種工作機械	3 萬台
耕 耘 機	6.5 萬台	트랙터 (15馬力以上)	21.2 千台
自 動 車	27.8 萬台	自 動 車	2.4 萬台
造 船 能 力	277 萬G/T	造 船 能 力	42 萬G/T
最大船建造	26 萬DW噸	最大船建造	2 萬 DW 噸

<資料> <表 1>斗 同。

自動車 및 造船能力에 있어서는 韓國이 絶對的인 優位에 있다.

化学工業 部門을 对比하면 鉄鋼 및 機械工業 分野의 境遇와는 달리 韓國이 全部門에 걸쳐 有利한 立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8> 은 兩地域間 化学肥料, 農藥, 合性樹脂 및 原油處理能力등을 比較하고 있다.

其他 建設部門과 關聯하여 가장 중요한 시멘트工業에 있어서 1977年 現在 韓國의 生産量은 北韓의 倍에 해당한다.

<表 8> 化学工業의 生産能力

	韓 国		北 韓	
	1974	1978	1974	1978
化学肥料(千噸)	750	1,355	416	480
農 藥(")	54	130	15	24
主要合性樹脂(")	175	267(76회)	50	85(76회)
原油處理能力 (千BPSD)	435	580	40	67

<資料> <表 1>과 同.

3) 輕工業

輕工業 生産에 있어서 韓國은 이미 世界的인 水準으로 浮上하였으며 軍需産業部門에 치중하여 온 北韓과는 比較도 안될 만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旣히 北韓은 그동안 住民들의 消費

生活를 거의 무시하여 온 결과 <表9>에 열거한 몇가지 예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거니와 消費財 生産은 韓國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実情이다.

<表9> 重要輕工業製品 生産実績(1978年)

	韓 国	北 韓
시멘트 生産能力(萬톤)	1,600	800
織物 生産(億㎡)	13	5.5
TV 수상기(千台)	4,830	10萬台組立水準
라디오(千台)	4,770	国内需要自給段階
냉장고(千台)	870	組立段階

<資料> <表1>과 同.

4) 綜 合

韓國은 그동안 先進国으로부터 大規模의 資本과 高度의 技術 導入을 통하여 高度成長을 持續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綜合的 成長 潜在力을 키워왔다. 그러나 「오타키」體制下에서 自體內的 技術開發 및 資本에 주로 依存하고 있는 北韓은 앞으로 이러한 閉鎖經濟體制를 脫皮하지 않는 限 韓國에 비해 相對적으로 더욱 큰 格차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表10>은 韓國의 第5次 5個年 開發計劃, 그리고 北韓의 第2次 7個年 計劃에 나타난 諸指標을 中心으로 作成되었는데

이제껏 보아온 추세를 大部分 反映한다고 생각된다.

總體的으로 볼 때 南北韓間 農業部門에서 比較된다고 하면 輕工業 및 化學工業에 있어서 韓國이 거의 全部門에 걸쳐 優위에 있는 反面 北韓은 一部 鉍物資源의 生産에 있어서 有利한 立場에 있다. 한편 機械, 鋼鉄을 비롯한 重工業 部門의 境遇 品目別로 比較될 수 있으며 兩地域間 交流가 開始되었을 때 가장 큰 水平分業의 여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表 10> 重要 經濟計劃目標의 比較

	單位	基準	韓 國		北 韓(1984)
			81 年	84 年	
人 口	千名		38,807		18,306
G N P	백만달러		85,763		19,744
1人當 G N P	달러		2,210		1,078
G N P 成長率	%		9.0		6.0
穀 物	千 M/T	生産	9,481	10,913	10,000
水 產 物	"	"	2,653		3,500
石 炭	"	"	18,500		70,000 ~ 80,000
시멘트	"	能力	26,580	40,000	12,000 ~ 13,000
粗 鋼	"	"	11,700	20,600	7,400 ~ 8,000
銑鉄, 粒鉄	"	"	8,069		6,400 ~ 7,000
非鉄金屬	"	生産	3,650		1,000
工作機械	台	保有	111,464	205,359	50,000
自動車	千台	能力	1,000	2,000	-
農業機械	"	保有	1,134		30
트랙터	台	"	5,500	15,000	200,000
造船	千 G/T	能力	4,250	6,500	-
化學肥料	千 M/T	"	3,131		5,000
電力	백만KWH	發電量	43,400	20,540 千KVA	56,000 ~ 60,000

<資料> 韓國：經濟企劃院

北韓：「第2次 7個年計劃」 및 其他

Ⅲ . 對 外 經 濟 政 策

南北韓間 相異한 經濟體制에 바탕을 둔 相反되는 政策目標의 追
求는 對外 經濟政策面에서도 極히 對照를 이루는 結果를 가져 왔
는데 以下 基調 및 貿易의 遂行을 比較한다.

1. 基 調

1) 韓國은 그간 對外指向的인 工業化 政策의 成功的인 遂行으로
한층 自身을 얻어 70年代初 以後 本格的인 政經分離政策을 推進
함으로써 非敵性 社會主義 國家와의 經濟去來까지를 繼續摸索해 오고
고 있다. 東歐쪽은 勿論 中共 및 蘇聯과의 貿易 可能性도 이미
論議되고 있으며, 特히 1977年初 北韓에 對한 食糧援助 提議는
韓國의 政經分離政策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은 多분히 政經一致的이다. 即,
北韓의 對外經濟, 貿易去來는 政治的 目的을 爲한 하나의 手段으로
使用하고 있다. 1967年 12月 金日成이 發表한 「10大政綱」¹⁾
에 잘 나타나 있듯이, 北韓은 市場經濟 原則에 立脚해서가 아니라
社會主義 影響圈을 넓히고 資本主義 世界의 孤立化를 促進하는 方
向으로 貿易政策을 展開시키고 있다.

註 1) 日朝貿易會, 「日朝貿易の手段さ」參照

2) 1972年 12月 27日 6次로 改正 公布한 北韓 憲法 第34條에 「外國貿易은 國家 또는 國家의 監督 밑에서 한다」고 明示되어 있듯이 國家가 主體가 되어 外國貿易을 行한다.

이에 反해 韓國에 있어서는 原則적으로 個別 企業들이 主體가 되어 對外貿易을 行하며, 國家는 市場機能의 범위에서 可能한 政策的 介入을 通하여 願하는 方向으로 이들을 誘導하고 있다.

3) 北韓은 「一國家 社會主義」를 指向함으로써 自給體制의 確立을 追求하고 있다. 即, 重工業 中心의 綜合적인 産業基盤을 確立하여 Autarky體制를 構築하기에 腐心하고 있다. 이러한 閉鎖主義적인 經濟政策下의 北韓에서는 貿易은 中央當局에 依하여 遂行되는 經濟計劃에 對한 單純한 補完적인 役割을 하므로, 貿易 그 自體는 逆說적으로 貿易의 必要性을 除去하기 爲한 目的으로 行해진다.

그러나 이와는 對照적으로 韓國은 輸出入에 바탕을 둔 成長戰略을 挾해 왔다. 資源이나 資本蓄積이 不足한 韓國으로서 高度成長을 實現하기 爲하여 對外貿易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4) 北韓에서는 貿易이 經濟計劃의 一部로서 包含되어 있는데, 이 計劃이 追求하는 社會主義 工業化에 必要한 資源을 輸入하고 輸出은 이에 所要되는 外貨調達이라는 副次的인 意味를 가질 뿐이다. 即, 輸入優先主義를 指向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은 「輸入을 爲한 輸出」의 原則을 따르기 때문에, 輸出構造는 國內産業

構造 그 自體를 反映하지 않는다. 即, 必要하다면 1次產品 등의 原資材도 大量輸出 하여 重工業 開發에 必要한 輸入需要에 充當하고 있다.

이에 反해, 韓國은 輸出主導型 工業化 政策을 指向하고 있다. 勿論 輸出에 있어서 輸出이 輸入에 必要한 外貨의 確保라는 趣旨도 갖고 있으나 그 보다는 比較優位에 立脚한 輸出産業의 育成과 같이 貿易에 따르는 利益을 追求하기 위하여 輸出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韓國은 北韓과는 달리 輸出規模의 擴大와 輸出産業 構造의 高度化가 工業化와 直結되어 있다.

5) 北韓은 2次大戰後 先進諸國間에 流行되었던 二國間 輸出入均衡原則을 固守하고 있다. 그 理由는 不均衡的인 貿易去來가 間接的인 帝國主義的 侵略 形態로 看做되며, 또 事전에 貿易赤字를 豫防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無理한 重工業化政策에 따른 資本財·施設財 및 技術 등의 導入으로 因하여, 實際로는 이 原則이 지켜지지 않아 現在 莫大한 外貨負擔을 안고 있는 實情이다.

韓國은 總體的인 輸出入均衡을 優先으로 하고 二國間 輸出入均衡原則은 副次的인 問題에 不過하다. 勿論 現在 韓·日 및 韓·美 間의 貿易不均衡이 論議되고 있긴 하지만 北韓과 같이 深刻한 程度는 아니다.

2. 對外 貿易의 遂行

(1) 貿易의 開始

北韓은 「平等·互惠」原則에 立脚한 「바터 貿易制」를 實施하고 있다. 國交가 樹立된 國家들과는 大部分 通商協定の 締結에 依해 每年 貿易去來, 品目 및 數量에 關한 貿易 議定書가 署名됨으로써 貿易이 이루어진다. 國交가 樹立되지 않은 境遇는 主로 北韓의 貿易商社와 相對國 貿易商社 사이의 相談에 主로 依存한다.

한편, 韓國의 境遇 通商協定은 一般的인 原則만이 包含되며 모든 貿易去來는 民間 「베이스」에 依해 進行된다. 勿論 政府가 主導的인 役割을 하나 品目 및 數量까지 政府가 定하는 北韓의 境遇와는 根本的으로 對照를 보인다.

(2) 價格

南北韓 多같이 商品의 價格이 하나의 貿易政策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 價格 概念은 南北韓間에 顯著한 差異가 있다. 韓國에서는 價格이 費用 - 選好를 反映하는 市場經濟的 概念인데 反하여 北韓에서의 價格은 社會目的 實現을 爲해 國家에 依해 任意的으로 設定되므로 國際時勢와는 크게 遊離되어 있다. 따라서 國際去來 價格은 韓國內에서는 國內市場價格을 그대로 反映하나 北韓에서는 國家에 依해 一方的으로 決定되므로 「덤핑」形態의 輸出도 容易하다.

(3) 關稅政策

北韓의 憲法 第34條는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을 目的으로 關稅를 賦課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貿易이 國家獨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關稅가 國內産業保護手段으로서 實質的인 意味를 갖지 않으며 主로 政府의 財政收入 增大에 그 目的이 있다.

이에 反해 韓國에서의 關稅賦課는 主로 國內産業保護라는 趣旨를 갖고 있다.

(4) 外換政策

韓國은 輸出入 調整 및 國際收支 改善 等の 目的을 爲하여 外換率政策을 使用한다. 그러나 國內外 價格이 크게 遊離되어 있는 北韓의 境遇 換率政策은 貿易에 큰 影響을 줄 수는 없으며 다만 巨視經濟的 決定을 對外貿易과 調和시킬 수 있는 하나의 事後的 手段에 不過하다.

(5) 數量制限 政策

國家에 依해 管理되는 北韓의 貿易은 全量이 數量制限 政策의 對象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實際에 있어서도 兩國間의 協商을 通하여 品目別 「쿼터」가 策定되는 事例가 大部分이다.

한편 韓國에서는 數量制限 政策이 市場經濟的 非效率性 等 諸要因으로 因하여 그 重要性이 喪失되어 가고 있다. 特히 先進·經濟圈에로의 接近에 따라 1978年 以後 競爭力의 強化,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物價安定 等を 目的으로 輸入 自由化가 推進되고 있다.

現在의 展望으로는 80年代 中盤까지 輸入自由化率이 95% 内外에 達함으로써 IMF 8條國에 로의 移行이 豫想된다.

(6) 對外經濟協力 및 其他 非關稅政策

北韓은 그 밖에 對外經濟協力, 「라이센스」制度, 行政節次, 輸出 援助 等 여러 政策手段을 使用하고 있으나 市場經濟體制의 韓國과는 全히 다른 意味를 띄고 있다.

Ⅳ . 貿 易 構 造

1. 貿易規模

韓國은 60年代 中盤 以後 重要な 政策基調로서 對外經濟協力 및 貿易의 擴大를 追求하여 은대 反하여 北韓은 「오타키」體制를 構築하기에 努力한 結果 對外貿易에 對해서는 소극적인 立場을 取해 왔다.

따라서 1960年 基準 貿易量을 比較하면 1:5의 比率로 北韓이 앞서고 있었으나 1978년에 이르러 韓國이 15倍 以上の 貿易規模를 나타내고 있으며 輸出規模만을 比較하더라도 비슷한 격차를 보인다. (<表 11 ~ 12 >)

한가지 特徵은 南北韓 多같이 構造的인 貿易收支의 不均衡을 免치 못하고 있으나 그 赤字幅에 있어서 北韓의 境遇 相對的으로 大規模라는 點을 들 수 있다. 73 ~ 4年 거의 輸出規模에 比較될 수 있는 貿易赤字를 나타낸 後 다소 감소의 추세를 持續하였으나 78年 다시 크게 擴大되었다.

北韓이 이와 같이 70年代 中盤 以後 國際收支의 不均衡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重要的 直接的인 要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6個年 計劃의 遂行에 따르는 輸入需要의 擴大
- 2) 重要 輸出 一次產品인 非鐵金屬類의 國際時勢 下落,

<表11> 韓國의 對外貿易 推移

(單位：百萬달러)

年度	輸 出	輸 入	貿易 収 支
1970	835.2	1,984.0	-1,148.8
1971	1,067.6	2,394.3	-1,326.7
1972	1,624.1	2,522.0	- 897.9
1973	3,225.0	4,240.3	-1,015.3
1974	4,460.4	6,851.8	-2,391.5
1975	5,081.0	7,274.4	-2,193.4
1976	7,715.3	8,773.6	-1,058.3
1977	10,046.5	10,810.5	- 764.1
1978	12,710.6	14,971.9	-2,261.3
1979	15,055.5	20,338.6	-5,283.2

<資料> 韓國 貿易協會, 貿易動向, 1979.

3) 輸出産業 및 輸送設備과 같은 補完施設의 不備,

4) 國際經濟·貿易去來 및 國際金融市場에 對한 經驗不足,

5) 대맥 및 소맥 등 穀物輸入의 擴大,

6) 對蘇 輸入原油價등 輸入「에너지」價格의 上昇으로 因한 交易 條件의 惡化,

그러나 이러한 要因들을 招來한 그 根源은 北韓의 經濟體制,

<表 12> 北韓의 對外貿易 推移

(單位: 百萬달러)

	貿易總額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71	886.0	301.9	564.1	- 262.1
72	1,038.7	399.0	639.7	- 240.8
73	1,340.4	497.0	842.7	- 345.0
74	1,980.3	677.2	1,303.1	- 625.9
75	1,906.6	814.0	1,092.7	- 278.7
76	1,486.9	658.1	828.8	- 170.7
77	1,500.0	680.0	820.0	- 140.0
78	1,800.0	866.0	926.0	- 660.0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OECD, Trade by Commodities. 各年号.

그리고 生産資源이 不足한 狀態에서 軍需産業을 中心으로 한 無理한 重工業化 政策의 遂行으로 因한 輸入需의 급속한 擴大에 문이라 할 수 있다.

2) 地域別 貿易構造

北韓의 總貿易에서 共產圏이 차지하는 比重은 1960年까지 90%를 크게 上廻하여 왔으며 그後 점진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絶對的인 位置를 維持하여 왔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와서

6 個年 計劃의 始作과 함께 对西方 貿易이 급격히 增加하여
73 ~ 4 年을 契機로 한 때 50 %를 上廻하기 까지 하였다.

(< 表 13 >)

即 北韓은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의 經濟協力이 위축 내지는
中斷되자 반사적으로 西歐 및 日本市場에로 關心을 돌렸는데 西
方製品的 質的 우수성 및 政治的 負擔이 없다는 點도 作用한 것
으로 보인다.

< 表 13 > 地域別 貿易構造

(單位 : 百萬달러 및 構成比 %)

	共 産 圈		自 由 圈	
	金 額	構成比 (%)	金 額	構成比 (%)
1971	734	84.8	132	15.2
72	796	76.6	243	23.4
73	820	61.2	521	38.8
74	918	46.4	1,062	53.6
75	1,032	54.1	875	45.9
76	984	66.2	503	33.8

< 資料 > < 表 12 >와 同

<表 14 >

主要 地域別・国別 貿易

(单位: 百萬달라)

	輸 出			輸 入			貿易 収 支	
	1978	1979	增加率 (%)	1978	1979	增加率 (%)	1978	1979
日 本	96.2	136.8	442.3	201.7	312.2	54.8	-105.5	-175.4
西 欧	53.6	111.7	108.4	62.7	68.7	9.5	- 9.2	43.0
프 랑 스	4.2	25.8	518.2	11.1	9.0	20.8	- 6.9	17.0
이태리(1~10月)	11.4	4.6	-60.2	6.3	8.5	34.4	5.2	- 3.9
西 独(1~9月)	30.0	60.8	103.1	16.7	25.0	50.0	13.3	35.8
英 国	3.1	2.0	-35.8	2.1	2.0	5.2	0.9	- 0.1
벨 지 움	0.2	1.2	459.1	3.1	1.8	40.6	- 2.9	- 0.6
스 위 스	1.1	14.1	1,150.4	15.4	11.8	23.5	-14.3	2.3
스 위 덴	1.1	0.8	-31.9	2.1	2.0	7.0	- 1.0	- 1.2
오스트리아	2.3	1.3	-43.3	4.3	8.1	89.7	- 1.9	- 6.8
아시아·오세아니아	28.5	45.6	60.0	73.5	110.3	50.2	- 45.0	-64.7
홍 콩	16.0	19.1	19.1	14.2	41.6	193.8	1.9	-22.5
타 이 랜 드	2.4	8.2	236.1	0.0	0.2	-	2.4	8.1
싱 가 폴	6.5	7.9	21.1	40.1	42.4	5.1	- 33.8	-34.5
말 레 지 아	1.7	0.7	61.0	1.1	4.5	302.7	0.6	- 4.1
印 度(1~3月)	1.3	9.5	638.8	4.8	8.1	66.3	- 3.6	1.5
오스트라리아	0.1	0.2	122.2	12.7	13.6	6.6	- 12.6	-13.4

	輸 出			輸 入			貿 易 収 支	
	1978	1979	增加率 (%)	1978	1979	增加率 (%)	1978	1979
蘇 聯 · 東 歐	394.6	416.9	5.7	337.6	358.5	6.2	57.0	58.4
蘇 聯	294.6	387.7	31.6	257.9	325.5	26.2	36.7	62.2
폴 렌 드	26.0	29.2	12.4	16.8	33.0	96.2	9.2	3.8
루 마 니 아	26.6	-	-	21.9	-	-	4.7	-
유 고	10.6	-	-	4.1	-	-	6.4	-
東 独	36.8	-	-	36.8	-	-	-	-
合 計	573.1	711.3	24.1	676.2	851.4	25.9	-103.1	140.1

<註: 끝자리 수를, 사사오입 하였으므로 国別 貿易收支 豫算에서 境遇에 따라 약간의 誤差가 있음.

<資料> 相对各国統計.

<表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对共產貿易에서 黒字를 나타내는 反面 对西方 貿易에 있어서는 赤字狀態가 持續되고 있는데 이는 後者の 境遇 貿易信用供与와 같은 伸縮性에 起因한다.

한편 韓國은 그동안 非敵性 共產諸国과의 貿易去來를 推進하여 왔으나 그 比重은 아직 1%도 안되는 実情이다. 이는 韓半島의 分断에 따르는 特殊한 國際政治的 与件을 위요한 共產圈의 政治的 排他性이 作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北韓의 2大 貿易对象地域은 蘇聯과 日本으로서 1978 ~ 9年

現在 總 貿易量의 70%를 크게 上廻한다. 蘇聯 및 日本과 함께 EC地域이 主要 去來對象地域으로 登場하고 있음을 特徵으로 들 수 있다.

한편 韓國의 對外貿易 역시 美·日에 對한 지나친 편중현상 (50~60%)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80年代 對EC貿易의 相對的인 擴大, 그리고 第3世界 및 共產圈에의 進出등 多邊化 政策이 繼續 追求될 것으로 豫想된다.

3) 品目別 貿易構造

韓國은 總體的으로 볼 때 比較優位에 立脚하여 貿易을 增大 시켜 온 데 反하여 北韓은 自給體制의 確立과 軍備增強을 위한 無理한 重工業 開發 手段으로 貿易을 利用하여 왔다.

韓國의 境遇 60年代 初까지만 하여도 總輸出에 對한 工產品의 構成比가 20% 未滿이었으나 同 構成比는 70年代 末에 이르러 거의 90%에 達하였으며 其中 重化學工業製品 및 輕工業製品은 거의 비슷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反面 北韓의 境遇 70年代 末 一次產品 및 工產品이 차지하는 構成比는 各各 65% 및 35% 内外로서 前者가 보다 重要한 位置에 있다.

한편 輸入側面에서 살펴면 韓國의 경우 1979年 現在 原資材 및 燃料를 包含하는 工業用原料의 構成比가 57%를 上廻하는 것 과는 對照的으로 北韓은 大部分 工產品을 輸入하고 있다.

韓國은 主로 原料 및 燃料를 輸入하여 工產品을 製造, 輸出하므로써 輸出産業構造의 高度化를 實現하고 있으나, 北韓은 아직 一次

産品을 輸出하여 工業製品을 輸入하는 전형적인 後進國의 貿易構造를 갖고 있다.

北韓은 貿易에 關한 統計를 公表하지 않고 있으므로 去來 對象國의 對 北韓貿易內容을 通하여 이를 살필 수 밖에 없다.

<表 15> ~ <表 18>에서는 重要去來 對象地域인 蘇聯 및 日本의 貿易統計에 依하여 北韓의 品目別 貿易構造를 살폈으며 <表 19>는 對西方 鈹物類 輸出의 內容을 보여주고 있다.

한가지 特記할 것은 北韓에 있어서는 經濟計劃의 수행을 爲한 補助的인 手段으로 貿易이 行해지므로 輸出入 그 自體가 産業構造를 反映하지만은 않는다는 點이다. 例로 重工業 建設에 必要한 輸入需要를 充當하기 爲하여 一次産品을 大量 輸出하는 例가 許多하다. 따라서 南北韓間 貿易去來 可能品目を 선정하기 爲하여 輸出入 構造는 하나의 指標에 不過하며 오히려 産業構造의 比較가 더 正確한 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고 본다.

<表15>

对 蘇 聯 輸 出

(单位:百萬 루블)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機械設備및수송수단類	4.9	11.1	8.3	15.1	2.3	4.8	4.0	7.4
重 晶 石	2.1	1.9	2.1	2.6	2.5	5.5	7.9	8.4
滑 石	0.8	0.8	0.8	1.1	1.7			
銑 鐵	4.6	3.8	1.9	1.3	2.6	2.4	1.6	2.2
圧 延 鋼 材	28.8	31.5	35.9	139.0	41.2	23.7	32.2	41.1
非鉄金属및合金	2.5	4.3	3.7	6.9	3.8	-	-	-
아 연	1.5	1.5	1.4	2.2	1.3	-	-	-
鉛	0.9	2.7	2.1	4.5	2.2	-	-	-
垂鉛圧延品	1.9	1.9	1.4	3.5	4.0	-	-	-
化学製品	1.1	1.8	1.6	2.4	2.5	0.9	1.7	1.9
시 멘 트	4.7	5.6	6.4	4.5	6.5	5.6	4.8	4.5
마그네시아·크링커	19.1	17.6	19.5	18.3	19.0	26.7	41.1	58.0
휘발성油 및 천연향료	-	3.5	4.7	4.5	1.4	3.3	4.6	2.5
엽 연 초	1.4	1.1	2.9	4.0	2.5	0.7	1.7	1.6
쌀	13.2	11.3	12.1	17.0	15.8	15.5	33.6	31.0
生 鮮 果 物	3.0	2.8	3.8	4.1	4.0	2.4	1.9	1.7
피 복 류	14.9	12.3	11.0	17.5	10.9	7.3	7.1	9.0
타 울	1.1	0.8	1.5	1.1	1.4	1.0	1.5	1.2
운 동 화	1.6	1.9	2.2	2.2	2.3	1.9	2.1	2.8
도 자 기	2.2	2.1	2.4	2.1	2.3	1.5	0.7	0.9
합 計	122.2	128.4	133.3	148.9	151.4	118.7	164.0	201.6

<資料> 日本 貿易振興会,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現状, 1980.

<表16>

对 蘇 聯 輸 入

(单位:百萬루블)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機 械 設 備 및 輸 送 裝 備	100.4	95.8	81.1	88.9	75.6	50.0	34.0	26.6
動 力 設 備	24.1	1.3	4.0	4.0	3.2	1.1	0.7	1.6
鉸 山 設 備	4.9	3.4	0.1	1.3	1.3	0.5	0.1	-
製 鐵 設 備	31.0	31.6	26.3	24.7	14.6	4.6	2.3	1.7
石油精製工場用設備	13.0	9.4	2.2	1.3	1.4	2.6	1.2	0.4
計器 및 實驗設備	3.4	3.5	3.5	3.1	3.7	1.2	1.7	1.5
自動調整型배아링	1.8	2.2	1.8	2.0	1.4	1.5	2.1	1.3
航 空 用 資 材	0.9	4.4	3.5	4.9	7.3	8.7	7.0	1.4
固 體 燃 料	12.8	9.8	8.0	6.8	7.3	11.3	12.4	18.2
原 油 및 石 油 製 品	23.4	13.8	16.8	24.7	26.6	43.7	47.3	56.3
휠 로 아 로 이	3.0	3.0	2.7	2.5	2.6	3.2	2.5	3.2
自 動 車 타 이 어	3.8	3.0	3.9	3.0	2.1	-	-	-
綿 花	8.4	5.8	5.0	5.6	4.1	3.9	3.5	3.5
소 맥	10.6	10.8	12.7	12.6	114.8	21.6	29.7	23.7
日 用 文 化 用 品	2.3	2.1	2.2	2.9	4.2	4.3	3.2	4.3
家 庭 用 機 械 및 器 具	2.1	1.8	1.9	2.4	3.3	3.9	2.9	4.0
時 計	1.4	0.7	0.8	1.5	1.6	2.2	1.4	1.7
合 計	330.1	251.6	224.0	194.3	186.8	181.8	164.7	176.5

<資料> <表15>와 同.

<表 17 >

对 日 輸 出

(單位：百萬円)

	1975	1976	1977	1978	1979
農 土 産 物	469.2	730.5	270.0	234.1	312.5
漢 藥 草	307.0	365.5	157.9	115.0	219.3
水 産 物	1,628.6	1,756.0	1,436.5	3,686.9	8,136.0
조 개 類	59.3	328.0	314.0	1,067.0	1,882.5
명 태 알	39.5	33.0	101.3	1,380.6	4,881.7
食 料 品	598.3	1,077.6	712.8	2,384.4	2,817.2
야 채 類	370.5	776.6	541.8	1,673.6	2,051.9
化 学 製 品	273.8	128.4	250.3	254.4	114.4
페 파 민 트 油	189.0	96.8	223.2	247.6	108.7
織 維 原 料	1,176.7	742.9	1,942.4	3,398.0	1,970.5
生 産 糸	480.5	252.2	165.5	183.5	216.7
누에고치(線糸用)	-	26.9	1,174.9	2,476.0	781.0
鉦 山 物	5,717.7	4,111.1	3,581.3	2,715.5	6,124.9
아 연 광	2,334.7	1,085.7	1,034.8	183.2	1,878.7
M · 크 링 커	1,006.5	1,825.3	1,220.5	1,132.2	2,267.9
滑 石	524.8	411.5	565.1	666.0	795.9
무 연 탄	354.7	649.8	493.8	288.3	702.9
金 属	8,975.2	11,775.4	9,051.5	8,992.7	11,794.5
銑 鐵	2,719.3	3,293.0	778.4	1,371.3	1,318.0
鉛 地 金	1,131.0	1,837.7	2,913.7	3,594.9	3,097.4
亜 鉛 地 金	3,929.8	5,944.7	4,849.0	3,406.2	4,800.5
其 他	89.2	271.8	364.7	301.7	736.7
合 計	19,283.3	21,243.4	18,103.3	22,256.1	32,709.7

<資料> <表 15 > 와 同.

<表 18>

对 日 輸 入

(单位：百萬円)

	1975	1976	1977	1978	1979
鉱物類	20.7	572.1	1,472.4	778.1	2,239.9
化学製品	5,083.3	4,470.5	4,100.5	5,922.1	6,542.6
고무 및 同製品	1,059.6	981.5	766.5	1,195.6	1,577.9
紙類	1,627.9	1,486.9	1,421.9	1,593.4	4,010.7
纖維製品	1,207.7	1,505.5	5,432.5	4,344.9	6,825.8
폴리에틸·단섬유	282.6	360.3	1,610.3	1,798.4	2,649.3
합성섬유직물	310.0	224.4	1,720.4	501.1	1,289.3
어망	115.3	141.8	431.8	479.5	1,370.9
非金屬製品	8,165.2	4,056.3	5,072.3	6,018.1	8,611.0
鉄鋼製品	7,349.7	1,704.9	2,591.9	3,473.9	6,904.9
알미늄製品	419.5	1,369.1	1,134.1	908.9	796.1
輸送機器	4,407.0	3,033.8	2,094.8	2,762.7	10,455.0
自動車	3,856.7	1,448.8	1,713.8	1,476.4	8,713.1
船舶	51.4	1,364.5	67.5	51.9	471.3
電氣·機器	7,974.2	3,396.3	4,248.3	4,635.3	4,680.4
T V 수상기	84.6	627.6	734.6	96.0	107.1
機械類	18,476.2	5,219.5	5,585.5	5,421.0	9,094.3
工作機	1,385.5	415.3	512.3	162.2	2,342.8
鉱業用機器	1,520.2	60.7	247.7	169.3	1,095.5
鉱物用機器	2,446.3	342.0	204.0	257.7	5.3
其他機器	859.8	973.8	1,199.8	1,102.7	2,378.9
其他	4,230.3	2,873.6	2,366.6	4,170.2	5,529.0
合計	53,331.8	28,570.1	33,761.1	37,947.1	61,945.7

<資料> <表 15>와 同.

<表 19> 北韓의 对西方 鈹物類 輸出 (1979年)

(單位：千달러)

	品 名	金 額
벨지움(1~10月)	卑 金 属	567
스 위 스	銀	14,746
노 르 웨 이	마그네사이트	280
伊 太 利	金, 銀 및 白金	3,586
西 独	鉛	9,031
	亜 鉛	1,493
	産 業 用 金	40,321
오스트리아	銀	263
스 위 든	非 鉄 金 属	244
日 本	鉛	14,973
	亜 鉛	30,430

<資料> <表 15>와 同.

V. 機能主義的 接近

1. 機能主義的 發展 (經濟的 側面)

國家間 諸部門에 있어서 機能主義的 입각에서 具體的으로 協力의 強化가 論議되기 始作한 例를 2次大戰 即後 유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兩次大戰間 保護主義의 擴大, 30 ~ 40年代 유럽의 分裂 및 民族主義의 高潮, 잃어버린 國際的 地位, 소련에 依한 共產化 위협 그리고 戰爭으로 因한 經濟的 破壞 等은 유럽 諸國間 協力 내지는 統合을 자극시킨 要因들로 作用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總體的으로 두 가지 接近으로 進行되었다.

우선 聯邦主義的 接近 (federal approach)으로서 주로 프랑스, 이태리 및 베네룩스 3個國 代表를 中心으로 展開되었는데 窮極的인 目標은 美合衆國式의 유럽合衆國 (United States of Europe)의 建設에 있었다. 다음 英國 및 스칸디나비아諸國의 立場을 代辯하는 機能主義的 接近 (functional approach)을 들 수 있는데 이는 國內貿易의 自由化와 같은 共同關心의 特殊問題에 對한 政府的 協力을 그 內容으로 하므로 前者와는 本質的으로 그性格을 달리한다.

兩接近間 妥協의 所産으로 탄생한 것이 1948年의 유럽評議會 (Council of Europe)이며 機關으로서 各國立場을 代변하는 유럽議會 (European Parliament) 및 各료理事會 (Council of Min-

isters)를 포함하게 되었다.²⁾

그러나 協力機構로서의 性格을 強하게 면 유럽評議會의 設立에 失望한 聯邦主義者들은 그後 代案으로서 「超國家」(supra national)이라는 概念에 着眼하였으며 50年 슈만플랜(Schuman plan)의 宣言, 그리고 51年 유럽石炭, 鋼鐵共同體(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設立으로 첫 成功을 거두었다. 이는 新機能主義(Neo-functionalism)의 登場을 意味하기도 한다.

即 聯邦主義者들은 重要部門으로서 政治적으로 큰 意義를 갖는 石炭과 鋼鐵의 兩部門에 있어서 共同市場을 形成하고 이러한 部分的인 統合(sectoral integration)過程을 거치는 동안 그 對象이 점차 他部門으로 擴大되어 結局 社會, 政治的 統合을 위한 與件이 成熟될 것으로 展望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新機能主義的 接近은 外見上 機能主義를 표방한 聯邦主義의 一種이라 하겠으며 結局 機能主義的 수단을 통하여 聯邦主義的 目的을 達成한다는데 그 趣旨가 있다.³⁾

어떤 意味에서는 聯邦主義的 接近이 여러 現實的 制約에 直面하여 보다 實現possible한 機能主義的인 점진적 統合方式을 擇하게

註2) 그러나 유럽議會는 各會員국이 파견하는 國會議員으로 구성되므로 實質적으로는 單純한 諮問, 심의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3) J.S.Nye 역시 同一한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 Peace in Parts: Little, Brown and Co., Boston, 1971, p. 51.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同 ECSC의 創設은 두 가지 意義를 갖는다. 첫째, 政治的인 趣旨로서 슈만宣言에도 나타나 있듯이 世界大戰의 發源地인 프랑스와 西獨 國境間 重武器 生産原料인 兩生産物의 生産, 流通 및 輸出入 등을 共同管理함으로써 戰爭을 物理적으로 不可能하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經濟的인 側面에서 본다면 史上 最初로 一定 會員國間 共同市場을 수립하므로써 經濟統合에 따르는 實利를 取하자는 趣旨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50年 韓國戰의 발발은 西歐防衛體制 確立의 必要性을 더욱 切實하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同年 10月 유럽軍의 創說을 內容으로 하는 EDC (European Defence Community)案이 프랑스에 依하여 提案되었다. 52年 同 플뢰벤 計劃 (Pleuven plan)은 ECSC 會員 6 個國에 依하여 調印되었으며 53年에 이르러 EPC (European Political Community)案까지 登場하므로써 유럽의 統合 氣運은 絶頂에 달하였다.

그러나 54年 비준過程에서 西獨軍의 유럽軍內 編入條件에 對한 불만으로 프랑스議會가 同意를 拒否하여 EDC 및 EPC의 設立計劃이 좌절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政治 軍事的 側面에서 統合努力이 失敗하자 聯邦主義者들은 다시 機能主義的 接近으로 轉向했으며 그對象을 우선 經濟部門으로 限定하였다. 55年 메시나의 ECSC 6 個國 外相會議에서 EEC (Eur-

ocean Economic Community) 및 ENEC (European Nuclear Energy Community)의 設立에 合議하였으며 56年 베니스會議을 거쳐 57年에 두개의 로마條約이 締結되었다.

即 當時 與件으로 미루어 政治 및 軍事的 統合의 努力은 諸 制約이 따르므로 第1次的인 단계로서 經濟共同體를 樹立하고 점차 可能的인 分野에 이를 擴大하여 窮極的으로는 유럽統合을 이룩하자는 趣旨로 要約된다. 同 메시나 會議 以後 發表된 共同 커뮤니케에서도 長期的으로 유럽統合을 위한 첫계로서 그對象을 經濟部門에 우선 局限하였음을 明白히 하였다.⁴⁾

1958年부터 機能을 갖기 始作한 EEC나 ENEC는 비록 ECSC의 前例에 比하여 超國家 概念의 強度는 多小 緩和되었으나 新機能主義的 接近의 成功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그 對象에 있어서 全經濟部門으로 擴大되었다는 點에서 一見 經濟統合을 통한 점진적인 政治統合에로의 近接이 實現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9年까지의 過渡期間, 나아가 그로부터 10年이 經過한 現在 로마條約에 規定된 大部分의 目標을 達成하고 또 通貨 經濟同盟에 이르는 日程에까지 樹立하였으면서도 劃期的인 進展을 보지 못하는 根本的인 理由는 會員國의 主權에 對한 애착과 같은 政治的인 要因때문이다.

註 4) Doc, 1, Chronique de la politique 'etrangere, Vol, XII, No. 56, Institut Royal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Bruxelles, p. 625.

事實 一部 學者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經濟統合 過程이 進展할수록 各 會員國水準에서 政治的 意思決定權者의 選擧 범위는 축소되며 그 決定對象은 더욱더 政治化한다.⁵⁾ 따라서 經濟統合의 推進이 政治部門에서의 協力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經濟統合의 深化 그 自體는 政治的인 決定을 前提로 하며 이는 大部分의 經濟問題가 政治化되어있는 一部 後進國 또는 社會主義諸國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⁶⁾

특히 體制와 理念을 달리하는 南北韓이 新機能主義的 接近에 일각하여 經濟統合을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으려면 先決條件으로서 經濟問題의 非政治化가 必要하다고 본다.

2. 經濟的 意義

한편 經濟的 側面에 局限할 때 以上 보아 온 機能主義的 接近 그 自體는 實利를 수반하며 南北韓間 經濟交流의 擴大 나 아가 점진적인 統合은 窮極的으로 平和的 統一을 指向하나 初期 이러한 相互利益의 交換을 一次的인 趣旨로 삼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先進諸國間 經濟統合에 關한 理論은 J.Viner에 이르러 體系的인 分析이 試圖되었는데 當時 貿易創出 (Trade Creation) 과 貿易轉換 (Trade Diversion)에 依한 정태적 福

註 5) J. S. Nye 前掲書, p. 88 以下

6) M. Haas, International Systems: A Behavioral Approach, Chandler Pub. Co, 1974, p. 210 以下參照.

社效果가 그 中心을 이루었다.⁷⁾

그後 經濟的 效率性的, 增大를 意味하는 正태적 效果는 Meade, Lipsey, Lancaster 및 Johnson 等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批判, 發表되어 왔다.⁸⁾

한편 動態的인 側面에서 살피면 市場의 統合을 통한 大規模의 單一市場 形成은 理論上 規模의 經濟, 外部經濟, 特化的 促進 및 競争力の 強化 等を 實現할 수 있게 한다.⁹⁾ EEC에 依한 經濟 統合에 있어서 역시 會員諸國은 보다 市場의 広域化에 따르는 經濟的 利益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그러나 이러한 傳統的인 理論은 좀더 先進諸國 經濟에 適合하며 後進國間 經濟統合의 效果를 側定하는데 많은 制約이 뒤따르므로 修正 適用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이 最近 學者들에 依하여 指摘되어 오고 있다.

總體的으로 後進諸國間에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域外競争産業(특히 先進國産業)에 對한 差別待遇를 통한 工業化的 促進(Cooper-Massel의 接近), 輸入代替에 따르는 交換節約效果(Linder의 接近) 및 域內市場에 對한 特定保護(Johnson의 接近) 等

註7) The Customs Union Issues, Cein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ew York, 1950.

8) 參考文獻參照.

9) 例로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nd Unwin, 1965, p. 101 以下.

10) 例로 로마條約 2 條.

諸効果에 依하여 經濟開發에 기여한다는 點이 強調되고 있다.¹¹⁾

이들은 共通的으로 經濟統合의 推進에 따르는 諸利益은 一定한 基準下에 會員國間 公平하게 配分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先進諸國의 경우와는 달리 會員國에 따라 産業構造, 比較優位 産業, 또는 競爭力 等 諸側面에서 格차가 크기 때문이다.

事實 이러한 理論은 後進國에서는 大部分의 경우 經濟開發이 工業化와 同意語로 使用되고 있어 國內工業生産費用과 國際市場에서 同種生産物價格間의 比較를 無視하고 있다는 點을 前提로 하고 있다. 即 後進國의 國內輸入代替産業에 對한 극히 보호적인 輸入政策의 實施目的이 工業生産의 增加, 擴張에 있다면 輸入에 比하여 國內生産이 다소 높은 費用을 要한다. 하더라도 消費에 있어서의 損失은 開發의 상징인 生産의 增加로 보상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傳統的인 經濟統合理論이 比較優位理論에 입각하여 貿易創出·轉換을 中心으로 會員國에 對한 經濟的 利益을 論하였던 것에 反하여 後進國의 경우 좀더 域內 開發에 重點을 두어 輸入代替를 통한 域內貿易의 增加 그리고 이에 依한 開發創出 (development creation)의 극대화가 試圖되고 있다.¹²⁾

註 11) 参考文献参照.

12) F. Andic, S. Andic and D. Dosser, A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Allen and Unwin, 1971, p. 25 以下参照.

南北韓間 貿易의 展開, 나아가서 점진적인 經濟統合의 推進에 있어서 역시 이러한 後進國 經濟統合 理論에 입각한 實例에 重點이 두어져야 하며 特히 重化學工業部門에 있어서 合意의 內容에 따라 開發效果가 클 것으로 豫想된다.

3. 經濟統合의 形態

一般的으로 아직까지 알려지고 또 現在 EEC를 비롯한 先進諸國間 또는 中南美 및 아프리카地域에서 推進되고 있는 經濟統合의 形態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綜合된다.

第1 初期단계로서 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을 들 수 있는데 이는 一定 會員諸國間 生産物의 移動에 對한 貿易障壁을 除去하되 各 會員國은 第3國에 對하여 獨自의인 貿易政策을 遂行하는 形態를 말한다.

이는 19世紀 英國의 傳統的인 自由貿易主義에 입각한 概念으로서 戰後 EFTA나 LAFTA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있다.

技術的인 側面에서 볼 때 域內貿易障壁은 점진적으로 철폐되나 域外 第3國에 對하여는 各會員國內 經濟的인 與件에 따라 相異한 輸入制限政策이 실시되므로 貿易의 于廻가 發生할 수 있다.

即 比較적 수입障壁이 낮은 會員國을 通하여 他會員國으로 간접적인 流入이 가능하므로 이를 規制할 수 있는 制度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 보다 發展된 經濟統合의 形態가 關稅同盟 (Customs Union)

으로서 Benelux 關稅同盟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域內 貿易의 自由化는 물론 會員諸國이 域外에 對하여 單一의 同一한 關稅政策을 採擇, 실시하는 경우이다. 關稅同盟 역시 19世紀에 등장한 概念인데 當時 關稅가 有一한 무역정책 수단이었으므로 이러한 名稱이 使用되었다고 생각한다.

自由貿易地域이나 關稅同盟이 그 대상을 生産물에만 局限시키는 데 反하여 共同市場 (Common Market)은 資本 및 勞動과 같은 生産要素에도 擴大된다. 即 特定會員諸國間 生産物은 물론 生産 요소에 대한 單一市場의 設立을 의미하는데 同形態는 2次大戰 이후 國家間 資本 및 勞動 등의 이동이 극히 용이하여 졌으나 國境이라는 制約이加해 지므로 國적에 따른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취지로 탄생되었다.

共同市場이 ECSC의 탄생에서 비롯된 戰後의 概念이라 한다면 經濟同盟 (Economic Union) 역시 EEC의 設立을 契機로 등장한 새로운 形態이다.

2次大戰 以後 市場에 대한 國家의 介入은 한층 중요하게 되었고 各 形態의 經濟政策은 對外 去來에 직, 間接적인 影響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經濟同盟은 會員諸國間 生産물 및 生産 요소의 自由移動은 물론 貿易, 財政 및 金融과 같은 經濟政策 수단의 조정 내지는 統一을 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끝으로 經濟統合의 최종 형태는 完全 經濟同盟 感은 EEC의 實例를 中心으로 한다면 經濟共同體 (Economic Community)이다.

經濟同盟과의 差異는 會員諸國間 經濟政策을 統一 내지는 單一化시키고 나아가 하나의 共同政策을 수립하므로써 前者의 경우와는 달리 會員國의 경제主權이 크게 制約된다는 點이다.

그러나 完全 經濟同盟 或은 經濟共同體가 어떠한 形態로 發展할 것인가는 多분히 政治的인 결정에 依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다. 事實 現在 通貨·經濟同盟의 수행중에 있는 EEC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經濟共同體라 하더라도 共同政策의 對象은 幅이 클 뿐만 아니라 또 質的인 側面에서 보더라도 會員國 經濟主權에 對한 制約 역시 多樣한 強度를 가질 수 있다. 여하간 一國의 經濟와 같은 形態로 發展하려면 政治的 合意를 前提로 하지 않을 수 없다.

以上 다섯가지 相異한 經濟統合의 形態를 열거하였으나 完全히 別個의 獨立的인 기구로 分類되지는 않으며 各 形態가 理想的으로 그 기능을 發揮할 수 있으려면 다음 단계에로의 移轉이 불가피한 하나의 繼續性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함께 各 統合形態가 會員國의 經濟的 與件이나 政策的 調整여하에 따라 部分的으로 制限된 범위內에서 實現될 수도 있으며 또 上述한 順序를 따를 必要없이 편의적으로 推進될 수 있는 靈活性을 갖고 있다는 점도 指摘하고 싶다. 비록 成功的으로 遂行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中南美나 아프리카 諸國間 經濟統合의 例에서도 이러한 變型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南北韓間 機能主義的 統合에 있어서도 구태
여 先進諸國間의 形態가 適合하다고는 보지 않으며 與件에 알맞는
特殊한 模型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Ⅵ. 制約 및 前提

1. 機能主義的 接近의 限界

大部分 統合理論家들의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은 統合의 先決條件, 過程 및 이의 維持와 發展을 위한 條件으로 要約된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南北韓이 機能主義에 입각하여 점진적인 經濟 統合을 시도할 경우 가장 重要的 것은 統合을 가능케 하는 諸條件, 即 統合要因들이 과연 存在하는가의 여부이다.

學者들에 依하여 주장, 발전되어 온 統合要因으로서의 變數를 統合하면 다음과 같다.¹³⁾

- 地理的 近接性 (Proximity)
- 相互間 認識 (Cognitive Proximity)
- 重要政治的 價値 및 制度의 同質性
- 文化的 同質性
- 歷史的 近接性
- 社會福祉 價値에 對한 同質性
- 國內社會發展에 對한 同質性

註 13) 例로 P.E. Jacob and H.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in Jacob and J.V. Toscani, ed., The Integratin of Political Communities, Lippincott, 1964, p. 16 以下: M. Haas, 前掲書, p. 207 以下: K.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North Atlantic Community, in Anchor anthol-

- 體制安定性에 있어서의 同質性
- 軍事力에 있어서의 同質性
- 經濟力에 있어서의 同質性
- 관료제도적 能力에 있어서의 同質性
- 統合 或은 協力經驗
- 구조적 틀 (Structural Frame)
- 機能的 利益
- 相互作用

한편 A. Etzioni 같은 學者는 統合模型을 ① 前 統一段階 (Pre-unification Stage), ② 統一過程 (Unification process), ③ 部分統合 (sectoral integration) 및 ④ 최종단계 (terminal Stage)로 區分하고 統合過程을 促進시키는 諸命題를 설정하였다.¹⁴⁾ 이에 따르면 엘리트 單位, 統合推進體의 同和力 및 強制力, 超國家的 관료기구의 창설, 統合分野의 選擇에 따르는 波及效果 (Spill-over effect) 그리고 統合體와 構成員間 커뮤니케이션 程度 等 17個의 가설이 나열되고 있다.¹⁵⁾

그러나 以上 열거한 諸 統合要因을 南北韓의 경우에 適用시킬 때 問題가 있다. 例로 一 물론 해석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註 13) →ogy, International Political Communities, Doubleday 1961, p. 1 以下 : J. S. Nye, 前揭書, p. 77 以下.

14) Political Unific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 15.

15) 同上, p. 94 以下.

수도 있으나 - 前述한 여러개의 變數나 假設中 몇 個를 除外한다면 統合이 推進될 수 있는 與件이 充分히 성숙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即 統合理論家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障礙 要因中的 하나는 相異한 理念에 바탕을 둔 相反된 政治體制, 나아가 敵對關係이다. 이들의 理論은 同質의, 최소한 비슷한 體制를 前提하고 있어 異質體制間 協力 또는 接近의 可能性, 내지는 妥協의 所産으로서의 體制形態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지고 보면 分斷國에 있어서 統合에 對한 의지나 또 통합을 促進시킬 수 있는 諸 要因은 그 어느 個別 國家들의 경우 보다는도 強하게 作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問題는 異質體制로 因한 接近의 根本的인 差異에 있다.

2. 經濟體制 및 政策基調의 相異

南北韓 分斷 以後 이제껏 累積되어 온 政治, 社會, 文化 等 諸 側面에서의 異質的 내지는 相反되는 要素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相互間 經濟去來를 障礙하는 순수한 經濟的 障礙要因 역시 적지 않다.

우선 前述한 바와 같이 相反되는 經濟體制를 指摘할 수 있는데 代表的인 例의 하나가 價格의 形成이다.

韓國의 경우와는 달리 韓國內에서 價格은 原則적으로 勞動價值說에 따르나 實際로는 價格制定機關이 生産, 分配 및 流通 等を

고려하여 任意的으로 決定한다.¹⁶⁾ 따라서 市場의 需給과는 無關하며 보다는 經濟計劃의 遂行 및 党的 政策運營 수단으로서의 意義을 갖으므로 一般的으로 國際去來에서 前提가 되는 價格과는 判異한 性格을 갖는다.

그러나 東·西獨 또는 東西間 貿易의 例에서도 알 수 있듯이 體制의 運營과 關聯된 相異한 수단 그 自體가 去來를 阻害하는 絶對的인 原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南北韓의 경우 體制를 前提로 한 政策基調의 差異가 보다 根本的인 問題로 登場하고 있다.

韓國의 경우와는 극히 對照的으로 北韓은 当初부터 스탈린式의 所謂 「一國社會主義體制」를 指向하여 왔음은 前述하였거니와 이러한 基調는 中·蘇 등 共產諸國의 經濟원조가 中斷된 60年代 중반 以後 한층 強化되어 왔다.

北韓의 重工業優先의 不均衡成長 政策은 軍需産業의 育성과 閉鎖的 自給體制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

即 南侵準備를 위하여는 軍事的 優位の 유지가 必要했고 이에 따른 鐵鋼 및 石炭工業의 開發을 서둘러 왔는데 北韓은 經濟發展 그自體를 軍事力 強化와 直結시키고 있다.

重工業 위주의 開發政策은 이 以外에도 소위 綜合的인 産業基盤의 確立을 目標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오타키 (Autarky) 體制에

註 16) 北韓經濟辭典, 1卷

로의 指向을 意味한다. 60年代에 들어서서 소련이나 東歐諸國이 코메콘 (COMECON) 設立을 통한 社會主義諸國間 分業의 促進이나 對 西歐 貿易의 增大를 期하므로써, 그리고 中共 역시 華·鄧 體制의 登場以後 大幅的인 對外經濟開放政策의 追求를 通하여 從來의 政策基調에 修正을 加한데 反하여 北韓은 共產圈內에서 계속 更直的인 自給體制를 固守하고 있는 唯一한 例外的인 경우에 屬한다.

國際的인 與件의 變化는 물론 經濟的 效率性을 全히 도의시한 北韓의 이러한 閉鎖的 政策基調는 70年代 中盤 外債償還不能이라 는 최악의 國際收支 狀態를 自招하였으며 오늘날 經濟침체의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一 물론 政治, 軍事的인 考慮와 直接 關聯이 있으나 一 北韓이 現在 当面하고 있는 經濟困難을 脫皮하기 위해서라도 國際分業을 통한 經濟的 利益에 着眼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政策基調의 轉換은 南北韓 間 經濟交流의 開始를 可能케 하는 前提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3. 政治的 前提

南北韓 接近에 있어서 가장 큰 特徵中의 하나는 北韓側의 立場을 反映하는 政治的 要因이 무엇보다도 強하게 支配하여 왔다는 點이다.

韓國側은 70年 朴大統領의 8.15 선언을 계기로 점진적, 기능적

그리고 단계적 南北韓 接近을 提案하였으며 그 後 政治面에서는 물론 非政治的 諸分野에 있어서도 協力 方法을 具體적으로 提示해 왔다.

經濟面에 局限시킨다면 77年 1月 12日 朴大統領은 年頭記者會見에서 「人道的 側面에서 對 北傀 食糧援助 提供용의」를 밝혔으며 나아가 78年 第2의 6.23 선언을 통하여 南北韓間 經濟交流의 開始를 提議하였다. 特히 南北韓間 經濟去來의 推進에 關한 提案은 여러가지 意義를 갖는데 한마디로 70年代 初 以後 韓國이 추구하여 온 經濟分離 基調의 代表的인 表現이라고도 할 수 있다.

現在 國內外的 諸 與件이나 淸양 当局의 立場으로 미루어 政治的 接近이 困難하다 하더라도 經濟的 實利를 바탕으로 兩地域間 協力の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는 立場이다.

南北韓間 經濟交流 自體의 窮極的인 目標가 政治的 統一에 있음은 再言의 餘지가 없다. 그러나 相反되는 兩體制의 接近을 위한 先決條件들이 하나도 解決되지 않은 狀態에서 統一이란 생각할 수 없을 때 經濟去來의 開始 → 非政治部門에서의 協力 → 協力の 強化 및 擴大 → 部門別 統合 → 政治的 對話의 開始 → 政治部門에서의 協力 等の 公式을 擇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北韓은 始終一貫 「政治優位」라는 更直的 그리고 閉鎖的 立場을 固守하여 왔다.¹⁷⁾ 政治的 統一이 무엇보다도 重要

註 17) 會談事務局, 北韓의 統一提案內容別 綜合, 南北對話基本資料, 1980.2. 參照.

하며 이를 前提로 하지 않는 限 南北韓間 어떠한 協商도 無意味하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卽 經濟를 비롯한 非政治的 諸分野에 있어서 各 形態의 協力도 結局 政治的 統一問題로 귀착되므로 근본적인 原則에 關하여 우선적으로 托의할 必要가 있다는 자세이다.

54年 「제네바」會議의 提議 以來 經濟交流에 關한 提案이 屢次 登場하여 왔으나 具體적인 內容이 없는 政治的 口號에 그치던가 아니면 「代表者 會議」 또는 「聯邦制」案과 같은 政治的 意圖를 併行시키므로써 事實上 큰 意味를 갖지 못하였다.

南北韓間의 立場을 前述한 바와 같이 어떤 意味에서는 40年代末 西歐內 機能主義 對 聯邦主義의 對立에도 比較할 수 있으나 問題는 當時와는 달리 對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데 있다.

兩側 主張의 接近에 있어서 北韓側이 妥協을 前提로 實施 可能한 제안을 하지 않는 以上 協商은 事實上 進展될 수 없다.

以上 간단히 살핀 바와 같이 兩側의 주장이 平行線을 지속하는 限 體制의 接近을 의미하는 政治協商은 事實上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또 하등의 意義도 없다. 그러나 經濟的 接近 역시 政治的 協議없이 는 이루어 질 수 없다. 卽 經濟의 非政治化는 政治的 決定을 前提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經濟去來의 推進을 理念體 制의 分離할 수 있는 政治的 制度의 保障이 必要하다.

이러한 意味에서 東北亞內 強大國間 多邊的 關係改善¹⁸⁾ 美國의 中裁를 통한 南北韓 接觸¹⁹⁾ 및 外觀上 北韓의 態度變化²⁰⁾ 等 最近 一連의 事態進展은 이러한 非政治的 諸分野에서의 對話, 나아가 協商의 推進을 위한 政治的 前提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註 18) 화·등體制, 그後 超紫陽 體制에 依한 對外開放政策의 追求 및 美·中共 그리고 日·中共間 政治, 經濟關係改善.

19) 79年 6月 카터 大統領의 訪韓을 契機로 發表된 韓美共同立場.

20) S. 솔라즈美下院議員의 80年 7月 北韓訪問을 契機로 金日成은 조건이 없이 南北韓貿易을 希望했다고 전하여진다.

Ⅶ. 經濟交流의 方向 (模型)

1. 趣旨

以上 南北韓間 經濟去來의 必要性, 이에 따르는 利點, 制約 및 前提 等を 살폈거니와 機能主義的 接近 自體의 窮極的인 趣旨가 한반도內 平和의 定着, 社會的 福祉의 增大, 나아가 平和的 統一에 있음은 再言의 餘지가 없다. 韓國의 基本的인 政策基調가 이와 一致함은 물론 北韓도 最小限 표면적으로 平和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原則적으로 南北韓은 合意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事實 반드시 政治體制의 接近에 關한 論議를 前提로 하여야만 經濟交流의 開始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兩獨間 또는 東西間 經濟協力 및 貿易去來에서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經濟統合이 一定단계에 이르면 政治的 協力 내지는 政治同盟이 論議되지 않을 수 없으며 EEC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條件이 充足되지 않는 限 事實上 障壁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非政治的 次元에서 經濟去來를 開始, 強化할 수 있는 可能性 또한 否認할 수 없으며 더구나 政治統合을 前提로 한 協商이 何等의 進展을 볼 수 없는 南北韓의 경우 이를 위한 보다 우회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接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國內外的 與件의 變化, 꾸준한 대화를 통한 妥協의 모색, 兩地域內 政治的 發展 및

國民大多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體制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질 때 까지 모든 政治的 接觸은 오히려 經濟統合의 추진에 그 취지가 두어져야 한다.

2. 經濟的 接近의 形態

南北韓間 經濟去來는 EEC의 例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先進諸國間 適用, 發展되어 온 機能主義的 接近 模型과는 달리 獨特한 (Sui generis) 形態를 取하지 않을 수 없다.

重要한 理由로서 첫째, 史上 最初로 異質體制間 經濟統合을 시도하는데 따르는 制限 위험 및 부작용을 除去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相反되는 理念以外에도 前述한 바와 같이 相異한 經濟體制로 因하여 短期間에 特惠地域 → 自由貿易地域 → 關稅同盟 → 共同市場 → 經濟同盟의 順序로 發展시키는 경우 오히려 市場교란과 經濟秩序의 破壞를 야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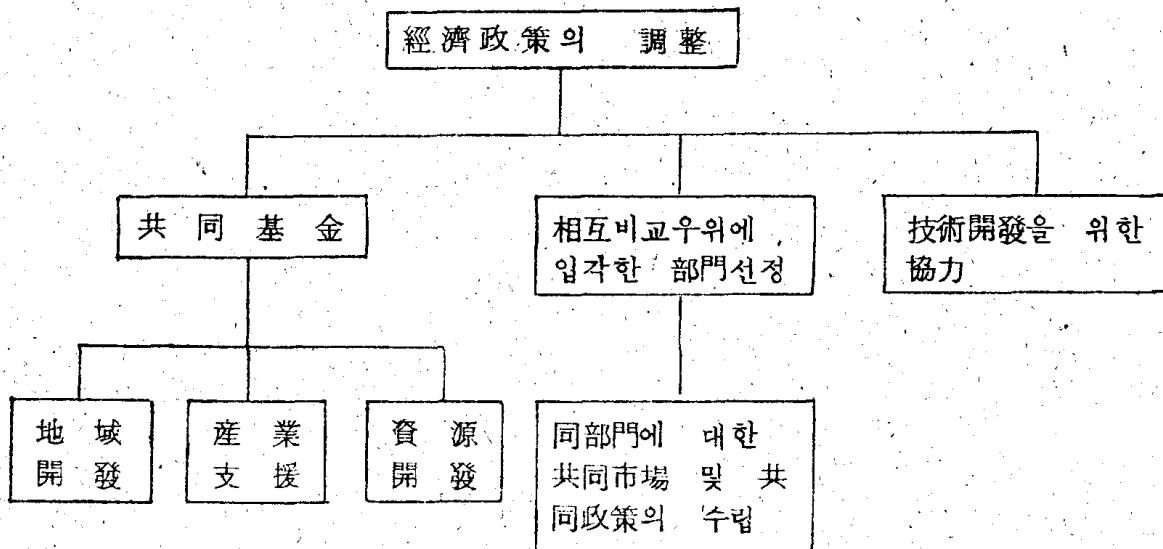
둘째, 兩地域이 特殊한 經濟的 여건下에 있으며, 特히 多小의 後進的인 要素를 다같이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例로 經濟開發計劃의 遂行, 갓가지 形態의 市場歪曲 (distortions), 各種의 政府支援策 그리고 物價, 通貨가치의 不安등 許多하다.

끝으로 第1章에서도 간단히 살핀 바와 같이 兩地域間 產業構造 및 競爭力 또는 技術面에서 顯격한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部門別로 크게 補完關係를 갖고 있다. 이러한 狀態에서 全般的인 市場統合의 推進은 一方에 依한 他方의 市場

支配 또는 經濟的 利益配分에 있어서의 不均衡과 같은 逆機能을 招來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때 理想的인 形態는 南北韓間 經濟的 與件을 고려한, 特히 經濟開發計劃 및 政策遂行의 雙方間 調整을 통한 合意的 分業(agreed specialization)에 입각하여, 共同市場 및 經濟同盟을 部門別로 同時에 推進하는 內容을 갖추어야 한다.

그 以外 共同基金의 設置를 通하여 地域開發, 産業支援 및 資源開發에 있어서 協力을 期할 수 있으며 또 技術情報의 交換 또는 技術交流를 도모할 수도 있다. 以上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各단계의 作業이 成功的으로 遂行되면 이를 점차 他 部門으로 擴大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初期 兩地域內 市場攪亂, 特定産業保護 및 국제수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保護條項 (safeguard clause) 을 설치 한 후 統合의 運營에 따라 이를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3. 단계별 接近

1) 原則

兩地域間 經濟交流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原則은 相互互惠 (reciprocity), 即 實質的인 동등대우로서 이에 따르는 經濟的 利益이나 福祉가 형평에 입각하여 配分되어야 한다. 特히 經濟統合의 추진 過程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合意的 分業에 입각하되 「南北型」의 수직分業보다는 先進國間 貿易形態인 水平分業의 追求가 兩側에 依한 妥協의 여지가 크다. 即 同一産業內 小部門別로 兩地域의 産業立地 및 比較優位 등을 고려하여 開發創出의 效果를 最大限 실현할 수 있도록 對象部門을 選定하여야 할 것이다.

一方의 우세한 工業力이 他方을 支配하는 현상을 초래할 때 經濟的 형평은 깨어지고 妥協은 이루어질 수 없다.

2) 第1 단계 : 經濟交流의 開始 및 擴大 — 政策調整期

政治的 前提가 解決되고 豫備協商이 成功的으로 수행되어 經濟去來가 開始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第1 단계 作業으로서 決濟協定 (Payments agreement) 의 締結이 必要하다.

이 期間은 一種의 過渡期間으로서 점진적인 經濟去來의 擴大와

함께 經濟政策에 關한 調整이 推進되므로써 機能主義的 接近에 依한 政治, 軍事的 協力の 展望까지를 豫測케 하는 重要한 政治的 意義를 갖는다. 이 단계의 成功的인 發展 如何는 곧 向後 南北韓間 諸分野에 있어서 協商의 成敗를 가름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一般的으로 兩次大戰間 유럽內에서 行해졌으며 그리고 兩獨間 貿易도 清算協定 (Clearing agreement)의 例를 따르고 있는데 ²¹⁾ 이보다 광범위한 概念인 결제협정을 南北韓 經濟·貿易去來에 適用시키다면 몇가지 利點을 갖고 있다.

우선 相異한 체제로 因하여 兩當局 管理下에 貿易이 進行될 수 밖에 없으며 또 各去來마다 決済의 必要가 없으므로 費用이 절감될 수 있다는 長點 以外에도 一方의 심한 국제수지 역조에 따르는 부담을 輕減시킬 수 있다는 點을 指摘하고 싶다. 即 이에 따라 同協定內 雙方의 中央銀行內에 清算計定이 설치되고 一定 信用限度 (Swing credit)를 설정하므로써 低利의 貸付가 可能하다. 단지 무역역조가 이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限하여 兩側이 合意한 通貨로 一定期間 後 결제하면 된다. 더 나아가 經濟的 形평을 고려한다면 同초과분을 逆調國內 必要한 商品의

註 21) 국토통일원, 東西獨經濟交流에 關한 研究, 국통조 76-12-76 : 同, 東西獨 各種交流와 關連된 諸問題 및 해결실태, 국통정 78-12-1487 外 多數參照 .

구입 또는 資源開發을 비롯한 經濟協力에 使用할 수도 있다는 點에서 이러한 類의 協定은 상당한 신축성을 갖는다.

國交樹立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中央銀行間 협정의 체결로 充分하며 결제단위는 현재 국제통화의 역할을 擔當하고 있는 SDR (特別引出權)을 使用할 수 있다. 그 以外 同協定은 貿易對象品目, 價格, 決済條件 및 方式 等에 關한 具體的인 수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初期 兩地域內 需給條件 또는 對外輸出構造를 고려하여 去來對象品目を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 北韓의 輸出構造가 반드시 比較優位 産業을 反映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그리고 水平分業의 原則 및 産業政策의 調整이라는 次元에서 相互 輸出品目에 關한 合意가 別途로 이루어져야 한다.

2) 第2 단계 : 에너지 鋼鐵共同體

第1 단계에서 貿易去來가 원만히 發展되고 또 政治的 合意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第2 단계에서의 理想的인 經濟協力 形態는 그 自體가 한반도內 平和의 定着에 기여할 수 있는 屬性을 內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觀點에서 南北韓 에너지 鐵鋼共同體의 수립은 經濟的인 利益을 물론 政治, 軍事的으로도 큰 意義를 갖는다.

事實 第1 단계와 第2 단계 間에는 현격한 質的 差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지도 모른다. 前者가 一般的으로 東西貿易의 性格을 띄는데 反하여 後者の 경우 相異한 經濟

體制間的 調整 내지는 接近 그리고 平和的 統一에 對한 意志를 前提로 하며 또 이러한 단계의 移轉이 없이 政治的 統合이란 事의 不可能하게 보인다.

에너지 鋼鐵共同體의 設立은 그 機能을 實質的으로 遂行할 수 있게 하는 諸般 制度的 保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即 에너지 및 鋼鐵品目的 生産量 製品形態, 最終形態, 流通過程, 價格 및 輸出入에 關한 情報을 相互交換할 수 있어야 하며 必要에 따라서는 南北韓間 相互 감시하고 調整을 期해야 한다. 또 同製品의 域內 流通이 自由로워야 함은 물론 可能하다면 同部門과 關聯된 資本, 技術 및 勞動의 自由移動에도 保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機能과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中樞實務機關인 一種의 管理委員會의 設置가 要求되며 重要 決定은 關係長官會議에서 取해져야 한다.

同共同體의 수립이 政治, 軍事的으로는 重武器生産에 關한 정보교환 내지는 규제를 通하여 戰爭의 防止에 그 趣旨가 있으나 經濟的인 側面에서도規模의 經濟效果를 얻는다는 큰 利點을 갖고 있다.

兩地域이 다같이 外國으로 부터의 原油輸入에 依存하므로 共同儲蓄制를 비롯한 共同政策을 수립할 수 있으며 南北韓間 鋼鐵 및 石炭製品의 교환, 原子에너지의 平和的 利用 및 技術協力을 通한 代替에너지의 開發 등 許多한 經濟的 利益을 추구할 수 있다.

3) 第3 단계 : 重化學工業部門에 관한 共同市場

에너지 鋼鐵共同體가 樹立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에로의 移行은 용이하다고 보며 이期間 共同市場의 對상을 우선 重化學工業部門으로 局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兩地域間 體制나 政策基調의 差異로 因하여 現격한 産業構造의 差異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重化學工業部門에 있어서는 相互 比較優位에 입각하여 特化를 促進시킬 수 있는 餘地가 比較的 크기 때문이다. 또 다같이 重化學工業의 深化단계에 있어(비록 部門別로는 크게 差異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規模의 經濟 效果라는 利益을 누릴 수도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前述한 바 兩地域間 經濟政策에 관한 協議 및 調整이 本格化하게 되며, 機械, 電子, 化學工業 또는 一次産業 등 品目別로 점차 共同市場을 擴大시키고 域內 流通의 運營에 따라 對外共同政策도 採擇할 수 있다. 그 以外 共同基金의 設置를 통한 地域開發, 特定産業에 對한 支援 및 資源開發도 推進할 수 있으며 部門別로 技術協力도 可能할 것이다.

4) 第4 단계 : 輕工業部門 및 農産物에 관한 共同市場

南北韓의 産業構造 및 競爭力에 있어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部門이 바로 輕工業部門이며 農業部門의 경우 이에 비하여 特殊한 社會·經濟政策的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따라서 兩地域內 需給構造 및 産業의 競爭力 등을 고려하여 輕工業部門과 農業部門에 관한 共同市場의 수립은 最後 단계로 미

를 必要가 있다.

5) 制約的 接近

經濟統合의 推進過程에서 이를 擔當해야 할 機關이 創設되어야 함은 再言의 餘지가 없는데 必要한 最小限의 機關으로서 閣僚會議, 管理委員會 및 諮問會議를 들 수 있다.

각료회의는 最高會議機關으로서 南北韓 關係長官으로 구성된다.

兩側의 合意下에 相互利益을 調整하는 同會議에서는 주로 政策的인 重要 決定만이 取해진다.

管理委員會는 각료회의에서 委任받은 業務를 執行하며 南北韓 關係 實務, 責任者들로 구성된다. 原則적으로 韓半島의 利益이라는 中立的 次元에서 業務를 處理한다.

兩側의 民間人들로 구성되는 자문회의는 統合過程에서 각 해당 부문에 관한 必要한 意見 및 勸告를 提供한다. 同會議는 學者, 經濟人, 消費者 및 勞動者 代表들로 구성된다.

南北韓 社會体制의 變化와 再統合

研究執筆責任： 高 永 復

(略歷) 서울大 社会学科卒

서울大 文学博士

現서울大 社会学科教授

目 次

要 約	141
英文要約	157
I. 序 言	163
II. 社会体制의 概念	167
III. 南北韓 社会体制의 異質化	175
IV. 体制的 統合의 誘因	181
V. 社会的 对立과 統合의 過程	187
VI. 南北韓의 社会關係	195
VII. 社会的 統合에의 길	201



要 約

南北韓이 統一을 當爲的인 民族的 課題로 삼고 있으나 武力이나 戰爭에 의한 統一이 現實적으로 不可能하고 道德적으로 容納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南北韓 모두가 平和統一을 追求하고 있다.

그러나 統一方式에 있어서는 南北韓이 모두 相對方 體制가 自己 體制에 融合 容해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相對方 體制에서의 變化可能性이나 그 契機를 期待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統一은 政治적으로 解決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社會體制가 近接하거나 統合可能性이 없으면 民族統一의 課業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現在 南北韓에는 相異한 文化와 政治構造 및 經濟制度를 가지고 있는데 資本主義 對 共產主義, 自由民主主義 對 人民民主主義, 個人主義 對 集團主義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南北韓 社會體制的 差異를 가져온 理由는 첫째로 外來文化의 支配를 들 수 있다. 南韓에서는 美軍文化가 그리고 北韓에서는 蘇聯軍文化가 文化的 主體性을 抑壓하고 絶對的인 基準이 되어 버렸다. 둘째로 政治勢力의 兩極化이다. 特히 6.25는 極端的인 相剋을 가져오고 左右의 政治的 寬容의 試練을 겪지 못하게 하였다. 셋째로 相異한 經濟制度를 들 수 있다. 南韓에서는 市場經濟의 原理下에 部分的으로 統制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採択하였고 北韓에서는 土地와 産業의 國有化 個人商工業의 撤廢 集團農場化等 急進的 社會主義制度로

改革했는데 相異한 生活環境은 人間性을 다르게 變貌시키고 있다.

넷째로 相異한 階層構造를 들 수 있다. 北韓에서는 勞動階級이 支配하고 있고 南韓에서는 中間階級이 優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南韓에서의 福祉社会的 志向과 北韓에서의 共產社会的 志向이 差異를 나타낸 根源이다.

다섯째로 文化的 活活動과 裝置의 差異를 들 수 있고, 여섯째로 社会化政策의 差異를 들 수 있다. 北韓에서는 計劃的 劃一的인 全面統制가 이루어지고 있고 南韓에서는 對立的인 意味에서의 部分的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다.

南北韓 社会体制의 異質化에도 不拘하고 兩体制를 近接시킬 수 있는 共通의 要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民族文化的 背景의 同質性을 들 수 있다. 兩体制에서 傳統文化를 文化的 基礎로서 가지고 있으며 特히 主体的인 것의 強調는 비슷한 文化的 향을 느끼게 한다. 이 共通點은 現在 成人들의 性格속에 보다 잘 나타나 있다. 둘째로 民族成員으로서의 一體感을 들 수 있다. 一體感의 確認은 共通의 言語와 歷史의 共有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民族임을 느끼는 感情은 南北에서 差異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 兩体制의 政策的 目標의 共通性을 들 수 있다. 南北韓에서 모두 統一政策을 先導的으로 이끌어 나가는 指導力의 強力함을 重要な 指導者的 特性으로 評價하고 있다. 넷째로 國際社会에서의 地位의 類似性을 들 수 있다. 微妙한 國際政治的 變化속에서 시달리다 보면 南北韓이 周辺強大國을 外集團으로 묶어서,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섯째로 産業社會로서의 同質성을 들 수 있다. 南北韓에서 急速히 伸張된 經濟力은 集中的 工業化의 影響에 因하다. 南韓의 資本主義가 보다 計劃化되고 北韓의 共產主義가 自由化되면 体制적으로 近接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된다.

南北韓의 社會關係는 現在까지는 對立關係의 持續이었다. 처음은 外勢의 作用에 의한 他律的 對立關係이었고 그것이 점점 既定事實化되어 自主的 對立關係로 變했다. 그리고 지금은 最少한의 힘의 劣勢를 免해 보려는 均衡的 對立關係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의 展望은 相當期間 共存關係가 持續될 것이다. 共存關係란 南北韓이 各己의 体制의 一方的 正當性의 固執을 拋棄하고 UN에도 同時加入이 이루어지는 形態를 말한다. 共存關係는 敵對的 共存關係와 競爭的 共存關係 그리고 和解的 共存關係로 점차적으로 移行될 수 있다. 和解的 共存關係는 統合關係를 形成하는 基礎가 된다.

南北韓의 統合關係는 調整的 統合關係와 變容的 統合關係 그리고 收斂的 統合關係를 생각할 수가 있다. 調整的 統合關係는 어느 하나의 体制的 原理의 主導下에 統合이 進行되는 것이고 變容的 統合關係는 雙方의 体制가 오랜 接觸을 통해 서로 變質되는 가운데서 統合이 이루어지는 形態이다. 收斂的 統合關係는 協商이나 妥協에 의해 어느 理想的인 型을 設定해 놓고 雙方의 体制를 變化시켜 나가는 統合方式이다.

앞으로 어느 形態의 統合이 이루어질 것인지 或은 共存의 段階에 갈 것인지조차 아무도 豫測할 수가 없다. 그러나 南北韓이 偏見을 除去하고 接觸이나 交流를 增進시켜 統一問題에 關한 限 共通의 準拠基準을 갖도록 努力하면 平和的으로 統合을 促進하는 方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SOCIAL CHANGE IN SOUTH AND NORTH KOREA:
ITS IMPACT ON KOREAN UNIFICATION

Koh, Young-bok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blem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volves diversified complexities which may not be disentangled in a purely political way, for political systems on both sides have a self-autonomy to such an extent that their differences could reject political approaches to national unification, including political negotiation by the top political leaders. This implies the necessity of social integration as a precedent to politics. Since political contacts without social proximity are meaningless and political unification without presupposing social integration is hardly realized, national reunification should be searched out in conjunction with a pursuit of possibilities of societal reintegration. In this essay, I shall first examine differences and dissimilarities in social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n, explore some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bringing them into common in the future.

In general, members of a society sharing the same geographical space follow basic, often idiosyncratic, principles for survival of their society which are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next. In this respect, South and North Korea

possess their own economic structure, political institutions and culture, as distinct from the other: capitalism versus communism; liberal democracy versus popular democracy;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Given the same ancestry and identical cultural tradition at least up until 1945, what are the factors that have brought about their differences in the social system? I shall point out six factors among others.

The predominance of foreign culture would be the first one.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American culture was brought into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take-over of American troops, while the same thing happened in the northern half by Russian culture. Koreans were overwhelmed by foreign culture, having been not well prepared for accepting it. It was a "forced" acculturation. In this process, traditional indigenous culture was not able to act against the invader, strenuously nor to take the natural process of cultural disorganization gradually replaced by reintegration on a new basis. In due course, South Koreans became to view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the American way of democracy as a prototype they should follow, while Soviet-type communistic collectivism came to constitute an absolute ideology for North Koreans, never permitting any sort of compromise.

In parallel with the first one, a polarization of

political power can also be noted. An extreme antagonism or irreconcilability between North Korean communism and South Korean anti-communism has perpetuated itself, eventually ending up with an acute polarization of political power which has justified and consolidated contrasting political ideologies incessantly. As a result, differences in mass culture and the way of thinking have been deepened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sides have been further aggravated.

Third, the impact of economic systems--free market system in the South and radical socialist system in the North--on the world views and value orientations of individuals is substantial since in the South economic life is carried out under one's responsibility whereas in the North the state takes care of it.

Fourth, class structure in South Korea differs from that of North Korea. In principle, South Korea has an "open" system of class stratification in the sense that channels of vertical mobility are diversified so that anyone with certain qualifications can move up in the ladder of social hierarchy, whereas North Korea holds a deliberately controlled pseudo-estate system in which routes of social mobility are monolithic, and vertical mobility is possible only if loyalty to the Party and careers as communists meet certain criteria.

Another factor that makes a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is the ownership and function of mass media with cultural activities. The mass media in the North plays a role as mass inculcator, propagandist, demagogue or mass organizer. Only the literary work that is "nationalistic in its form and socialistic in its contents" is permitted to be publicized, crediting loyalty to the Party, people orientation and class consciousness with higher value than artistic merits.

Finally, socialization process is noteworthy. In North Korea a series of socialization agents has internal consistency, from the family to bureaucratic organizations, in such a way that the same logical contents are repeatedly poured onto individuals.

Nevertheless, there exist some possibilities that could bind the two systems together although diversification of the systems would proceed further in the near future. The fact that North and South share the same national culture would help them advance in the direction of reunification and mutual concessions. Just as traditional culture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the South, so does in the process of communization in the North. The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deeply embedded in the family system or family-oriented tradition on both sides, as reflected in filial piety and age-respect. The remnants of traditional culture

could be easily found in the characters of those who were brought up and educated in the prewar period, i.e., those in their 50s and 60s who spent most of their boyhood and adolescence in the same setting.

Closely related to it, "national identity" might be a contributor to locating a communality, through the same ancestry, language and history, although all these factors have been transformed in one way or another since 1945.

South and North Korea established the same policy orientation encompassing national reunification to which the highest policy priority has been always given. Also South and North Korea have similar positions in the world, situated at the crossroad where East and West are confronted, and both of them have struggled to become an industrial society. These factors may be devoted to laying a corner-stone for social integration of the two diametrically opposite systems in the foreseeable future.

It is presumed that the patterns of so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going to change from confrontation to full integration via temporary (or possibly everlasting) coexistence, depending up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peninsula. Unfortunately we have not arrived even at the stage of coexistence.

Confrontation stage itself has been varried from an imposed controntation by super-powers to an independent one in the sence indigenous people may become aware of the inevitability of their confronting situation. Coexistence stage, the symbol of which is a joint participation to the U.N., can be varried from antagonistic to cooperative one.

One can hardly speak to what kind of integration would be open to Koreans after coexistence stages. Is there any specific system as a historical reality that subsumes advantages offered by two individual systems such as capitalism and communism, or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f course, there is no simple and straightforward answer to this question. It is not entirely futile, however, to attempt to find a route to this end since social identification or integration would surely facilitate political unification.

Undoubtedly the way to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sharply outlined, and thus, painstaking efforts must be exected by both parties. For the sake of integration, we must prepare all the feasible preconditions by initiating an economic exchange through trade, economic cooperation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More important, however, is to have a frame of reference for unification agreeable to both sides through frequent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 . 序 言

南北韓이 各己 統治領域을 달리하는 政治權力을 確立한지 30余年의 歲月이 흐르고 있다. 南韓에 自由民主體制가 確立되고 北韓에 共產體制가 들어선 것은 韓半島 住民의 恣意的 決定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美·蘇 兩國의 政治體制의 支援과 그 機能的이라는 國際的 壓力에 起因하는 것이었지만 時間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그것이 內面化되고 日常化되어 多분히 意圖的인 것으로 變貌되어 오고 있다.¹⁾

그러나 南北韓이 決코 統一을 拋棄한 것은 아니고 兩體制 모두가 韓半島의 統一을 當爲的인 民族的 課題로 삼고 있으며 雙方이 모두 自己便의 社會體制의 原理에 立脚한 相對方 體制의 吸收的 統合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武力이나 戰爭에 의한 統合은 現實적으로 達成 可能性이 稀薄하여 어쩌면 自己體制의 破滅을 招來할지도 모르는 冒險的인 要素마저 內包하게 되었다. 統一에의 意志는 強烈하지만 힘에 의한 統一은 어렵기 때문에 平和統一이 南北韓에서 共히 追求되고 있다. 이것을 公式적으로 確認한 것이 1972年의 南北共同聲明이라고 볼 수 있다.²⁾

註 1) 金雲泰編, 韓國政治論, 1976, 特히 第3章 韓國政府形態와 第9章 北韓의 政治過程 參照.

2) 具範謨, 南北共同聲明의 意義, 南北共同聲明 發表 5周年 學術세미나主題論文, 1977.

그러나 南北韓에서 主張하고 있는 平和統一이라는 用語의 裏面에
는 敵對關係가 계속 維持되고 있기 때문에 協商에 의해서 統一이
成事될 수 있는 그러한 可能性은 極히 적다. 南韓에서의 平和的
統一은 漸進的인 統一을 意味하는데 反하여 北韓에서의 平和統一은
戰爭을 통하지 않은 急變的 統一을 固執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統一後의 社会体制에 대해서는 雙方에서 아무런 諒約이 없다. 아
마도 北韓側으로서는 韓半島가 當然히 共產体制化할 것으로 豫期하
고 있을 것이고 南韓側으로서는 적어도 自由民主体制의 基本原理에
違背되는 方向의 統一에는 応할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³⁾
이런 戢然한 差異點을 南北韓이 서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平和的 統一을 위한 接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分斷
이라는 現實과 統一이라는 當爲性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不均衡 즉
當爲性的 要求의 發動을 抑制하기 힘든 壓力으로 느끼고 있기 때
문이다.⁴⁾ 그러면서 相對方側의 變化를 期待하고 接近할 수 있는
契機와 機會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의 統一은 政治的인 問題만으로서는 解決되기 어려
운 多樣性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政治指導者의 協商만으로

註 3) 尹謹植, 統一外交政策, 1976, (金雲泰編, 韓國政治論 第8章)

4) 黃性模, 南北對話의 民族的 寄與, 1977.

統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만큼 사회가 單純하지 않으며 兩體制의 差異點이 政治를 拒否할 수 있을 정도의 自律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南北韓의 統一이 社会的 統合의 水準에서 檢討되지 않고서는 政治的 協商을 成功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社会的 接近이 없는 곳에 政治的 協商은 無意味하여 社会的 統合을 前提하지 않는 政治的 統一은 實現되기 힘들며 따라서 南北韓의 統一課業은 南北韓의 社会体制의 再結合의 可能性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 解決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統一問題는 分明히 政治問題이긴 하다. 그리고 政治的 權力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룩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긴 하다. 그러나 社会的 準備性이 없는 곳에서 政治的으로 아무리 論議를 해 보아도 그것은 實現性이 稀薄한 것이고 또 反對로 社会的 準備性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政治權力이 싫어해도 統一로의 길을 扞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의 統一論議는 이제 社会学的 關心에서 새롭게 問題를 整理해야 할 時期에 이른 것 같다.

統一과 關聯된 社会学的 接近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難點은 그것이 우리의 問題이기 때문에 科学的 中立性이나 第三者的 立場을 取하기 어렵다는 點이고 現實적으로 存在하는 政治的 制約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에 있다. 그리고 또 어떤 未來的 展望을 진단하더라도 北韓社会的 成員들에 對해 그것을 要求할 수

없다는 애로가 있다. 따라서 雙方의 体制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限定된 領域에서만 問題를 다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本稿는 北韓社会를 하나의 実体로 認定하는 前提에서 主로 社会学的 概念을 活用하여 南北韓의 社会体制의 差異點을 理解하고 体制的 統合의 可能性을 点檢하려는 것이다.

Ⅱ. 社会体制의 概念

社会的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社会体制라는 말의 뜻을 살펴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원래 社会라는 말에는 広義의 概念과 狹意의 概念이 있는데 広義의 뜻으로는 政治 經濟 法을 包含한 人間共同生活의 場 全体를 意味하고 狹意로서는 政治 經濟 法을 除外한 나머지 部分을 意味한다. 즉 政治와 經濟와 獨立한 獨自의 體系를 가진 別途의 實體로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社会体制라고 할 때는 두가지 概念이 있을 수 있다. 即 狹意의 경우는 集團에 있어서의 社会的 關係의 統合體系를 意味하게 되고⁵⁾ 広義의 경우는 人間社会의 歴史的 發展속에서 社会的 現象이 一定의 原理에 의해 支配되고 있는 歴史的 統合體系를 意味한다. 前者의 경우는 個人들의 社会的 關係가 중요시되고 後者의 경우에는 歴史的 發展段階가 強調된다.⁶⁾ 흔히 前者를 體系라 하고 後者를 体制라 하여 서로 區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兩者를 서로 無關係한 것으로 分離하지 말고 前者를 集團의 原理로 後者를 全体社会의 原理로 보아 兩者의 相互關聯性을 結合시키는

註 5) T. 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1937.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1949.

6) K. Mark, Das Kapital, 1867, Vol.I.

뜻으로 보고자 한다.⁷⁾

사회란 社會關係에 의해서 成立하는 것이다. 社會關係란 사람들의 相互作用에 의해 맺어지는 關係이고 相互作用이란 사람들의 行為는 一定한 社會關係속에서 或은 그것을 媒介하여 이루어지고 社會關係는 또한 社會集團으로 結束되기도 하고 社會集團內的 現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行為, 여러가지 社會關係, 社會集團의 複合的인 構造가 特定の 原理에 의해 存在하고 相互作用하며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統合体가 곧 社會體制인 것이다.

우리가 資本主義體制나 社會主義體制나 말할 때는 資本主義的 經濟原理나 或은 社會主義的 經濟原理에 의해 사람들의 行為나 여러가지 社會關係가 이루어지고 또한 各種의 社會集團이 特定の 體制原理에 의해 結合되고 있는 하나의 全体 社會의 體系를 말한다. 즉 資本主義體制라 할 때는 資本의 利潤追求라는 原理가 根源적으로 支配하고 있고 그 原理가 다른 社會的 行為를 規制하며 여러가지 人間의 集團生活속에 침투하여 各種 社會集團의 內容을 規定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意味에서 資本의 利潤追求는 資本主義 社會의 體制原理가 된다. 그리고 社會主義體制하면 生産手段의 共同所有에 따른 勞動이라는 支配原理가 있어서 여러가지 制度의 集團이 直接 間接으로 統制되고 사람들의 모든 活動이 이 原理에

註7) 이 點에서는 G. Garitch (La vocation Actuelle de la Sociologie, 1963)의 見解가 參考가 된다.

의해 規制받고 있다.

唯物史觀에 의하면 資本主義 社会体制의 自体崩壞의 結果가 社会主義 社会体制에로 移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⁸⁾ 즉 資本主義 体制의 生成 成長 成熟 老衰의 段階의 끝이 社会主義体制로 연결되는 歷史的 系列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社会体制란 歷史性을 拾象하더라도 存立할 수가 있다. 現實的으로 두 体制가 共存하고 競合하는 경우는 勿論이고 社会主義陣營에서 豫期하듯이 資本主義社会가 쉽사리 滅亡하지 않고 도리어 自体改革을 꾀하고 生氣를 되찾는 경우가 생기고 보면⁹⁾ 資本主義와 社会主義는 歷史的인 先後關係에서 理解되는 것 보다는 同格으로 놓고 比較 对照되는 하나의 社会現象으로 보아야 할 必要가 생긴다. 이것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 社会學的 觀點이고 比較社会學的 觀點은 이 점에서 특히 有用한 것이다.

比較概念으로서의 社会体制는 社会構成의 特定類型을 말한다. 特定の 地域에 모여 사는 構成員들이 어떤 基本原理에 따라서 各己의 目的을 追求하고 目的을 追求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各種 制度나 集團을 갖추고 共同으로 生産管理하는 生活單位의 類型을 말

註8)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1967, 第3編 革命과 独裁의 이데올로기 参照.

9) 社会学에서 論議的 있는 新中間層論은 이 事實을 說明하는 重要한 根拠가 되고 있다. J. Burnham, R. Centers, L. Corey 등을 이 論議에 寄与하고 있는 代表的 學者들이다.

한다. 따라서 社会体制에는 原理나 目的과 關聯된 価値体系가 있고 手段的 管理에 關한 規範体系가 있고 生活用具나 資源에 關聯된 生産体系가 있다.¹⁰⁾ 価値体系를 흔히 文化나 意識으로 表現하고 規範体系를 政治나 法이 다루고 있고 生産体系를 經濟의 領域으로 나눈다.

唯物史觀에는 生産体系를 下部構造라 하여 社会体制에 있어서의 決定的인 原動力으로 重要視한다. 그러나 価値体系나 規範体系도 決定力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것들은 相互規定的이고 相互獨立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가지 体系는 分離해서 볼 수 있다.

資本主義 社会体制과 社会主義 社会体制을 比較하는 基準은 体制을 理解하는 準拠들과도 關係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음에 体制의 基本原理로서의 生産体系, 規範体系로서의 社会關係, 価値体系로서의 社会意識의 次元에서 兩体制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

1. 生産体系

資本主義社会와 社会主義社会의 基本原理는 經濟的 生産樣式의 差에서 찾아진다. 레이몽-아롱은 資本主義 經濟体制의 特徵을 다음의 네가지로 要約하고 있다. ① 資本主義 經濟는 所有의 形態 特히 商業 및 農業에 있어서의 個人的 所有와 個人企業의

註10) N. Smelser & S.M. Lipset, Social Structure and Mobility in Economic Development, 1966. p.4. 參照.

維持에 있어서 多樣性を 보이고 있다. ② 資本主義體制은 國民經濟의 世界經濟와의 根源的인 斷絶이 있으면 成立하기 어려우며 對外貿易의 要求에 따라야 한다. ③ 消費者들이 꾸준히 國民資源의 分配에 대하여 支配的인 影響을 미친다. ④ 勞動組合이 國家管理가 아니다. 11)

蘇聯의 經濟學教科書에 의하면 資本主義와의 差異를 考慮한 社會主義의 基本的인 特徵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指摘되고 있다. ① 社會主義 經濟制度下에서는 生産手段이 社會的 所有이므로 勞動生産物이 勤勞者의 것이다. ② 社會主義 經濟制度는 人間이 人間을 搾取하는 일이 없고 社會全體의 物質的 欲望과 文化的 欲望을 最大限으로 充足하기 위해 生産이 行해진다. ③ 社會主義生産은 計劃性을 통해 發展한다. 그것은 恐慌과 失業을 防止하는 가장 確實한 保障이다. ④ 社會主義下에서는 各己의 勤勞者가 자기의 勞動의 質과 量에 따라 財貨를 얻고 國民所得의 分配는 社會의 富를 늘리기 위해 行해진다. ⑤ 社會主義制度下에서는 勞動者와 農民과 인테리가 자기를 爲해 社會全體의 幸福을 위해 일한다. 12)

물론 이 규정은 蘇聯社會的 立場에서 指摘된 것이기 때문에 價値判斷이 들어 있으나 그 윤곽을 알 수 있게 한다. 要件대

註 11) R. Aron, Dix-huit Lecons sur la Societe Industrielle, 1962, chap.7.

12) 蘇聯科學院 經濟學研究所, 經濟學教科書, pp.674-675, 1955.
(日訳版)

兩体制의 가장 基本的인 差異는 生産手段의 私的所有와 社会的 所有의 差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2. 規範体系

現代 社会에서는 社会的 擴大와 分化 그리고 集團의 巨大化에 따라 極히 複雜한 社会關係가 形成된다. 集團의 形成이나 集團間의 關係가 自然發生的인 過程에 放任되고 있는 資本主義社会에서는 地域的 共同生活의 單位가 解体하고 個人이 그 規制로부터 벗어나 여러가지 多様な 集團이나 組織이 自生的으로 분출하여 複雜하게 서로 얽히게 된다. 個人들은 많은 集團이나 組織으로 分屬하게 되고 어느 集團도 個人의 힘을 전부 吸收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討論과 說得의 政治가 成立한다. 自由民主主義는 基本的으로 이 原則에 따른다. 自由民主主義의 精隨는 議會主義에 集結되고 있으며 自由로운 意思表示와 公開的인 討論 그리고 政策化에의 試圖가 끊임없이 展開된다.¹³⁾

그러나 社會主義体制下에서는 規範의 組織化가 이루어진다. 廣範하고도 大衆的인 組織이 社会底辺으로 擴大하고 議會政治가 止揚되고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分立도 그다지 問題視되지 않는다. 政策은 行政機關을 통해 下向式으로 執行되고 民意는 大衆組織을

註 13) P. Hollander, American and Soviet Society, 1969. chap I.

통해 上向的으로 吸收되고 大衆의 前衛로서 간주되는 党이 그것을 지도하고 大衆路線을 確保하게 된다.¹⁴⁾ 따라서 規範體系가 劃一化되고 統合되고 規制된다. 要컨대 資本主義社會는 個人 中心的 規範體系를 가지고 있고 社會主義社會는 集團中心的 規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價值體系

資本主義社會와 社會主義社會의 價值體系의 差異는 生産體系와 規範體系의 差異와 關聯되어 있다. 蘇聯에서 發刊된 「史的唯物論」에서는 그것이 다음과 같이 對照 列擧되고 있다.¹⁵⁾ ① 이데올로기의 科學的 性格과 虛偽的 性格 ② 이데올로기의 革命性과 保守性 ③ 現實에 대한 能動的 創造的 態도와 受動的 逃避的 態度 ④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에 대한 形式的인 民主主義 ⑤ 友愛的 協力 및 國際主義와 民族의 偏見 및 排他主義 ⑥ 體制에의 矜持와 소비에트의 愛國心에 대하여 民族中心的 國粹主義 ⑦ 平和主義에 대한 植民主義와 侵略主義 ⑧ 휴머니즘과 集團主義에 대하여 利己主義와 競爭心 ⑨ 活氣·樂天主義에 대하여 悲觀主義와 未來에 대한 恐怖 ⑩ 勞動의 尊重, 社會主義的 所有에의 尊敬 社會主義的

註14) J. Towster, Political Power in the U.S.S.R., 1948.

15) 콘스탄티노프, 史的唯物論, 日訳版 1955, 第3分冊, p.180.

家族의 擁護에 대하여 나타, 탐욕, 立身出世主義 등이다. 물론 이것은 社會主義的 觀点에서 比較된 것이기에 資本主義的 價値를 否定的으로만 보고 있다. 社會主義社會에서도 勞動에 대하여 不誠實한 態度나 社會主義的 所有에 대한 無關心이나 非社會主義的 態度도 나오고 있고 民族的 偏見 官僚主義 宗教的 信仰心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때로는 더 強하게 發動하는 수도 있다. 또한 社會主義社會의 社會意識이나 社會的 性格도 史的唯物論者의 否定에도 不拘하고 階級的 利害를 代辯하고 이데올로기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點도 널리 指摘되고 있다.¹⁶⁾

資本主義社會와 社會主義社會의 價値體系의 差異는 多元性과 一元性의 差異로 특징지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前者에서는 多樣的 價値가 容納되고 있는데 反하여 後者에서는 一貫적이고 體系화된 價値가 支配하도록 誘導되고 있다.

以上の 概念들을 머리에 두고 우리는 다음에 南北韓社會의 問題들을 比較해 보기로 하자.

註 16) K.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1936. chap. II.
參照.

Ⅲ. 南北韓社会体制의 異質化

어느 社会를 막론하고 그 社会의 生産体系와 規範体系와 그리고 價値体系는 相互間에 密接한 關係가 있고 各己 社会의 特殊性에 따라 그 結合의 樣相이 다르다. 南北韓에도 各己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흔히 우리는 南北韓에는 各己 相異한 文化와 政治 構造와 그리고 經濟制度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 對 共產主義로 对照되고 있고 政治的으로는 自由民主主義 對 人民民主主義로 區別되고 있고 文化的으로는 個人主義 對 集團主義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差異는 결국 生産體系 規範體系 價値體系의 差異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南北韓 社会體制의 差異를 가져온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그것을 다음에 考察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外来文化의 支配를 들 수 있다. 8.15後 南北韓에서 美軍과 蘇聯軍의 進駐는 南韓에는 美国文化가 浸透하고 北韓에는 蘇聯文化가 支配하는 決定的인 契機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獨立에의 執着은 強했지만 日帝植民地下에서 日本文化에 의한 無慈悲한 民族文化의 弱体化로 文化的 主体性を 堅持하지 못하고 解放後 物 밑듯이 들어닥친 外来文化에 對抗하고 取捨選擇할 分別力과 叡智를 準備하지 못 하였다. 南北韓 共히 外来文化의 受容은 그것이 應당 겪어야 할 在來文化와의 衝突없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在來文化의 深刻한 解体나 再構成의 契機를 부여함이 없이 一方的으로 傳統文化에 外来文化를 뒤덮어 씌우는 文化的 強圧作用이 展開되었

다. 그리하여南韓에서는 美國的인 資本主義的 自由民主主義 文化를 理想視하게 되고 北韓에서는 蘇聯적인 共產主義的 集團主義文化를 絶對視하는 풍토를 자아내고 말았다.¹⁷⁾

둘째로 政治勢力의 兩極化를 들 수 있다. 南北韓에서의 独自の 建國과 그리고 6.25 動亂은 南韓에서는 右派政治勢力을 그리고 北韓에서는 左派政治勢力을 集結하는 兩分現象을 빚어내어 相互間에 政治的 免疫性을 길러내지 못하고 敵對關係를 持續한 政治權力의 激烈한 分極化와 尖銳化된 鬪爭을 招來하였으며 北韓의 赤化政策에 대해 南韓에서는 反共政策으로 맞서는 極端的인 相剋과 對立의 惡循環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妥協하기 어려운 정도로 兩極化된 政治勢力의 分化는 對立的 政治的 「이데올로기」를 合理化시켰고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支配를 통한 生活文化의 差異를 深化시켰으며 各己 다른 思考體系를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 우리 나라에서 解放後 政治勢力이 妥協하는 政治的 訓練을 겪지 못한 것은 매우 不幸한 일이었다. 보다 上位의 單位속에서 政治的 選良들이 競爭한 것이 아니라 政治的 分派를 敵對視하고 外集團視하는 風土를 造成하였다. 政治的 不寬容의 폐습을 야기하고 말았다.

세째로 相異한 經濟制度의 確立의 影響을 들 수 있다. 南韓에서는 市場經濟體制의 原理下에 部分的으로 統制되고 計劃된 資本主

註 17) 平和統一研究所, 統一政策, 1977, 第3卷第4号중 南北韓 異質化의 現況 pp. 188f.

義 經濟體制를 確立하였고 北韓에서는 土地와 産業의 國有化, 個人 商工業의 撤廢, 集團農場化등 急進的 社會主義 經濟體制로 改革하였고 全體住民을 組織化시켜 버렸다. 이러한 經濟制度의 差異는 곧 住民들의 生活感覺과 價值志向을 各己 다르게 誘導하였고 南韓에서는 個人的 責任 아래 經濟生活이 營爲되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國家가 個人的 經濟生活을 責任지는 전혀 異質的인 生活環境을 自아내고 있다. 物質的 生活의 充足을 爲해서 生産體系에 參與하지 않을 수 없는 人間의 本性은 결국 經濟制度속에서 適應하게 되고 環境에의 同調를 反復하다 보면 人間의 本性은 各己 다른 것으로 굳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네째로 相異한 階層構造의 特徵을 들 수 있다.¹⁸⁾ 南韓의 階層構造는 開放的 構造를 原則으로 하고 階層的上昇의 通路가 多元化되고 있으나 北韓의 階層構造는 意圖的으로 統制된 身分制的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階層上昇의 通路는 黨性和 鬪爭經歷으로 單一化되어 있다. 高位幹部黨員, 基本階級, 雜多한 階層으로 分類될 수 있는 比較的 單純한 階層序列이 制度化되어 있고 職場에서의 지위는 바로 階層的 地位와 同一視된다. 南韓의 階層構造와 굳이 比較한다면 上層이 政治的 高位幹部와 黨員이며 中層이 基本階級이고

註 18) 國土統一院, 大韓民國의 民族史的正統性, 1976, 第 6 章 第 1 節 南北韓社會의 構造의 特性, pp.419-433 參照.

下層이 雜多한 階層이 될 것이다. 19) 南韓에서의 階層的 威信 賦與의 根源은 主로 經濟的 地位인데 反하여 北韓에서의 그것은 오직 政治的 地位만이 된다는 顯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問題는 階層的 構造的인 양상보다는 階級構成의 特異한 차이에서 찾아진다. 北韓에서 攻擊의 대상이 되는 資本家階級이 南韓에서는 重要한 中·上層의 階級要員이 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資本主義 社會의 한 部分인 勞動階級이 支配階級으로 君臨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中間階級을 모두 勞動階級化하는 階層政策으로 一貫하고 있으나 南韓에서는 中間階級이 도리어 資本階級과 勞動階級을 相互 牽制하고 調整하는 中心勢力이 되고 있다. 南北韓의 오늘날의 對立은 社會 構造的으로 보면 中間階級과 勞動階級の 對立이며 中間階級の 福祉社會的 志向과 勞動階級の 共產社會的 志向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勞動階級の 文化만을 一方的으로 強要하는 北韓社會의 生活相과 相異한 階級文化의 共存을 容認하면서도 中間階級の 文化가 生活文化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南韓의 社會生活의 差異가 體制化的 差異의 根源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文化的 活動과 裝置의 차이를 들 수 있다. 北韓에서는 모든 「매스·미디어」를 國家가 独占하고 있다. 新聞, 라디오,

註 19)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1974, 上卷 第2編, IX. 階級政策 參照.

TV, 映画, 雜誌는 물론이고 出版이나 學術書籍도 統制된다. 매스컴의 独占은 體制維持에 해로운 情報源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反對的 態度 發生을 事前에 封鎖할 수 있다.北韓의 新聞은 綜合雜誌的 性格을 갖고 그것은 그대로 學習教材로 사용되고 大衆의 組織化에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南韓에서는 「매스·미디어」의 私的 所有가 許容되고 있다. 따라서 政治的 反對가 存在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機能도北韓의 그것은 集團的 宣傳者 集團的 煽動者 集團的 組織者로서 直接的인 強力한 社會統制의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으나 南韓의 경우는 間接的 機能을 말한다.

北韓에서는 思想教育을 위해 總動員된다. 이른바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立脚하여 「形式은 民族的이며 內容은 社會主義的」인 作品만을 許用하며 文芸活動에 있어도 党性, 人民性, 階級性이 強調되고 藝術보다 思想性이 重要視된다.

作品의 테마도 黨에 의해 指定받고 鬭爭的인 文芸 作品의 計劃的 生産을 하고 있다. 共產主義的 文化 以外的 文化가 餘地가 沒살되고 全 住民의 思考方式을 劃一化하는 強力한 文化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다. 20)

여섯째로 社會化의 차이에 注目해야 한다.北韓에서의 社會化는 計劃的 社會化, 示範的 社會化, 集團的 社會化, 一面的 社會化의

註 20) 北韓研究所, 北韓文化論, 1978, 특히 第 5 章 北韓의 文學活動 參照.

方式이 組織的으로 總動員 된다. 家庭에서의 社會化와 組織에서의 社會化가 철저히 統制된 一貫性을 갖고 同一한 內容을 反復的으로 注入한다. 各種敎養會, 思想檢討會, 批判會 등으로 思想注入效果는 補強되며 實踐을 통한 人間革命을 強要하고 있다. 그러나 南韓의 경우는 多分히 個人主義的이고 自生的인 統制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個性이나 個人的 特質이 살아남을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效果는 靑少年層에게 대단히 強力한 威力을 나타내어 전혀 다른 人間類型을 量産시키고 있는 것이다. 21)

註 21) 國土統一院, 南北韓社會文化力量比較, 1977, Ⅱ 參照.

Ⅳ. 体制的 統合의 誘因

南北韓의 社会体制의 異質化의 過程은 現在도 進行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 틈은 深刻해지리라 豫想되지만 그렇다고 兩体制 사이에 近接할 수 있는 共通의 要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로 民族文化의 背景의 同質性을 들 수 있다. 北韓에서의 近代化過程에서나 北韓의 共產化過程에서 傳統的 文化가 차지하는 部門은 꽤 넓은 便이다. 兩体制에서의 傳統的 文化의 흔적은 家族文化 속에 殘留하고 있다. 南韓에서의 忠孝思想이나 敬老思想 昂揚의 根柢에는 傳統的 倫理体系의 現代的 再活用の 努力이 보이며 이것은 새마을運動이나 其他 制度的 改革의 過程에서 「韓國的인 것」의 再發見을 圖謀하는 運動과도 聯関되고 있다. 北韓에서는 原則적으로 家族主義를 排擊하면서도 家族的 背景을 重視하며 家族을 社会의 細胞로 公認하고 있으며 愛情表示의 露出禁止나 離婚의 牽制등의 形態에서 傳統的 類型을 發見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愛國思想「主体思想」에는 南韓에서의 「韓國的인 것」의 強調과 一脈相通하는 共通의 民族的 鄉愁를 찾을 수가 있다.²²⁾

民族文化의 背景의 흔적은 特히 그것에 의해 길러진 成人들의 社会的 性格속에서 잘 나타난다. 現存하는 四~五〇代 以上の 韓國人은 共通의 文化的 背景에서 少年時代를 보냈고 비슷한 社会化過程에

註 22) 李文雄, 北韓의 道德과 宗教, 1978, (北韓文化論 第9章)

서 成長했기 때문에 共通의 心理的 特性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家族內에서의 家長的 位置와 社会的 比重이 兩体制속의 人間의 意識構造속에 同質的인 要素를 拡散할 수 있고 또 韓國人으로서의 共通的 成員을 傳承할 수 있는 媒介的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이들은 子女世代에게 各己 獨特한 韓國性을 傳授할 수 있고 그 影響力은 꽤 오래갈 것이다.

둘째는 民族成員으로서의 一体感을 들 수 있다. 民族成員으로서의 一体感을 確認하는 가장 중요한 手段은 言語의 共通性이다. 言語上의 部分的인 異質化가 進行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말」이라는 共通의 言語構造는 오래도록 같은 民族感情을 持續시킬 수 있다. 南北韓住民이 共通의 言語로 意思傳達할 수 있는 같은 民族成員이라는 嚴然한 事實은 異質化된 社会体制를 再統合으로 誘導하는 動因으로서 強力한 힘을 가지고 있다.

民族成員으로서의 一体感을 確認하는 또하나의 手段은 歷史의 共有이다. 같은 先祖가 같은 經驗을 통해서 蓄積된 歷史的 傳統은 心理的 象徴으로서의 意味를 넘어서나. 그것은 南北韓의 現体制를 下位概念으로 規定하고 그것들을 統合하는 名分과 根拠를 提示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向方을 暗示하는 基準이 되기도 한다.²³⁾

民族成員으로서의 一体感을 確認하는 보다 客觀的인 基準은 南北韓 兩体制에 所屬感을 갖지 않은 순수한 第三者的 海外僑胞들의

註 23) 孫製錫, 民族同質性과 異質化問題, 1977, 統一政策 pp.163f.

存在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現實과 유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體制를 超越하고 있는 境遇에 따라서는 兩體制를 媒介할 수 있는 橋梁的 役割을 담당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것은 어떠한 兩體制의 統合이 問題視될 때 體制위에 存在하는 示範的 同一視의 基準으로서의 意味가 있고 求心的 牽制要因으로서 作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兩體制에서의 政策的 目標의 共通성을 들 수 있다. 南北韓에서 共히 民族統一을 政策的 目標로 내세운다.²⁴⁾ 비록 民族統一의 口號속에 숨겨진 政治的 意圖가 다를지라도 民族의 再統合을 外面하는 政治的 要求가 容納될 수 없음은 強力한 統一에의 誘因이 存在하고 있음을 뜻한다. 兩體制의 政治的 指導者는 반드시 統一政策을 提示하여야 하고 統一政策을 先導的으로 이끌고 나가는 指導力의 強力성이 指導者의 特性의 가장 重要한 要素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否定的 作用을 하기도 한다. 統一은 하나의 體制로의 統合을 意味하므로 妥協에 의한 第三의 統合이 아닌 限은 兩體制에 共히 安保的 威脅이 存在하게 된다. 따라서 北韓의 共產主義는 閉鎖性과 攻擊性을 갖게 되고 南韓에서는 政治的 自由에 限界가 設定된다. 그리하여 兩體制가 모두 政治的 求心力을 追求

註 24) 北韓의 統一外交에 대해서는, 北韓研究所, 北韓外交論, 1978, 第 10 章에 자세히 나오고 있다.

하게 되고 統一問題에 限해서는 強力한 統制가 不可避해진다. 南北韓에서 西歐的 民主主義가 쉽게 導入되기 어렵고 權威主義가 存在하는 理由는 南北韓에서의 統一의 意欲의 強力性과 關係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 權威主義의 否定的 要素가 統一에의 希望이라는 事實앞에는 적은 事實로 看做되는 韓国的 現實은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政治的 犧牲을 무릅쓰더라도 統一의 爭取가 보다 時急한 課題라는 民族的 認識은 南北韓 社会体制의 再統合을 促進하는 要素로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넷째로 國際社会에서의 地位의 類似性을 들 수 있다. 南北韓 모두가 自由 共產陣營이 角逐하는 危險地帶에 위치하고 있고 強大國의 利害關係가 相衝하는 交叉點에 놓여있다. 그러나 南北韓은 모두가 開發途上國家로서의 人口의 構成이나 資源의 分布나 地政學的 環境이 國土의 統一을 하지 않고서는 隣接 強大國의 牽制나 競爭을 이겨 내기 어렵고 韓半島는 하나의 社会体制가 生存하는데 필요한 最少限의 單位로 看做되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에 影響을 주고 있는 複數的 外勢의 介入可能性과 内部에서의 統合要求사이에는 늘 葛藤이 存在한다. 즉 分裂의 可能性과 統合의 必要性 이라는 葛藤은 南北韓이 共히 느끼고 있는 國際的 壓力에서 오고 있다. 이것은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이 이데올로기적으로 同質性을 가졌다 하더라도 民族的 利害나 國家的 利益이 分化하는 限 持繼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이것이 事

大主義를 불러들이고 外勢와의 제휴세력을 낳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南北韓이 周辺 強大國을 묶어서 外集團으로 느끼게 되면 急速한 妥協이나 統合의 可能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로 産業社會로서의 同質性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南韓에서 近代化를 追求하고 經濟成長에 国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과 北韓에서 集團主義적으로 組織화된 經濟建設에 注力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科學 技術을 기초로 하면서 生産力의 提高를 통한 自立經濟의 確立을 志向하고 있다. 高度로 發達된 産業社會에서는 이데올로기의 終末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資本主義社會에서 所有와 管理가 分離되고 株式의 大衆化가 이루어지는 것과 共產主義社會에서 生産手段이 全人民的 所有로 看做되는 것과의 사이에는 根源的인 差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接近可能性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資本主義社會에서 協同體制가 導入되고 共產主義社會에서 競爭體制가 導入되었다고 해서 兩體制가 同質화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體制的 融通性和 彈力性이 생기고 있음은 否認하기 어렵다. 즉, 體制의 核心的 條件을 變하지 않고서도 周邊的 接觸이나 變容이 可能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政治的 障壁이 이데올로기의 敵對感을 高揚하는 것이지만 經濟的 變化가 容認되어 資本主義가 福祉社會를 向해 修正 計劃化되고 또한 共產主義가 市場競爭 原理의 援用, 私有的 領域擴大, 獨立採算制의 導入등으로 自由

化되면²⁵⁾ 經濟的 現實 自体가 政治에 影響을 미치고 統合을 促進하는 契機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以上 列挙한 條件들은 南北韓의 社会体制가 統合을 志向할 수 있는 可能性의 條件들이다. 이러한 肯定的 條件의 作用에도 불구하고 分斷이 持續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條件들이 充分히 成熟開發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한 條件들을 차단하는 否定的 條件이 훨씬 強하기 때문이다.

問題는 統合을 위한 肯定的 條件을 어떻게 活性化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註 25) 이 點에 關해서는 毛死後의 中共의 實用主義的 路線과 그 社会相의 變化가 參考가 된다.

V. 社会的对立과 統合의 過程

두개의 相異한 社会体制가 統合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問題의 解明을 위해 傳統的인 社会学的 概念圖式에 따라 对立的 集團關係의 問題부터 考察할 필요가 있다. 集團關係는 集團과 集團의 利害衝突에서 시작한다. 集團에는 目標이 있으므로 한쪽 集團의 目標達成 때문에 다른 集團의 目標達成이 沮害되면 相互間에 利害对立이 생긴다. 이것을 보통 競争關係라고 한다.

目標達成의 可能性이 아주 희박해져서 競争關係가 露骨化되어 相對方에게 反感的 態度를 갖게 되면 敵對關係에 들어 선다. 敵對關係에 있는 事態를 보통 社会的 緊張이라고 한다. 社会的 緊張이란 ①個人 혹은 集團間的 굳어진, 이제라도 決裂될 것만 같은 關係 ②서로 關係를 맺고 있는 個人 혹은 集團의 相對方에 대한 敵意있는 態度라는 두가지 側面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²⁶⁾ 또한 緊張에서 心理的 側面을 지적할 수도 있다. 즉 「自體의 安全·福祉·價值가 다른 集團의 行動에 의해 妨害되고 위태로워지고 侵犯된다고 생각되는 集團內에 생긴 근심이 緊張이며 그러한 근심을 갖는 集團이 自己에 대한 攻撃이라고 생각된 者에 대해서는

註 26) R.C. Angell, UNESCO and Social Research, A.S.R., 1950, April, p.284.

敵對的으로 반응하게 된다」²⁷⁾ 어떠한 緊張은 構造的 對立에 根
拠한 社會心理的 側面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 없다.

緊張의 持續 내지 激化는 集團成員들에게 어떤 偏見을 助成한다.
偏見이란 外集團成員에 대해 어떤 先入感에 依拠해서 不安·恐怖·
憎惡등의 感情으로 採色된 非合理的 態度를 말한다. 이에 關聯된
社會心理學的 實驗結果에 의하면 競爭狀態에 놓인 두 集團成員의
內集團의 態度와 外集團의 態度 그리고 內部的 凝集力과 外部에
대한 敵意間에는 높은 相關이 보인다 한다.²⁸⁾ 그리고 外集團에
대한 敵意는 內集團에 있어의 地位와 關係가 있다. 一般的으로는
地位가 낮은 者일수록 강하고 偏見의 성격이 偏見적이다. 이에
반해 上位者는 逸脫의 自由가 있어 現實的이라 한다. 그러나 緊
張의 內容은 集團의 構造, 集團의 目標, 集團規範의 許容限界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緊張이 偏見을 隨伴하면 強烈하고 永続的인 것으로 된다. 그러
나 偏見이 그대로 社會的 緊張으로 發展하는 것은 아니다. 交互
적 偏見이 ①敵意를 갖는 對象에 直接 向하는 境遇도 있지만,
②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 그곳에 轉化되는 境遇도 있고, ③다른
代償行動에 의해 解放되는 境遇도 있다. 그러나 ①의 경우에는

註 27) H. Blunner, Group Tension and Interest Organization,
R.R.A. Meeting

28) M. Sherif and W. Sherif, Groups in Harmony and Tension,
1966.

葛藤關係에도 들어간다고 한다. 29)

葛藤은 特定目標物(稀少한 地位, 權力, 資源)을 實力으로써 爭取하려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緊張의 顯在的 爆発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랜돌프는 階級鬭爭을 생각하여 특히 葛藤의 強烈성과 激烈성을 問題시하고 있다. 30) 強烈성은 葛藤當事者들의 에너지의 投入度를 가리키고 激烈성은 敵意表現을 위한 무기와 關聯된다. 前者의 경우엔 퍼스넬리티 一部밖에 介入하지 않는 交友集團의 葛藤에서 퍼스넬리티의 全量을 投入하는 等差가 있을 수 있고, 後者는 談判에서 罷業, 戰爭에 이르기까지 程度差가 다르다.

헬른은 地域内部의 集團關係를 檢討한 結果, 集團間의 葛藤을 激化시키는 條件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31)

- ① 두 集團이 地域社会内部에서 거의 같은 勢力을 가지고 있는 境遇
- ② 두 集團이 거의 共通의 價値를 가지고 있지 않고 活動의 動機가 서로 다른 境遇
- ③ 두 集團에 共通되는 成員이 적은 境遇
- ④ 兩集團의 問題解決이 試圖的인 것이 아니고 解決方法의 現實的

註 29) L.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1956, p. 41.

30) R.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1959, Chap. VI.

31) H.A. Thelen, Dynamics of Groups at Work, 1954, p. 348.

인 檢討手段이 없는 境遇

- ⑤ 集團이 그 内部的 問題를 認識하지 못하여 安全感이 없고 成員들이 焦燥하고 防禦的인 境遇
- ⑥ 두 集團이 자기 힘을 過信하여 自己權力이나 威信에 非現實的 態度를 가지는 境遇
- ⑦ 兩集團이 같은 成員을 爭奪하거나 같은 報酬를 바라는 境遇
- ⑧ 두 集團의 存在理由가 다른 集團으로부터의 攻擊에 대한 保護의 必要性에 있는 境遇
- ⑨ 兩集團의 視野가 좁고 長期的 目標와 短期的 目標와의 區別에 특별히 努力하지 않는 境遇

그러면 葛藤의 歸結이 問題인데, 葛藤은 언제나 顯在化되지 않는다. 兩集團이 葛藤의 불리함을 知得하여 妥協하거나 紛爭을 迴避할때도 있고, 나아가서 서로 融合하여 協同하는 수도 있다. 라피엘은 이것을 ①完全한 斷絶 혹은 合併 ②平等的 提携 ③上下關係에 의한 支配로 나누고 있다. 32)

이러한 概念들은 南北韓의 社會關係를 分析하고 理解하는데 매우 有用한 것들이다. 社會學者들은 이 問題에 대해 一般論的 形式이나 關係라는 말로써 여러가지 概念들을 提供하고 있다.

葛藤關係가 統合關係로 바뀌는 樣式은 外界에 의하면 接觸에 의해 始作되고 그 親和性的의 정도에 따라 接近, 適應, 同化, 合一關係

註 32) R.T. Lapiere, Sociology, 1946, pp.313-409.

가 成立한다고 한다. 33) 接近은 統合에로의 準備過程이고 適應은 상대방의 차이를 認定하면서 一方的으로 혹은 相互적으로 상대와의 統合에 순응하는 것이고 同化는 差別을 克服한 過程이고 合一은 相互의 協同을 結束하는 融合의 過程이다.

美国 社会学者들은 統合關係를 和解와 同化로 區別하고 있다. 34) 和解關係는 敵對者들 간에 鬪爭을 終熄하기 위하여 異議點을 一時的으로 調停하는 것이다. 當事者들은 各自의 敵對的인 態度를 堅持하고 있으나 鬪爭이 繼續되지 않도록 그들의 行動을 節制한다. 和解에는 여러가지 形態가 있으며 抑圧, 服從-支配, 容忍, 妥協, 裁定, 仲裁, 和協등이 이에 속한다.

抑壓關係의 경우 鬪爭이 흔히 한쪽편의 勝利 혹은 優勢로 結판이 나서, 이긴 者가 마음대로 相對方을 부릴 수 있게 된다. 즉 進便에서 더 以上 鬪爭을 繼續하는 일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實質的인 調停이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敵對的 態度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흔히 鬪爭은 敵對者들의 身分에 變動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한쪽 便이 다른 便에 服從하는 身分을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調停을 맺는 것이다. 이것을 支配服從 關係라고 한다. 이때 高位의 身分을 支配的 身分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鬪爭하는 當事者들은 새로운 協定에 다다르기는 困難하나

註 33) L.Von Wiese, Allgemeine Soziologie, 1924, Teil II.

34) J.S. Roucek & R.L. Roland, Sociology, 1955, chap.5.

鬭爭만은 終熄시켜서 争点은 未決인 채 그대로 남겨둔다. 이것이 容忍關係이다.

妥協關係는 鬭爭을 終熄시키기 위해서 雙方의 敵對者가 서로 讓步하는 過程이다. 그러나 敵對的 態度는 남아 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나 協定에 滿足하고 있지는 않으나 鬭爭의 繼續이 보다 害로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妥協한 것이다.

裁定關係에 있어서는 妥協의 條件을 第三者가 마련하고 雙方이 事전에 三者의 決定에 遵守할 것을 同意하는 것이다. 仲裁關係에 있어서는 第三者가 雙方을 和合시킴으로써 妥協을 얻어 보려고 努力한다. 어느 쪽이나 事전에 그 結果를 받아들일 것에 同意하지는 않는다. 和協關係는 敵對的인 過程에서 共同利益을 發見하여 敵對的 態度를 緩和시켜 現實的인 協力을 이룩할 때 일어난다. 그러나 敵對感의 完全한 除去는 아니다.

和解와는 달리 同化關係는 相異한 態度, 習性, 文化的 慣行을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集團이 서로 類似하게 되는 過程이다. 이것은 相異한 文化를 하나로 融解해 버리는 것이다. 이 좋은 例가 美國文化인데 여기서는 相異하고 때로는 相克的인 文化를 가지는 사람들이 서로 合하여 하나의 共通文化를 樹立한 것이다.

同化關係의 가장 중요한 契機는 文化變容이다. 文化變容은 어떤 社會가 다른 社會의 文化로부터 그 文化要素를 取得하는 過程을 말한다. 레드필드는 文化變容을 「相異한 文化를 가진 諸集團이 持續的인 直接接觸을 하여 어느 한편 혹은 雙方 集團의 從來의

文化内容에 變化를 일으켰을 때 보이는 現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5)

變容이 이루어지는 過程을 統合이라고 하는데 統合의 方式으로는 社會學的으로 規範的 統合과 機能的 統合이 促進되고 있다. 36) 規範的 統合은 共通의 價值體系에 根拠하여 規範的으로 統合되는 形態이다. 規範的 統合은 ①共通의 價值關係에 대한 合意의 程度와 反對的 價值的 有無如何 ②適合의이며 一貫的인 規範의 發達(즉 아노미의 欠如) ③價值와 規範間에 協和가 이루어져 規範의 遵守가 價值的 實現을 意味할것 ④共通의 規範이 各己 組織속에 浸透하고 있고 組織行動이 基本的 價値를 따르고 있을 것 ⑤個人들에 대한 效果的인 役割訓練과 規範의 內面化 節次등을 필요로 한다.

이에 反해 機能的 統合은 各 要素들이 相互補完的 關係를 맺고 그 關係를 效果的으로 統合해 나가는 것이다. 機能的 統合이 成功하려면 ①各己 要素間에 專門化와 分業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各己 要素間에 相互補完的인 關係가 再確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③ 이러한 關係를 이끌어 갈 適切하고도 一貫性있는 規則的 節次가 있어야 하고 ④包括하는 上位單位機構가 效率性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⑤規則을 周知시키고 問題點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通路가

註 35) Linton & Herskovits,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A., Vol.38, 1936, pp.149-152.

36) M.E.Olsen, The Process of Social Organization, 1968, pp.160-162.

作動하고 있어야 한다. 37)

이렇게 보면 規範的 統合은 下向型統合이고 機能的 統合은 上向型統合이라고 볼 수도 있다. 規範的 統合이 어려운 點은 基本的 價値에 대한 合意의 根拠가 무엇이냐를 指摘할 수가 있다. 社会的 價値의 共有는 共通의 社会的 經驗에서 나오고 社会的 生活經驗이 社会的 價値의 共有를 만든다. 따라서 統合的인 社会組織이 規範的인 統合過程 前에 있어야 한다. 즉 어느정도의 機能的인 統合이 規範的 統合에 앞서 일어나야만 可能的 것이다.

機能的 統合의 境遇도 統合을 可能하게 하는 어떤 共通의 規範을 前提하지 않고서는 自己쪽을 相對方에게 信賴하여 내맡길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各己 要素가 自己中心的인 利害追求를 위해 相對方을 利用하는 폐단을 무엇으로 防止할 수 있는가도 問題로 남는다. 共通의 價値가 없을 때 個人志向的인 性向을 集合志向的인 性向으로 바꾸는 어떤 힘이 存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社会学的 概念들은 南北韓의 社会關係를 說明하는데 그대로 適用되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社会關係는 進行的인 것이고 變化하는 것이기 때문에 對立的 關係가 對立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있고 統合에 이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豫測하기 힘들고 또 실제로 여러가지 條件이나 變動의 作用으로 얼마든지 變形이 可能하다. 問題는 이러한 關係를 우리가 바라는 方向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것을 南北韓社会에 適用해 보는 問題가 다음에 남아 있다.

註 37) M.E.Olsen, op.cit., p.161.

Ⅵ. 南北韓의 社會關係

南北韓의 社會關係의 過去를 回顧하고 그 未來를 展望한다면 한마디로 對立關係에서 共存關係로 옮겨져 가고 있으며 흐름 如何에 따라 統合關係를 이룰 수 있는 可能性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社會體制間 關係의 存在樣式은 對立, 共存, 統合의 基本類型을 통해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³⁸⁾

南北韓間의 對立關係는 美蘇에 의한 地理的 分斷으로 인한 他律的 對立關係에서부터 시작한다.

南北에서의 大韓民國과 朝鮮人民共和國의 樹立, 6.25 動亂은 本적으로 兩大陣營의 支援에 의한 體制的 對立의 特徵的 事件이 있으며 그것은 國民의 自發的 意思라기 보다는 外勢의 影響과 支援下에서 이루어진 他律的 對立關係이었다. 여기서는 外勢의 壓力을 빌린 힘의 統一이 促求된다. 「北進統一」과 「南朝鮮解放」의 要求는 이 段階의 產物이다.

대체로 50年代에 보였던 類型이다.

他律的 對立關係가 機能的 自律性을 가질 때 自己的 對立關係로 發展한다. 外勢를 빌린 統一의 展望이 어렵게 되고 體制的

註 38) 李相禹, 平和定着의 可能的 模型探索, 南北調節委員會, 1978.

生存 그 自體가 強力히 희구될 때 意識적으로 積極화된 自主的 解決의 努力이 發動한다. 이것은 隣接해 있는 相異한 社會體制 의 存在 事實만으로도 高揚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南北韓 에서 國力培養을 追求하고 體制的 優位性的 確保를 政策課題로 삼은 60年代가 이 時期에 해당한다.

自主的 對立關係 속에서 힘이 備蓄되고 他體制的 消滅이나 衰退를 期待하기 어렵게 되면 對立關係는 長期化된다.

원래 對立關係는 相對方의 힘이 弱화되면 곧 鬪爭이나 支配的 行動이 일어날 수 있는 潛在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對立關係가 長期化되고 相對化되면 最少限 힘의 均衡을 유지하려는 均衡的 對立關係를 이룬다. 오늘날 南北韓에서 生産力이나 軍備 그리고 社會的 結束力 등에서 最少限 相對方과의 比較에서 弱勢를 免하려는 努力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均衡的 對立關係의 形態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均衡的 對立關係는 곧 共存關係에로의 移動을 向하고 있는 것이다. 對立關係와 共存關係의 差異는 對立的 偏見이 있느냐 그리고 體制的 一方的 正統性을 固執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다.

南韓에서는 70年代 後盤期에 와서 서서히 共存關係를 志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南北韓 UN 同時加入, 不可侵條約締結提議, 南北調節委員會의 設置運營등이 그러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體制的 正當性的 要求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共存關係는 敵對的 共存關係, 競爭的 共存關係, 和解的 共存關係

가 있을 수 있다.³⁹⁾ 가령 南北韓이 UN에 同時加入하더라도 敵對關係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헐뜯고 攻擊하게 되면 그것은 敵對的 共存關係이다. 그러나 南北韓이 無理없이 UN에 加入하거나 或은 周邇強大國의 交叉承認을 얻거나 하여 平和的으로 體制間의 競爭을 지속할 수 있으면 競爭的 共存關係를 形成한다.

南北韓의 社會體制가 서로 協力하면서 共存하면 和解的 共存關係를 이룬다. 이 경우는 政治的으로 서로의 立場을 擁護할 수 있고 經濟的으로 相互協力할 수 있는 南北韓의 結束의 時期가 될 것이다.

共存關係에서 統合關係로 進行하는 데는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왜냐하면 統合의 方式 自體가 多樣하기 때문이다. 對立關係에서 共存關係를 거치지 않고 統合을 이루면 그것은 調整的 統合關係를 이룰 것이다.⁴⁰⁾ 이것은 힘의 優位에 의한 어떤 形態의 支配形式이 되는 경우가 많고 異質的인 要素의 存在를 無視할 수 없다는 點에서 調整의 技術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것은 一種의 規範的 統合을 意味하는 것이다. 北韓은 계속 이런 關係形

註39) 李相禹教授는 共存模型으로서 敵對的, 中立的, 同盟的 共存模型을 들고 있는데 이 問題를 理解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上揭書, p.55.

40) H. Gerth and C.W. Mills, Character and Social Structure, 1954, p.355 에서의 Coordination 의 意味와 같음.

式의 統合을 要求하고 있는데 問題點이 있다.⁴¹⁾

變容的 統合關係는 雙方 體制의 점진적이고 自生的인 變化를 期待하는 統合關係이고 따라서 長期間의 接觸과 交流가 前提된다.

變容에는 中立的인 것도 있지만 優勢한 것이 劣勢한 것을 變容하는 수도 있다. 長期的의 接觸을 거치면 効用성과 持續力이 優位에 선다. 물론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가 長期間의 接觸을 거쳐 雙方이 어떻게 變容할 것인가는 아직 未知數의 일이고 世界는 現在 그 歷史的 實驗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政治的 利害나 偏見이 除去되고 時間의 餘裕가 있으면 不可能하지는 않을 것이다.

收斂的 統合關係는 어떤 理想型이나 中立型을 向하여 相互 變化하는 統合의 方式이다. 社會學에서 共同社會와 利益社會를 辯證法的으로 止揚한 것이 統合社會라고 알려져 있지만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를 統合止揚한 社會類型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確答을 못가지고 있다. 가령 個人主義와 集團主義의 中間型은 생각될 수 있지만 歷史的 實體로서의 資本主義 對 共產主義社會體制는 類型論的으로는 收斂되기 어려운 異質性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의 努力은 전혀 無意味한 것이 아니며 高度의 意識的 選別作業과 緻密한 計劃化, 高等의 政治技術이 動員되면 어떤 確

註 41) 國土統一院에서는 北韓의 統一理念을 暴力的 依存的 合作的 吸收的 統一論으로 說明하고 있다. 國土統一院, 大韓民國의 民族史의 正統性, 1976, 第8章 第3節 韓國의 平和統一意志와 北韓의 反平和統一意志 參照.

답을 찾지 못할 것은 아니다.

南北韓의 社會體制의 再統合을 위한 길은 쉬운 것이 아니고 험난하고도 괴로운 가시밭을 걸어야 한다. 아무리 理想的인 統合方式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可能하게 하는 條件들이 成熟하고 있어야 한다. 黃性模氏는 이것을 ① 社會關係의 變化 ② 새로운 指導層의 形成 ③ 社會價值觀(政治이데올로기) 設定 ④ 政治中心部의 構成이 南北韓 異質化의 要因으로 보았지만⁴²⁾ 그러한 條件을 거꾸로 活用하면 南北韓의 社會的 統合을 위한 條件으로도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朴東雲氏는 南北韓의 社會的 統合을 위해서는 主體的 條件과 客體的 條件이 必要한데 主體的 條件으로서 ① 體制속에 主體的力量이 蓄積되어야 하고 ② 統一主體勢力이 形成되어야 하고 ③ 統合을 위한 理念이 定立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客體的 條件으로서 ① 周邊情勢의 緊張緩和 ② 周邊勢力均衡의 再調整 ③ 國際輿論의 喚起를 들고 있다.⁴³⁾ 兩者가 모두 變化要因으로서 理念(價值體制)과 主導勢力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重要的 要因이므로 다음에 檢討하기로 한다.

이것들을 整理하면 南北韓의 社會體制의 統合을 促進하는 條件들은

註 42) 黃性模, 異質化의 克服과 民族主義, 1977, 統一政策 3卷 4號 pp.179-184.

43) 朴東雲, 南北韓의 機能的 接近(1980.10.7)세미너에서의 發言要旨.

國內的인 體制內的 條件과 國際的인 體制外的 條件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條件의 差異나 配分如何에 따라서 共存關係나 統合關係가 어느 한 곳에 固着하여 더 進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그 關係가 거꾸로 進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可及的 變容的 統合이나 收斂的 統合을 바라고 있다.

이것들은 機能的 統合의 方法이고 이런 形態의 難點은 結果를 過程속에 求해야 한다는 事實이다. 南北韓의 葛藤은 民族全體를 위해 否定的 意味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不可抗力的인 것으로 받아 들인다면 否定的인 것을 肯定的인 것으로 轉換하는 民族的 예저를 찾아야 한다.⁴⁴⁾ 對立과 共存속에서 發展이 促進되고 새로운 民族的 ایده올로기를 創出하는 源泉으로 活用하면 統合關係가 意外로 急速度로 進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註 44) L.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s, 1956, VII, Conflict-the Unifier 에서 葛藤의 肯定的意味를 評價하고 있다.

VII. 社会的 統合에의 길

南北韓의 社會的 統合은 어떤 形態의 統合이든 統合을 위한 價値前提가 確然히 定立되어 있어야 한다. 社會學的으로 規範的 統合과 機能的 統合은 相互補完的이고 그것들이 現實的으로는 同時에 並行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體制間的 統合은 不可能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어떤 基本的인 共通價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統合을 위한 價値體系를 定立할 必要가 있다. 特定の 社會體制안에서는 生産體系가 價値體系의 內容을 규정할 수 있다.⁴⁵⁾ 그러나 體制가 半強制的으로 分割되고 있는 곳에서 主體的으로 統合을 추진하려면 價値體系의 共通性이 前提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外來文化의 影響이 體制的 分裂을 가져왔기 때문에 分裂을 強要하고 있는 文化的 要因에서 어떤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먼저 價値의 變化와 關係된 몇가지 社會學的 價値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① 價値體系의 全面的인 轉換은 그 契機로서 어떤 不安, 恐怖, 絶望을 필요로 한다는 假說이 있다.⁴⁶⁾

註 45) 이것은 史的唯物論의 公式이나 價値나 意識을 確立하는 경우 흔히 보이는 現象이기도 하다. R. Centers,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es, 1947, 參照.

46) A. Hallowell, Sociopsychological Aspects of Acculturation, in R. Linton 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pp. 208-9.

가령 大規模의 戰爭이나 飢餓때문에 곤경에 빠지면 傳統的인 宗教에 屬해인 原始民族도 基督教으로 쉽게 轉換하는 例가 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心理的인 충격을 주고 脱出口를 찾게 만드는 것인데 이 경우 어떤 解決策이 提示되면 곧 變化에의 可能性이 큰 것이다.

② 欲求不滿과 關聯된 動機構造가 價値를 轉換할 수 있다.

가령 欲求水準을 上昇시킴으로써 現在 滿足하고 있는 것의 매력 감을 減少시킨다든지 欲求不滿의 解消를 위한 努力속에서 생각을 달리하게 할 수 있다.⁴⁷⁾

③ 새로운 情報나 知識과의 接觸이 價値變化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것은 問題自體에 대한 意味를 明確化시키고 음폐된 內容을 露出시키기도 하고 狀況의 새로운 變化를 認知시킬 수도 있고 또 보다 合理的이고 適切한 手段을 提示하기도 하여 價値判斷을 變更시키는 힘을 줄 수가 있다.

④ 自己洞察을 深化시킴으로써 價値意識의 變化가 可能하다.

自己自身에 대한 反省的인 認識의 深化란 참다운 自己에게 直面한다는 것이다. 共產主義國家에서의 自己批判도 이 原理를 應用한 것인데 이 方法이 効果的이기 위해서는 主體的인 批判力이

註 47) D. Katz,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 P. O. Q. 1960, Sum. p. 177.

있어야 한다.⁴⁸⁾

⑤ 價値意識의 支持者를 통한 變革이 可能하다. 共產主義國家에서 獨裁者의 死亡은 獨裁主義者에의 批判을 容易하게 한다. 또 사람들은 同體集團으로부터 격리되면 轉向이나 改定이 쉽다. 이런 경우는 價値의 支持者의 喪失을 통한 變化이고 反對로 새로운 信賴받는 存在를 통해 우리感情을 育成하고 새로운 準據集團으로 構成해도 價値의 變化가 可能하다.⁴⁹⁾

⑥ 制裁體系의 活用으로 價値意識을 變容할 수가 있다. 이것은 社會統制의 基本的인 메카니즘이고 또 學習理論에서도 基本的인 假說로 되어 있다. 보다 많은 報償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사람들의 態度를 유도하거나 禁止的인 것에 罰을 加하는 方法을 擇할 수도 있다.

⑦ 社會的 政治的 經驗과 實踐性이 價値를 變容 強化한다. 특히 鬪爭의 經驗이 自己힘을 試驗하고 團結을 배우고 鬪爭의 重要性을 理解시키며 政治的 意識을 發達시킨다. 이것은 마스主義의 公式으로 되어 있는데⁵⁰⁾ 社會心理學的으로도 그 妥當性은 認定되고 있다. 이것은 經濟的 政治的 利害關係의 共有를 前提하고 있으며 潛在的 意識을 顯在化하는 役割을 實踐이 媒介해주는 것이다.

註 48) C. Horland, Effects of the Mass Media, in Lindzey,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954, Chap 28 參照.

49) K. Lewin, Resolving Social Conflicts, 1948, p. 86.

50) 레닌, 綱領案의 解說, 1896 (日訳版) 參照.

이렇듯 價値를 變化시키는 技術은 多樣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體制內的 成員들의 價値變化에는 有效하게 適用되나 體制間的 價値變化에는 適用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變化方法들이 適用될 수 있을 可能性이 있는 契機가 주어지면 體制間에도 여러가지 方法이 同時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機會를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韓 兩體制에서 같은 意味를 가질 수 있는 共通의 理念을 開發하는 일이 必要하다. 이 共通理念을 흔히 民族主義理念이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南北韓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民族主義는 모두 各己의 社會體制的 正當性을 擁護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⁵¹⁾ 말하자면 相對方의 體制나 立場을 考慮치 않는 狹意의 閉鎖的인 民族主義이고 各者의 體制的 團合을 疎하고 結果를 圖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機能을 지니고 있다. 南韓에서 資本主義를 두둔하는 民族主義와 北韓에서 共產主義를 伸長하기 위한 民族主義가, 보다 上位의 基準으로 昇華할 수 있는 可能性은, 現在로서는 아주 희박하다.⁵²⁾

그렇다고 民族主義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統一後에 있어야 할 社會像을 理論적으로 定立하여 보다

註51) 國土統一院, 北韓社會와 民族問題, 1976.

52) 朴俊圭, 北韓社會와 民族主義問題, 1976.(國土統一院)

發展的인 社會體制의 具現을 위한 理念을 그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은 資本主義도 아니고 共產主義도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서 各己 社會體制가 갖는 利點을 混合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相當한 정도로 異質化된 成員들을 統合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異質性을 認定하고 그 異質性을 生産的으로 活用하지 않고서는 統合을 위한 接近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로 전혀 容納되지 않는 異質性을 活用한다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 가령 自由, 平等, 民主 計劃, 福祉 등은 서로 容納될 수 있는 價値이다. 따라서 이러한 價値들을 包容하고 그러한 價値의 實現을 促進하는 方案을 約束하는 民族主義라면 希望을 걸 수가 있다.

南北韓의 體制的 統合을 위해서는 北韓式의 無條件統一方法이나 앞을 豫見하기 어려운 聯邦制案도 도움이 안된다. 이點에서는

南韓에서처럼 漸進的 統一을 主張해도 未來에의 展望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統一을 促進하는 길은 共通의 理念을 서로 議論하고 다듬는 作業이 先行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고 效果的일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 南北對話를 했지만 未來의 展望이나 共同으로 追求해야 할 理想的인 社會像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交換한 일이 없다.⁵³⁾ 힘을 節約하기 위해서는 理念과 體制를 초월할 것이 아니라 共通理念 問題부터 討議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接近 可能性이 있고 이야기가 서로 먹혀 들어가면 統合의 可能性이 엿보이는 것이고 이른바 平和的 統一의 길이 트

註 53) 南北調節委員會, 南北對話白書, 1978 參照.

이는 것이다. 이 共通理念만 發見되고 合意를 얻을 수 있으면 前述한 價値變化의 方法이나 技術은 매우 有効適切하게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에 統合을 위한 唯進勢力이 나올 수 있을 可能性을 打診해 보는 것도 無用한 일은 아니다. 이것을 統一의 主導勢力이라고도 하고 統一의 役軍이라고도 한다. 異質化된 南北韓의 社會體制를 考慮하여 보면 세가지의 可能한 主導勢力을 理念的으로 想定해 볼 수가 있다. 즉 選良層 中間層 大象이다.

우선 大衆부터 보면 大衆이 統一의 主導勢力이 된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매우 어렵다. 두개의 體制가 아니고 하나의 體制라면 大衆主導의 政策을 樹立할 수가 있고 大衆趣向의 政策을 유도할 수가 있으나 雙方의 體制속에 分離되어있는 大衆이 同時에 統一을 위한 勢力으로 결속 규합되기는 어렵다. 다만 壓力集團의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統一에의 所望을 表現할 수는 있을 것이다.

選良의 경우를 보면 南北韓社會에서의 選良層의 異質성에 비추어 統一主導勢力으로서의 可能性이 희박할지는 모르나 事態가 變하여 選良層이 相互協力할 必要가 생기면 統一을 위한 리더쉽을 發揮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内部에서의 抵抗的인 要素를 排除할 수가 있고 보다 急速한 接近을 成就시킬 수가 있다. 異質的인 集團의 連繫는 리더間의 結束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⁵⁴⁾ 또한 選良層은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고 國民을 指導하는 層이므로 民意를 吸收하는 쪽으로 리더쉽을 發揮하면 有效適切한 主導勢力의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說的인 모델이고 現實的으로는 南北韓의 選良層은 6.25의 經驗을 겪은 世代이기 때문에 接近不可能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에 中間層이 남는다. 中間層이 主導勢力이 되기 위해서는 構造的인 同質性이 前提된다. 즉 異質性이 排除되고 類似한 運命的인 紐帶가 痕烈히 知覺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 쪽 體制에서 構造的 準備性이 갖추어져 있는데 相對方 體制의 指導層이 失政하였을 때 可能할 수 있고 또 兩便의 指導層이 同時에 비슷하게 失政하였을 때도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北韓社會에 中間層이 있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可能性이 있다면 北韓社會에 革命的 鬪士型이 사라지고 行政家的 官僚들이 得勢하게 되면 政治權力에 直接 參與하지 않는 得期層이 그 代打者가 될 수가 있다. 즉 非黨員인 技術官僚들이 中間層을 形成할 수 있을 것이다.

中間層이 主導勢力이 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可能性은 社會 構造的 中堅層으로서의 影響力을 發揮하는 方法이다.

統一에 있어 選良層이 갖기 쉬운 保守性을 견제하고 下層이

註 54) 이러한 見解는 小集團研究에서 Sociometry를 통한 實驗 結果가 밝혀주고 있다.

되기 쉬운 過激性을 緩和시킬 수 있는 緩衡的 役割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中間層은 社會속의 分極的인 힘을 折衷 調整妥協시키는 媒介的 役割을 담당할 수도 있다. 問題는 이러한 役割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條件이 可能한가에 있다.

어떻든 主導勢力의 問題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問題를 안고 있다.

以上으로 우리는 統一理念의 問題와 그 主體勢力의 問題를 보았으나 이러한 問題들을 진지하게 檢討할 수 있는 段階가 되려면 南北韓의 社會關係가 最小限 共存關係의 段階를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問題 自體가 無意味해 진다.

南北韓이 對決하고 있는 오늘의 時點에서 우리들은 統合을 위한 體制內的 條件들을 整備하고 있을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해 萬般의 對備策을 갖추고 그 힘으로 體制外的 條件을 有利하게 유도하는 努力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 努力이란 南北韓에 있는 對決的 偏見을 緩和 내지 除去하고 體制間에 存在하는 統合에의 肯定的 條件을 活性化시키는 일이다. 그 方法중의 하나가 南北韓의 接觸의 頻度を 增加하는 일이다. 接觸의 頻度は 好感의 增加를 가져온다는 社會心理學的 命題가 있다. 그러나 接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없으면 接觸은 反復되지 않는다. 南北韓의 接觸이나 交流도 相對方에게 푸러스를 주는 報酬의 相互 交換이 前提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經濟交流은 매우 有效한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⁵⁾

註 55) 李承潤, 南北韓經濟交流와 協力の 必要性, 南北調節委員會, 1978, pp. 88-99.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南北韓이 共通의 準據基準을 갖는 일이다. 離散家族의 再結合을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의 失敗의 原因은 그 自體를 目的視한 南韓의 準據基準과 그것을 手段視한 北韓의 그것과의 差異에서 緣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事物을 보는 解眼의 눈이 다르다는 것은 立場과 利害關係의 相衡이 介入하기 때문이지만 事物을 보는 눈을 合致시키는 努力속에서 立場과 利害關係를 調和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部分的인 共通性을 發見하고 그것을 擴大하는 作業이 권장될 만하다.

이런 觀點에서 追求될 수 있는 것으로 言語政策, 民族文化의 發掘 資源의 共同開發 科學的 協力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世代交替를 생각할 수가 있다. 社會化過程과 社會統制技術의 發達로 感情의 世代的 連續性を 排除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既得權에 근거한 敵對的 感情의 緩和는 最少限 期約할 수가 있다.

따라서 世代交替는 統一을 向한 希望的 變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世代交替의 手段은 時間的 遲延을 의미하므로 積極的인 권장의 對象은 아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統一이 不可能할 때는 期待할 수 밖에 없는 次善의 方法인 것이다.

南北韓의 社會體制의 統合은 論理的으로는 利害關係를 共有하고 共通의 準據基準을 갖고 偏見을 緩和하고 接觸의 機會를 活潑히 가질 수 있다는 條件이 充足되면 平和的으로 統合이 可能할 수 있는 雰囲気가 成熟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